113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5호　　3월15일

평양 로동신문사발행 1950

근로자 一九五0년 제五호 로동신문사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제5호 (51)

1950년3월15일

내 용

조쏘 량국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一주년에 제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수상 김 일 성

지금으로부터 한해 전 一九四九년 三월 十七일에 모쓰크바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동맹과의 간에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들이 체결되였다. 이 협정들은 우리 조국의 해방자인 위대한 쏘련이 조선 인민에게 주는 사심없는 진정한 원조의 표현이였으며 조쏘 량국 인민 간의 강화 발전되어 가는 친선의 표현이였다.

이 협정들은 해방 후 조쏘 량국간의 새로운 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새 페지를 열어 놓았으며 우리의 젊은 신생 공화국의 국제적 위신을 제고시키며 그의 무한한 번영과 장래 발전을 보장하여 주는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협정들에는 위대한 쏘련이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들과 체결한 협정들에서와 같이 전세계의 평화 안전을 수호하며 약소 민족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히 하며 대소 국가들의 동등적 립장에 기초한 협조들을 원칙으로한 쓰딸린적 대외 정책이 명백히 표현되였다.

오늘 조쏘 량국간의 관계는 이전 짜리 로씨야와 조선간의 낡은 관계에서 설정된 것이 아니라 해방과 원조에서 맺어진 시초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새 관계에서 설정되였다.

위대한 쏘련 군대는 우리 조국 강토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격멸 구축하고 우리 조국을 근 반세기에 걸친 일본 제국주의의 악독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 인민에게 자기 조국을 자기들의 지망대로 재건하며 민주주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온갖 조건들을 지어 주었으며 민주주의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 인민에게 시종 일관한 사심없는 원조를 계속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위대한 쏘련 군대가 진주하였던 우리 조국 북반부에는 인민 민주 제도가 튼튼히 설정되었으며 조선 인민들이 진정으로 자기 조국의 주인으로 되었다。

해방후 四년 동안에 쏘련 정부가 조선 인민에게 준 시종 일관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및 기술적 원조들은 민주주의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 인민에게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주었으며 그들의 창조적 노력을 일층 앙양시키었다。

위대한 쏘련 정부가 조선 인민에게 준 부단한 원조와 자기 조국을 민주주의적으로 재건하는 조선 인민의 앙양된 창조적 노력의 결과는 오늘 우리 조국 북반부로 하여금 우리의 젊은 신생 공화국의 강력한 군사、 정치、 경제、 문화적 민주 기지로 전변시키었으며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 수준을 비상히 향상시키었다。

근 반세기에 걸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의 악독한 결과는 우리 조선을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락후된 나라로 만들었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하였다。 패망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허다한 공장、 기업소들과 철도 운수들을 파괴하였으며 광산、 탄광들을 침수시키었다。 이 파괴된 산업들과 철도 운수들을 부흥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는 기계、 원료、 자재들이 부족하였으며 기술이 부족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에게 기술을 소유시키지 않았으며 조선 산업을 일본 산업에 부가시키는 기형적 산업으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쏘련의 기술적 원조와 기계、 자재、 원료상 원조가 없이는 우리 산업과 운수의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인민 경제의 부흥 발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우리 조국 북반부에 진주하였던 위대한 쏘련 군대는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과 철도 운수들과 탄광、 광산들을 복구함에 있어서 우리 조선 인민에게 진정한 성원의 손길을 주었다。

쏘련 군대의 장병들은 공화국 북반부의 방방 곡곡에서 우리 로동자들과 우리 기술자들과 혼연 일체되어 파괴된 산업들과 운수들을 복구함에 있어서 거대한 업적을 남기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一九四八년 말에 쏘련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위대한 쏘련 군대가 우리 조국 강토로부터 철거할 때에 전체 조선 인민들이 쓰딸린 대원수에게 보낸 서한에는 쏘련 군대의 위훈과 업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쏘베트 군대의 장병들을 전별하면서 우리 三천만 인민의 가슴에는 영웅적 쏘베트 군대의 은공에 대한 무한한 감격이 끓어 넘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해방과 부흥에 끼친 쏘베트 군대의 영예로운 공적은 청청한 하늘 높이 솟은 해방탑들과 쏘련의 원조로써 복구되어 증산의 연기를 뿜어 올리는 공장들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며 풍작에 흥성거리는 자유의 전원이며 창조의 열정이 벅찬 이 나라 인민들의 슬기로운 모습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조선 인민은 쏘베트 군대의 영웅적 위훈을 천추 만대에 내려가며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위훈에 대한 가지가지、 이야기는 신기로운 전설인양 자자손손 전하여 지면서 인민 속에서 해방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길이 자아낼 것입니다。」

위대한 쏘련 군대가 우리 조국 강토에서 철거한 후 신생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앞에는 해방 후 三년 동안 쏘련 군대의 원조에 의하여 복구된 공장、 기업소、 철도 운수들을 원만히 운영하며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킴으로써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키며 각종 전문 대학들을 더 많이 창설하여 민족 간부들을 급속히 양성할 임무들이 제기되었다。

이 임무들을 성과있게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쏘련의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원조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국 정부는 一九四九년 三월에 공화국 정부 대표단을 모쓰크바에 파견하여 쏘련과의 十년을 기한으로 하고 조쏘 량국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들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이 협정들은 조쏘 량국 간의 우호적 평등적 원조 정신에서 체결되었으며 호상 협조의 원칙에서 체결되었다。

이 협정들에는 조쏘 량국 간의 호상 협조 동등 및 호상 리익의 기초 위에서 량국 간의 통상 관계를 강화 발전

시키며 량국의 인민 경제 발전의 수요에 필요한 량국 간의 끊임없고 증가되는 상품 교류를 보장하여 주며 량국간의 문화 과학 및 예술 분야에서 설정된 관계들을 백방으로 발전시키며 전문가의 파견, 기술 원조, 전람회 조직, 출판물 및 표본의 교환 등 방법으로 산업 및 농업 분야에서 량국 간의 경험 교환을 강화하며 우리 신생 공화국에 쏘련 정부로부터 차관줄 것이 예견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여 량국 간의 통상 관계는 일층 발전 확대되게 되었으며 우리 공화국은 인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시설품, 기계, 기계 부속품, 자재, 원료, 콕구스탄, 기관차, 전기 기관차, 농기구, 기계류, 면화, 직조품 등 중요 물자들을 받게 되었으며 그 대신에 우리 공화국은 우리가 생산하는 금속 제품, 화학 제품, 토산 후연, 이연 정광 등 기타 생산품을 쏘련에 수출하게 되었다。

우리의 인민 경제를 부흥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모든 공장들을 복구하며 복구된 공장들을 자기의 기능을 다하여 조업케 하며 우리 산업의 편파성을 퇴치하며 인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에 가장 필요한 새 공장들을 시설하여야 할 것이었다。

이 과업들을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쏘련에 수출하는것보다 쏘련으로부터 수입하는것이 더 많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량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쏘련 정부는 三년을 기간으로 하고 우리 신생 공화국에 二억二천二백만 루블리의 차관을 허여하였다。 이 외에도 조쏘 량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은 우리 인민 경제 부흥 발전과 민족 간부 양성과 민족 문화의 륭성 발전에 필요한 기술적 원조와 문화적 원조를 받게 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여 쏘련 정부는 우리 신생 공화국에 많은 기술자들과 학자들을 보내게 되어 우리의 산업을 부흥 발전시키며 민족 간부들을 양성하며 민족 문화를 급속히 발전시킴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쏘 량국 간에 호상 협조와 동등적 립장에서 체결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장래 발전과 륭성에 있어서 거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위대한 쏘련이 조선 인민에게 주는 진정한 원조를 또한번 보이어 주고 있다。

이 협정이 체결된 후 一년 동안에 우리 조국 북반부에서는 선진 기술과 선진 시설들을 요구하는 굉대한 전인

민적 건설 사업이 전개되었다。

쏘련 정부는 조쏘 량국 간에 체결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에 기초하여 신생 공화국의 산업 건설에 필요한 기계, 자재, 원료들을 충분히 제공하여 주었으며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우리의 산업들을 부흥 발전시키며 새 생산 부문들과 공장들을 설계함에 있어서 거대한 기술적 원조를 주었다。

중공업 방면에 있어서 지난 한해 동안에 쏘련의 기술적 원조와 기계, 자재, 원료상 원조에 의하여 황해 제철소, 四호 용광로와 해탄로가 복구되었으며 황해 제철소의 기본 기술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며, 강선 제강소, 성진 제강소, 흥남 비료 공장 대기업소들에 새 생산 부문의 시설과 기술적 개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쏘련 기술자들의 도움에 의하여 지난 한해 동안에 문평 아연 공장, 청진 제철소, 남포 판초자 공장, 평양 기계, 평양 방직 등 대기업소들이 복구되며 새로 설계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해에 우리 조국의 전력의 원천인 수풍 발전소에는 파괴의 큰 위협이 닥쳐왔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수풍 발전소의 굉대한 건축을 락후된 기술적 기초 위에서 진행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행정에서 야만적 방법으로 급속히 건설하고 복구 수리하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결과에 수풍 발전소는 파괴될 커다란 위험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다。

수풍 발전소를 파괴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전인민적 복구 사업과 창조적 노력이 전개되었다。

위대한 쏘련은 우리에게 기술자들을 파견함으로써 지난 한해 동안에 수풍 에푸롱 공사 사업은 성과있게 완성하고 동방 대건물인 수풍 발전소를 파괴로부터 구원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쏘련 정부는 량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광대한 수리 공사 사업과 광산 탐구 개발 사업들에 많은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신생 공화국의 부흥 발전에 거대한 원조를 주고 있다。

량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상품 류통은 급격히 장성되고 있다。 쏘련과의 상품 류통은 협정 전 一九四六년부터 시작되어 해마다 확대 발전되었다。 량국 간의 무역 총액은 다음과 같다。

一九四六년에는 七천四백五만二천 루블리, 一九四七년에는 一억四천八백四十만 루블리, 一九四八년에는 二억

六천四백九十五만五천루블리、一九四九년에는 三억四천五十二만五천 루블리로 되였다。

량국 간의 一九四六년도 무역 총액을 一〇〇으로 기준한다면 一九四七년도에는 二〇四%、一九四八년도에는 三五七・七%、一九四九년도에는 四五九・八%로 장성되였다。

량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一九四九년도에 대쏘 무역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수입된 총물자 중에서 산업부흥과 농촌 경리 발전에 가장 필요한 기계、자재、원료 등이 총수입액의 六六・八%를 차지하는 바 그 중에서 콕구스탄、원료、공작 기계、전기 기계、농기구、기계류 등이 다수를 차지하며 생활 필수품은 총수입의 二七・三%를 차지하는 바 그 중에서 면직물 모직물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쏘 무역을 통하여 우리가 쏘련에 수출하는 생산품은 주로 금속 제품、화학 제품、광물유、전분、사과、감자 등이다。

이와 같이 지난 한해 동안에 실시된 대쏘 무역을 통하여 우리가 쏘련으로부터 수입한 절대 다수의 물자들은 우리 민족 경제의 기본 골간인 산업을 부흥 발전 시키기 위한 것이며 민족 경제의 토대를 튼튼케 구축하기 위한 것이였다。

조쏘 량국 간에 체결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쏘련 정부는 수다한 학자들과 박사들을 파견하여 우리의 민족 간부 양성과 인민 보건 사업에 공헌하고 있으며 수다한 교과서、교수 제강、실험 기구들을 보내어 우리의 대학들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각종 의약품과 병기구 시설 등을 보내어 인민 보건 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의 각대학들에는 三十여명의 쏘련 학자들이 우리의 민족 간부들을 양성하여 주고 있으며 각종 병원들에서는 十여명의 박사들이 인민 보건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쏘련 정부는 지난 해에 공화국 북반부 각지에 설치되였던 六三〇여대의 침대 수를 가진 一五개의 적십자 병원들을 그 시설 전부와 약품 전부를 합하여 무상으로 공화국 정부에 양도하여 주었다。

이 협정에 의하여 조쏘 량국 간의 문화 교류도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

지난 해에 쏘련 정부는 우리의 민족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적지 않은 수효의 전문가들을 우리에게 파견하여 우리의 민족 예술 발전에 원조를 주었으며 문화 사절단을 파견하여 선진 쏘련 예술들을 광범한 인민 대중에게 보이어 주었다。

다른 방면으로 공화국 정부는 수차에 걸친 대표단들을 쏘련에 파견하여 쏘련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성과들을 견학케 하였으며 각종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쏘련에서 선진 기술 강습을 받게 하며 수백여명의 류학생들을 쏘련 대학들에 파견하여 선진 과학을 습득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쏘련이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들과 체결한 협정들과 같이 조쏘 량국 간에 체결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들은 대소 국가들 간에 맺어진 친선적이며 동등적 원칙에 립각한 새로운 협조의 모범으로 되는 것이다。

제국주의 강대 국가들과 약소 국가들 간에는 이러한 동등적 친선적 협정이 있을 수 없다。 제국주의 강대 국가들이 약소 국가들에 강요하는 온갖 협정들은 그 어느 것을 물론하고 모두 불평등적이며 략탈적이며 침략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 제국주의 자들의 지배 하에 있는 마샬화된 서유롭파 제국들에서와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는 날이 갈쑤록 경제가 파탄되어 가고 있다。

쏘련과의 협조와 호상 관계에 립각한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들과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전선의 각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위대한 쏘련의 시종 일관한 원조와 지지를 받는 우리 공화국의 민족 경제는 부단히 장성되고 있다。 만일 一九四六년도 공업 생산고를 一〇〇으로 한다면 一九四七년도에는 一八九・三%、一九四八년에는 二六三・三%、一九四九년에는 三七七・一%로 장성되였다。

기계 생산과 경공업 생산량은 벌써 전쟁 전 수준을 초과 달성하였는바 一九四四년에 비하여 기계 생산은 二四六・九%、경공업은 一五二・七%로 각각 장성되였다。 로동 생산률은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一九四七년에는 一七〇・七%、一九四八년에는 二三五・八%、一九四九년에는 二八三・四%로 장성되였다。

이와 갑이 조쏘 량국 간에 체결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一九四九—一九五〇년도의 공화국 북반부 인민 경제 계획의 첫해의 예정 숫자는 성과있게 실천되였다。 조쏘 량국 간에 체결된 협정과 위대한 쏘련이 조선 인민에게 주는 진정한 원조의 결과는 실생활에서 이렇게 표현되였다。

우리 조국 남반부에 진주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소위 경제적 원조 라는 미명 하에서 우리 조국 남반부를 월가의 주인들의 잉여 상품의 판매 시장으로 전변시키고 있으며 우리 조국의 자원을 략탈하여 가고 있으며 우리 민족 경제를 파산시키는 정책을 로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四년 동안이나 미국의 조선에 대한 「원조」에 대하여 떠들어치고 있으며 남조선 경제의 「부흥 발전」에 대하여 떠들어치고 있다。 그러나 소위 「원조」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갈쑤록 남조선의 경제는 점점 더 파탄되어 가고 있으며 인민 대중의 생활은 더 비참한 처지에 령락되어 가고 있다。

미국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위 「경제 원조」가 남조선 경제에 어떻게 반영되였는가 하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숫자들이 말하여 주고 있다。 一九四三년도 남조선 전체 기업소 수를 一〇〇으로 한다면 一九四六년에는 기업소 총수가 五二% 까지 축소되었으며、 一九四七년에는 四五%、 一九四八년에는 三七%、 一九四九년 상반기에는 三六%까지 축소되였다。

민족 경제의 이러한 파탄은 산업 생산을 저하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남조선의 기계 생산은 一九四五년 해방 직후에 비하여 一九四九년에는 五%、 유수 기계 생산은 八%、 농기계 생산은 九%、 세멘트 생산은 一七%、 가장 발달되였다고 하는 방직 공업은 一三%까지 축소되였다。

농촌 경리 발전에 있어서도 미국 사람들이 떠드는 소위 「원조」의 결과는 이러한 비참한 사태를 초래하였다。 남조선의 경지 면적은 전쟁 전에 비하여 一九四五년에는 八七·九%、 一九四六년에는 八〇·八%、 一九四七년에는 六九·七%、 一九四八년에는 六六%、 一九四九년에는 五五%까지 축소되였다。

미국 사람들의 「원조」의 결과에 남반부에 조성된 이러한 비참한 사태는 남조선의 물가를 전쟁 전에 비하여 一九四六년에는 一三四배 — 一六二배、 一九四七년에는 四〇二배 — 四〇九배、 一九四八년에는 七三二배 — 八一八배、 一九四九년에는 八二二배 — 一、〇〇三배까지 폭등시키였다。

이와 같이 미국 사람들이 소위 「경제적 원조」라는 미명 하에서 야수적 략탈 정책을 실행한 결과에 오늘 우리 조국 남반부는 파산과 기근과 무직업의 지대로 전변되였다。 이와 같이 미국 사람들이 떠드는 이러한 「경제 원조」가 앞으로 더 계속된다면 우리 조국 남반부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명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 조선 인민들은 조선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그 주구 리승만 매국 역도들의 반역적 죄악을 반대하여 구국 투쟁에 총궐기하고 있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남 북 조선에 조성된 현정치 경제 정세는 전체 조선 인민으로 하여금 날이 갈쑤록 위대한 쏘련이 조선 인민에게 주는 진정한 원조의 심오한 의의를 더욱 더욱 인식하게 하며 오직 쏘련과의 친선의 강화만이 우리 조국의 무한한 번영과 장래 발전을 보강하리라는 것을 더욱 더 인식케 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대외 정책은 전세계 자유 애호 인민들과 평화와 협조의 정신으로 관통되였다。

이 정책은 전세계의 항구한 평화와 민주주의적 원칙과 대소 민족의 동등권과 국제적 협조를 위한 투쟁이며 위대한 쏘련과의 친선 강화를 위한 투쟁이다。 위대한 쏘련과의 친선 강화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대외 정책의 기초로 된다。

미 제국주의자들을 선두로 한 국제 반동 세력과의 투쟁에서 민주주의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조선 인민은 위대한 쏘련의 형제적 성원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 지지와 성원 속에서 자기의 승리에 대한 무한한 력량을 고무 추동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위대한 쏘련을 자기의 가장 믿음성있는 동맹자로、 가장 친근한 벗으로、 또는 우리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는 진정한 원조자로 보고 있다。

쏘련의 외교가들은 쏘 미 영 모쓰크바 三국 외상 회의에서 미 영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조선의 독립과 자

유와 민주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쏘미 공동 위원회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반대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쏘련의 외교가들은 유·엔 총회에서 조선 인민의 권리와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여 투쟁하였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그의 주구「유·엔 조선 위원단」의 창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그를 뽀이꼬트하였다。

위대한 쏘련 정부는 남조선에 리승만 단독 괴뢰 정부가 수립된 후 남북 조선의 총선거를 통하여 우리 조국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선포되고 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우리 공화국을 솔선 승인하고 우리 조국 북 반부에서 자기 군대를 단독적으로 철거함으로써 조선 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였다。

이와 같이 위대한 쏘련 정부는 조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계단의 투쟁에서와 조선 인민에게 주는 사심없는 진정한 원조에서 표현한 온갖 실제적 행동을 통하여 조선 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존중하며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하여 투쟁한다는 것을 조선 인민에게 일층 더 명백히 보이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조선 인민들은 위대한 쏘련과의 영원 불멸의 친선 강화는 조선 인민의 독립의 담보료 되며, 우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무한한 번영과 발전의 담보로 되며, 이 친선의 강화에서 만이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심오하게 각오하고 있다。

조쏘 량국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一주년을 기념하면서 전체 조선 인민들은 량국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극동과 전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량국 간의 친선을 일층 강화할 굳은 결의를 또다시 표명하고 있다。

위대한 쏘련 인민과 해방된 조선 인민과의 간에 해방과 원조에서 맺어진 이 영원 불멸의 친선의 강화는 국제 민주 진영을 일층 강화하게 할 것이며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새 전쟁 방화자들을 반대하는 투쟁 사업에 고귀한 공헌으로 되게 될 것이다。

쏘련과의 우호적 친선 관계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외 정책의 기초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부수상 겸 외무상 박 헌 영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정부와의 사이에 체결된「조 쏘 량국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은 조선 인민들의 통일적 민주 독립 국가 건설 위업에 있어 참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지난 一년 동안 우리 공화국의 국가적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에 있어 이 협정에 의한 쏘련의 우호적 원조가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서 아주 명백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협정은 조 쏘 량국간의 완전히 우호적이며 평등적인 원칙에서 체결되였으며 우리 공화국의 경제적 문화적 및 국가적 발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립장에서 체결되였었다。 이것은 동 협정의 전문을 통하여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동 협정 제一조에는「량 체약국은 협조 동등 및 상호 리익의 기초 위에서 량국 간의 통상 관계를 백방으로 강화 발전시킬 것이」규정되어 있으며, 동 협정 제三조에는「량 체약국은 문화 과학 및 예술 분야에서 량국간에 설정된 관계를 백방으로 발전시킬 것」과 그리고 제四조에는「량 체약국은 전문가의 파견, 기술적 원조, 전람회 조직, 종자 및 식물 표본의 교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산업 및 농업 생산 분야에서 량국 간의 경험 교환을 촉진」시킬 것이 규정되어 있다。

이 협정에 근거하여 조 쏘 량국 간에 一九四九년—一九五○년 간의 상품 류통에 관한 협정과 차관에 관한 협정과 기술 원조에 관한 협정과 및 우리 공화국의 고등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대한 원조의 협정들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들은 그 어느 것이나를 물론하고 위대

한 쏘련의 완전한 우호 평등적 립장에서 섭은 우리 공화국의 경제 및 문화의 급속한 부흥과 발전을 긴심으로 원조하며, 우리 인민들의 통일적 민주 독립 국가 완성을 위하는 투쟁에 있어 튼튼한 담보로 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에는 쏘련의 대소 인민들의 자주권과 자유와 내정 불간섭과 민족적 독립을 지극히 존중하며 세계 평화와 안전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견결하게 투쟁하는 레닌—쓰딸린적 대외 정책의 원칙들이 전면적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영명하신 쓰딸린 대원수의 조선 인민들에 대한 극진하신 배려로써 일관되어 있는 것이다. 또 이 협정은 위대한 쏘련이 우리 민족을 일본 강점자의 식민지적 통치로부터 해방시키고 북반부에서 우리 인민들의 모든 민주 개혁과 민주 건설을 성심 성의로써 원조하고, 조선 인민들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국제 무대에서 모쓰크바 三상 결정의 체결과 그 실천을 위시한 수 많은 투쟁에서 끊임없이 준 진정한 원조를 앞으로 그 어느 때든지 항구 불변하게 계속할 것을 기록한 위대한 력사적 문헌인 것이다.

쓰딸린 대원수께서는 쏘련의 대외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대소 민족간에 동등권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쏘베트 사람들은 그와 같은 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또 있어야 되리라고 인정한다. 각개 민족은 대소를 막론하고 다만 그 민족에게만 속하고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자기의 질적 특점, 자기의 특수성을 가졌다고 쏘베트 사람들은 인정한다. 이 특점들은 각개 민족이 세계 문화의 공동 보고에 이바지하여 그것을 보충하고, 그것을 풍부하게 하는 공헌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모든 민족은 대소를 물론하고 동등한 지위에 처하여 있으며 또 각개 민족은 어떤 다른 민족과든지 동등한 의의를 가진 것이다」

바로 위대한 쓰딸린의 대외 정책의 제 원칙들이 「조쏘 량국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의 매 조항 매글구 마다 구현되어 있는 것이다.

× × ×

그러면 이 협정이 체결된 후 一년을 지내는 동안 우리 공화국의 국내적 대외적 발전은 어떠하며, 이 협정은 우리 공화국의 제 발전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공화국은 과거 一년 동안 조쏘 협정에 의한 쏘련의 경제적 기술적 원조로 말미암아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제一년도인 一九四九년도의 계획을 완수하였었다. 우리 인민들은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초과 완수함으로써 조국 통일과 자주 독립 완성을 위한 민주주의적 기지를 더욱 태산과 반석같이 공고화하기에 성공하였었다. 전체 산업에 있어 그 계획은 一〇二·八%로 실현되었으며, 농업에 있어서는 혹심한 한발에도 불구하고 파종 면적이 계획량의 二%를 초과하였고 북반부의 식량사정을 더욱 유족하게 만들었다. 기타 교통 운수 체신 상업 교육 문화 제 부문에 있어서도 자기 계획을 실현하였었다.

一九四九년도 인민 경제 계획 실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성과들은 결코 용이하게 얻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장구한 일제 통치에 의한 식민지적 타후성과 피행성 및 일본 강도들의 고의적 산업 파괴에서 오는 난관들은 아직도 중중 첩첩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민들은 이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一九四九년도 계획을 실현하였었다. 여기에 우리 인민들의 애국적 로력과 우리 민족의 영웅 김일성 장군을 수반으로한 공화국 정부의 옳바른 시책과 더불어 조쏘 량국 간의 협정에 의한 위대한 쏘련의 막대한 물질적 기술적 및 문화적 방조의 역할이 심중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것은 쏘련으로부터 지난 一년간에 우리 공화국에 수입된 상품 종류에서 명백히 볼수 있는 것이다. 즉 원료에 있어 콕쓰탄, 원유, 석고, 류황, 호르마린 등등과 보수 자료에 있어 금속관, 호—스, 다이야, 압연, 로르, 철도외륜 등등과 각종 기계, 공작 기계, 전설 기계 등과 기타 면포 등 인민 생활 필수품 등이 수입되었었다. 이상의 물자들은 우리 산업, 농업, 교통, 운수 등 전경제 부문의 부흥과 그의 더욱 급진적 발전을 위하여 절대 불가결의 것인 것이다.

다음 쏘베트 선진 기술자들은 기술적 원조에 있어 황해 제철, 성진 제강, 청진 제철 제강, 강선 제강등 제철 부문의 용광로 해탄로 복구 사업과 함께 용광로 시설 리용의 제고로서 막대한 생산 톤 수를 증가시키였으며, 광산 부문의 뽀베지—트벨의 사용으로 광석 채굴의 수준을 三배 이상으로 제고시키기에 성공하였으며, 평양 방직공장, 남포 관초자공장등 각종 대규모의 신설 공장들의 설계 및 건축, 안주 수리 공사등 중요한 기본 건설 공사들의 지도 설계 및 수풍 발전소의 대보수 공사 기타 원조 등등 즉 우리 전 경제 발전에 있어 그 생명을 좌우하는 주요하고 고귀한 기술적 원조

물의 실례는 참으로 매거할 수도 없을 만치 허다하다.

위대한 쏘련의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는 참으로 우리의 인민 경제 계획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천의 하나이며 우리 인민들의 통일 민주 독립 국가 건설 위업에 있어 기본적 물질적 담보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 문화 방면에 있어서의 쏘련의 성의있는 원조는 또한 굉장한 것이다. 공화국의 오늘날 교육 문화의 미증유의 발전이 선진적 쏘련 문화와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의 성의에 끓어 넘치는 원조적 로력이 아주 귀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그 누가 한사람인들 의심하겠는가?

협정 체결 후 一년을 경과하는 동안 우리들은 쏘련의 진정한 국제적 신의와 타국과의 체결한 조약에 대하여 무한히 충실한 것을 다시 한번 깊은 감명과 감탄으로써 체험하고 있다.

조약에 대한 충실과 진정한 국제적 신의는 쏘련의 대외 정책의 중요한 성격의 하나인 것이다.

지난 一년 동안 위대한 쏘련의 원조는 우리 공화국의 국내 건설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도 또한 극진한 것을 우리는 명기하여야 될 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 一년 동안에 국제적으로 그 위신이 더욱 급진적으로 제고되었으며 세계 민주 진영의 대렬 속에서 더욱 그 지위가 튼튼하여졌다.

쏘련 외상 위신스끼씨를 수반으로한 쏘련 대표단의 작년 유·엔 총회에서의 우리 공화국 정부와 조선 인민들의 통일과 독립을 위한 투쟁에 대한 열렬한 지지와 및 리승만 정권의 반역적 매국적 정체의 무자비한 폭로는 우리 공화국의 위신을 전세계 인민들 앞에 일층 제고시키었으며, 우리 공화국 정부가 조선 인민들의 유일 무이한 정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뚜렷하게 하였었다.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는 쏘련의 이와 같은 성의있는 지지 방조와 함께 지난 一년 동안에 중화 인민 공화국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월남 민주주의 공화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체결함으로써 일층 제고되었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쏘련의 진정한 이상과 같은 원조 정책의 강화는 조선 인민들의 통일과 자유와 자주 독립 완성과 및 무궁한 장래 발전에 있어 유일한 담보가 되는 조 쏘 량국 간의 영구 불멸의 친선 관계를 지난 一년 동안 더욱 강화시키었으며 더욱 굳

게 하였었다.

쓰딸린 대원수 탄생 七十주년 경축 대회에 조선 인민 대표단의 영광스러운 참석을 비롯하여 쏘련 평화 옹호 대회, 뿌쉬낀 탄생 一五〇주년 기념, 쏘련 직업 동맹 대회, 쏘련 레닌 공청 대회 등등에 우리 공화국의 로동자, 농민, 문화인, 청년, 녀성 등 각계 각층의 인민 대표들이 초청 참가케 된 것은 량국 간의 친선이 더욱 더욱 굳어지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리고 쏘련으로부터 많은 학자, 과학자, 기술자, 문화인, 예술가들이 우리 공화국을 방문하였으며 조선 인민들의 감사와 열정 속에서 시종 일관 성대하게 진행된 조 쏘 문화 순간의 개최 등은 또한 조 쏘 량국 인민들의 친선 관계가 더욱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평등과 협조와 우호의 원칙 위에서 체결된 조쏘 량국간의 협정은 이상과 같이 우리 공화국의 건설과 발전에 있어 막대한 정치적 및 력사적 의의를 가졌으며 조 쏘 량국 인민 간의 영구 불멸의 친선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전 조선 인민들은 이 협정을 거족적 감격과 환희로써 지지 환영하며, 이 협정을 체결할 때에 있어 무한한 동정과 고귀한 배려를 베풀어 주신 조선 인민의 해방의 은인이시며, 스승이시며, 가장 친근한 벗이신 쓰딸린 대원수에게 이 협정 체결 一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충심에서 끓어 나오는 감사와 영광을 드리어 마지 않는 것이다.

× × ×

그러한 까닭으로 오늘날 리승만 역도들이 미 제국주의자에게 조국의 남반부를 완전히 팔아 먹기 위하여 체결한 모든 망국 조약들 ―「한 미 경제 원조 협정」「재정 및 재산 양도에 관한 한 미 협정」「한 미 상호 방위 협정」「군사 고문단에 대한 한미 협정」「금포 비행장 사용에 관한 한미 협정」 등등을 ― 더욱 격발하는 분노와 증오심과 적개심으로써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리승만 역도들의 이 망국 조약들을 조선 인민들은 그 어느 때든지 인정치 아니하며 반드시 분쇄해 치우고야 말 것이다.

조선 인민들은 해방되던 첫날부터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한 민주 진영에 가담하였으며 쏘련의 끊임없는 원조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이 더욱 튼튼하게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세계 민주 진영 대렬 내에 더욱 확

고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우리 인민들이 쏘련을 선두로한 민주 진영에 튼튼하게 서게된 것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행복이다。

그것은 우리 조국의 통일과 민주 발전과 민족적 독립과 부강한 장래를 약속하며 실현하는 튼튼한 담보로 되는 것이다。

이제 위대한 쏘련을 수위로한 세계 민주 진영의 력량은 더욱 강화되고 미국을 선두로한 제국주의 반동 진영의 세력은 날로 약화되고 있다。

우리 조선 인민의 앞길과 전망은 무한히 크며 광명하다。

만약 우리 인민들이 위대한 쏘련과의 영구 불멸의 친선을 더욱 굳게하고, 쏘련의 모든 원조를 더욱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써 더욱 자기들의 전력량을 기울여 잘 용하며, 잘 배운다면 우리 인민들의 평화적 통일 위업은 신속히 달성될 것이며, 물질 문화 생활은 또한 더욱 급격하게 향상될 것이다。

여기에서 조선 인민의 해방자이며 사심없는 원조자인 위대한 쏘련과 우리 나라와의 영구 불멸한 우호적 친선 관계는 곧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꼬쓰모뽈리찌즘과 그의 앞잡이인 반동 리론가들을 반대하여 무자비하게 투쟁하자

기 석 복

제二차 세계 전쟁의 승리적 결과에 국제 환경에서와 각국 정세에서 기본적 변동이 생기게 되였다。 다시 말하면 정치 세력이 국제 무대에서 새로 배렬되였다。

그리하여 제二차 세계 전쟁에서 위대한 쏘련이 세계사적 승리를 쟁취한 후 세계 무대에는 정반대로 되는 두 방향 즉 「일방으로는 제국주의적 또는 반민주주의적 진영과 타방으로는 반제국주의적 또는 민주주의적 진영으로 뚜렷이 나타났다」(아·스다노브)

그런데 제국주의적 또는 반민주주의적 진영의 기본적 괴수로는 미국이 나섰다。 이 진영에 영국과 불란서는 가담하였다。 이 제국주의적 기본 목적은 제국주의를 공고히 하고 새 침략 전쟁을 준비하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와 투쟁하며 반동적 또는 반민주주의적 친 팟쇼 정체와 그의 운동을 곳곳에서 지지하는 그것이다。

이 목적을 해결함에 있어서 제국주의 진영은 각국의 반동적 및 반민주주의적 세력에 의존하며 이미 낡아빠진 인민의 원수들의 무기고에서 새삼스럽게도 꼬쓰모뽈리찌즘을 끄집어 내어 요란스럽게 떠들어치며 선전하고 있다。

꼬쓰모뽈리찌즘은 제二차 세계 전쟁 후 직접 로골적으로 세계 제패에 대하여 강요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 무기의 하나로 되였다。 영 미 제국주의를 괴수로 한 반동 진영은 반제국주의적 또는 반팟쇼적 진영의 기초인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세력 장성에 무서운 공포를 떠고 있음과 동시에 또 후방으로서 각국의 로동 운동과 민주 운동에, 각국의 형제적 여러 공산당에, 식민지 나라와 예속국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 투사들에, 각국에 있는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의 지지에 의존되고 있는 것을 목격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정부」 또는 「세계 국가」의 창설에 대한 선전으로써 인민의 민족적 독립성을 숙청하는 자기들의 정책을 감추려고 하며 변명하려고 발악하고 있다。

이미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인 꼬쓰모뽈리트들은 「전 인류를 위한 법령」을 창조하려고 사상적 팽창을 로골화하고 있으며 자기의 민족적 문화와 독립을 옹호하려는 인민의 동경은 이미 「낡은 잔재」이며 해독스러운 것이라고 떠들어치고 있다。

영 미 제국주의는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인민들의 자주권의 원쑤로 세계 무대 위에 나섰다。 왜 그러냐 하면 인민들의 민족적 독립과 애국주의는 유로빠에 대한 자기들의 식민지 계획과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국가를 반대하는 새 전쟁 준비에 직접적인 방해물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 영 미 제국주의의 꼬쓰모뽈리트적 출전에서의 그들의 방조자로는 민족적 사주권을 반대하는 우익 사회주의자들이다。

× × ×

그러면 꼬쓰모뽈리찌즘이란 그 내용을 반드시 문자 그대로 해설할 필요가 있다。 「꼬쓰모뽈리트」란 말은 고대 희랍어에서 발생하였다。 이제 이 말을 우리 말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세계 공민」이란 뜻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꼬쓰모쓰」는 세계 혹은 우주를 의미하며 「뽈리떼쓰」는 공민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꼬쓰모뽈리트」는 어떠한 민족에게든지 자기의 소속을 거부하며 자기의 조국을 전세계라고 칭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 명칭 밑에서 제국주의의 수호자인 반동자들은 자기의 추악한 면모를 감추고 있다。

꼬쓰모뽈리트들은 어떠한 일정한 나라를 자기의 조국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전세계를 자기의 조국으로 선포한다。 그렇기 때문에 꼬쓰모뽈리트들은 인민의 애국주의를 반대하여 광분하게 나서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조국과 인민과 자기의 권결을 부인하며 자기 자신이 어떠한 나라에서 살든지 간에 자체의 안일이 보장된다면 그것을 조국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애국자들의 조국은 자기의 인민이 살고 있으며 싸우고 있는 그곳을 조국이라고 명칭한다。

꼬쓰모뽈리트는 조국을 부정하며 자기의 인민과 자기의 권결과 인민들 앞에서의 자기의 책임을 거부한다。

벌써 十九세기에 로씨야의 시인 쉐츄순니꼽는 꼬쓰모뽈리트들을 반대하여 다음과 같은 구절의 시를 썼다。

점잖은 기색을 띠고
누가 자기를 꼬쓰모뽈리트라고 부르는가。 나는 그와
류사한 사람들을 달리 명칭하노니………
네가 꼬쓰모뽈리트냐? 요란한 소리를 그만 두어
라!
나는 항상 증오했고 또 지금도 증오한다。
조국을 모르는 부랑인이여!

또 로씨야의 위대한 혁명적 데모크라트이며 문학 평론가인 브·그·베린쓰끼는 꼬쓰모뽈리트를 「인류 사회에서 공민증이 없는 부랑인」이라고 명칭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아서 꼬쓰모뽈리찌즘이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하여 있었으며 오늘의 미 제국주의가 새로 발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면 꼬쓰모뽈리찌즘은 무엇으로부터 발생하였는가?

꼬쓰모뽈리찌즘은 우리 시대에 있어서 로력과 자기의 인민과 련계를 가지지 않고 자기의 재산과 리익과 탈취와 무역과 시장과의 련계를 가진 그러한 사회층의 이데올로기이다。 그런고로 꼬쓰모뽈리찌즘은 부르죠아의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므로 부자、기생자、착취자들의 조국은 그들이 어데서나 간에 가장 높은 리윤을 탈취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그들의 조국으로 되는 것이다。 꼬쓰모뽈리찌즘은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 자체에서 발생된 것이다。 과학적 공산주의의 위대한 창시자인 맑쓰와 엥겔쓰는 이미 오래 전에 자기들의 어떠한 초기 작품에 꼬쓰모뽈리찌즘의 발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자유로운 경쟁과 세계 무역이 위선적인 부르죠아적 꼬쓰모뽈리찌즘을 낳았다」 이어서 「항상적으로 증가하는 생산품의 판매에 대한 요구는 부르죠아지를 전지구 각지로 내몰아 자본이 조국을 모르는 것과 같이 부르죠아도 조국을 모른다」

그러므로 부르죠아의 이데올로기인 꼬쓰모뽈리찌즘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자본의 본질로 규정한다。 자본은 조국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자본은 어느때든지 리윤을 많이 주는 곳으로 항상 기우러져 나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이 거대한 리윤을 얻기 위하여 지구 뎡어리를 돌아다니면서 어느곳에서든지 리윤을 더 많이 주는 그 곳에 멈춘다。 이와 같은 그들의 리윤에 대한 탐욕은 국경을 알지 못한다。 이에 따라 부르죠아들은 리윤과 탈취를 더 많이 하기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헤아리지 않으며 지어 자기 조국의 리해까지 팔아 버린다。 이것이 곧 자본의 꼬쓰모뽈리트적 본질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발전의 초기에 서구라파에서의 부르죠아 혁명 당시에 부르죠아들은 민족 해방 운동의 선두에 나서서 애국주의의 구호를 외치었다。 쓰딸린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족은 부르죠아 사회의 조건에서 비로소 형성된다。 부르죠아 혁명 시기에 부르죠아들은 이러 애국주의적 경향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부르죠아 제도가 승리한 후에 「부르죠아지의 애국주의는 그의 금융、무역、산업 활동이 꼬쓰모뽈리트적 성격을 띠던 때부터 순전한 허위로 변생하고 말았다」 (맑쓰—엥겔쓰 전집 三권 三五五페지)

실례로 一八七一년 불란서 파리 혁명 때에 불란서 부르죠아들은 파리 프로레타리아트들의 승리에 공포를

느끼고 그들은 로골적으로 파리 꼼무나르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독일과 련결을 맺고 자기 조국의 리해를 변절하였다. 불란서 부르죠아의 허위적 애국주의는 위선적인 가면으로 되었다. 이와 같이 찌예르는 파리를「꼬쓰모뽈리트적 소굴」로 변경시켰다.

또 다른 실례의 하나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하고 있던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의 치욕적인 시기에 소위 조선인 자본가 김연수, 민대식, 박흥식, 김성수 기타 자본가들은 일본 제국주의와 야합하여 자기의 자본의 리윤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는 데 무기와 식량을 일본 군벌에 대어 주고 있었다. 물론 김연수, 민대식, 박흥식, 김성수 등 반역자들은 자기 자본을 살리기 위하여 또 리윤을 더 얻기 위하여 조선 인민의 철천의 원쑤인 일본 제국주의와 야합하여 조선의 민족 해방 운동, 아세아의 제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는 데 자기의 자본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도와주었다. 이들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자본으로 하여금 자기의 민족과 인민을 탄압하며 일본 제국주의에게 자기 민족과 인민을 영원히 팔아먹으려고 하였다면 오늘 제二차 세계 전쟁의 결과에 쏘련의 무력에 의하여 동방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을 당하자 그들은 자기의 다른 옹호자들을 구하였다. 즉 미 제국주의는 조국과 인민을 배반한 조선인 자본가들을 규합하여 가지고 우리 조국의 남반부를 자기들의 군사 기지로, 영원한 상품 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며, 순직한 조선 인민들을 자기들의 값싼 노예로 만들려고 매국노들의 손으로 조선 인민의 애국자들을 총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은 조국도, 자기의 인민도 모르며 전대 미문의 학살을 자기 민족에게 대하여 감행하고 있다.

부르죠아들은 자기의 활동과 적응되는 우주적 상업, 투기업, 기업가들의 꼬쓰모뽈리트적 사상과 심리학을 창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업가들은 다만 형식적으로 자기 나라와 민족과의 자기의 련결을 자인하면서 실제에는 탈취와 리윤에 대한 흥미를 첫 지위에 내세운다. 우리는 이러한 상업가의 형상을「세계의 파멸」이란 작품에서 볼 수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로벨트·베드는 아메리카 사람이다. 그는 무기 공장을 소유한 자이다. 이 무기를 누구를 물론하고 지어 자기 나라의 군사적 원쑤인 그들에게까지 높은 가격을 준다면 팔 수 있었다. 제一차 세계 전쟁 당시에 로벨트·베드는 자기의 아들 라니를 불러 놓고 다음과 같은 발을 하였다.

「너의 친구는 독일「폭결」과 싸우려고 떠났다. 네가 슬퍼하지, 아마 그들이 그를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너희에게 말하기를「폭결」은 가볍고 속도가 빠르므로 아주 위험한 것이다. 그런데 네가 아느냐, 그 것이 그렇게 가볍고 빠른 속도를 가진 것을——

——거기에는 알미늄 부족이 있다고 리크는 말하였다.

——사실 그렇다.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알미늄을 어데서 가져 오느냐?」

소설에서 계속되는 대화에서 알려지는 바와 같이 독일 사람들은 불란서에서 채굴하는 복씨트에서 받고 있다. 로벨트·베드는 침착하게 이에 대하여 말하였다.

「——불란서로부터 복씨트를 스베짜리로 실어 갔다. 거기에는 산곡이 풍부하므로 전기 에네르기가 아주 값이 싸다. 거기에서 알미늄을 만든다. 그러면 그 것이 어데로 갈 것인가를 알아 마치어라.

독일로?

가장 고등한 값을 주는 그런 나라로 가져간다. 그 중에는 독일도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만일 너의 친구가 가장 현대적인 비행기의 폭격을 당할 수도 있다. 네가 어째서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아니 로비——부르는 라니의 목소리는——격동으로부터 쟁쟁하였다. 이것을 중지시키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무엇이든지 하여야 하겠다.

——누가 그런 일을 한다더냐?

——그것은 변절이지요

——그것은 비지네쓰이다」

자본가들은 이 비지네쓰란 말로써 모든 것을 결론하여 버린다. 만일에 비지네쓰가 그에게 더 유리하다면 그는 조국의 리해를 배반하고 나선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죠아들에게는 조국의 리해란 빈 말공부이다. 그리하여 부르죠아들은 개재의 모리를 위하여 국경을 헤아리지 않는 자기들의 매국적 행위를 자기의 꼬쓰모뽈리찌즘에 대한 요란스러운 어휘로 은폐하려고 한다. 그렇다 하여 꼬쓰모뽈리찌즘이 마치 민족적 국한성과 민족주의를 배격하는 것같이 생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꼬쓰모뽈리찌즘은「국제성」과「인터나쇼날」의 탈을, 쓴 지독한 부르죠아 민족주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레타리아트의 인터나쇼날리즘은 꼬쓰모뽈리찌즘과의 상용될 수 없는 적대적 이데올로기이며 이 두 사상 간의 맹렬한 투쟁 속에서 력사의 필연적 발전 결과에 자본의 멸망과 함께 꼬쓰모뽈리찌즘도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꼬쓰모뽈리찌즘을 반대하는 사상적 투쟁을 전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더우기 제국주의의 반동 사상인 꼬쓰모뽈리찌즘을 반대하여 전인민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적 또는 반식민지적 착취를 변명하기 위하여 국경의 소멸과「민족들의 단결」에 대한 각종 리론을 내걸고 있다. 또 제국주의자들은「전인류의 문화와 개화」를 위하여「식민지 국가들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인민의 복리를 위하여」란 간판 밑에서 자기들의

심혹한 착취와 또는 번번히 식민지 거주민들을 학살하는 것을 변명한다。

이러한 각종 파쑈모뽈리트직 선전은 식민지로의 자본의 수출과, 식민지로부터의 원료의 수입과, 침략적 탈과, 탈취 등을 변명함에 리용되고 있다。 파쑈모뽈리찌즘의 선전은 피압박 인민의 자이 의식을 청산할 것을 호소하거나 그의 발생을 방해하고 있다。 또 그는 「개화」를 위하여 식민지가 녕주국에 복종되어야 할 것을 변명하고 있다면 배타주의는 제국주의 국가 내부에서의 계급적 모순을 은폐할 것을 호소하며 다른 민족에게 대한 증오감을 분발시키며 자기의 부르죠아들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이 증오감으로써 투쟁하는 계급을 단결시키려는 썩은 리론들을 끄집어 내고 있다。

침략적 부르죠아들은 타인민을 탄압하며 노예화하기 위하여, 또 자기의 경쟁자들을 청산하기 위하여, 자기의 리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민 대중 속에서 민족주의와 배타주의를 요란스럽게 선전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르죠아의 배타주의는 민족적 간판 밑에서 타인민을 증오하며 부르죠아를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국제적 협조를 반대하는 수단이며 또 다른 나라들의 생산자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수단이고 계급 투쟁을 마비시키는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은 문렴치하게 인민들을 부르죠아 배타주의 사상으로 교양시키고 있다。 부르죠아들은 자기의 침략과 자본의 리윤을 달성할 목적으로 지구의 재분할을 망상하며 침략적 신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타인민에게 대한 증오감과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팟쇼적 인간 증오십을 선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부르죠아 민족주의와 배타주의는 부르죠아지의 인민 증오에 대한 사상이며 그들은 사회 배타주의자들의 원조에 의하여 략탈 전쟁을 도발함에 리용하고 있다。 부르죠아의 이데올로기들은 자본주의의 발균형적 발전의 법칙에 의하여 여러 나라 독점 자본가들의 사이에서의 첨예화되어가는 모순을 인민 간의 모순으로 변명하려고 여러 가지의 허위를 날조해 내고 있다。 이렇게 부르죠아들은 민족주의와 배타주의를 자기의 사상의 기본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부르죠아들이 자기의 목적에 파쑈모뽈리찌즘을 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파쑈모뽈리찌즘을 부르죠아들은 전세계 로동자들의 국제적 협조를 반대하여 또 자기들의 침략적 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서 항상 리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민족주의와 배타주의와 파쑈모뽈리찌즘 간의 차이는 한 혼패의 안과 겉과의 차이 뿐일 것이다。

× × ×

부르죠아의 앞잡이인 기회주의자들과 사회 배타주의자들은 부르죠아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一차 세계 전쟁 기간에 「유로빠 합중국」 또는 「중앙 유로빠」 등의 구호를 들고 나오는 밑에서 파쑈모뽈리찌즘을 선전하였다。

제一차 세계 전쟁의 진행중인 一九一五년에 독일 제국주의의 사환군의 하나인 나우만은 「중앙 유로빠」라는 책을 써 내였다。 그는 이 책에 독일 제국주의의 지도 밑에서 제 유로빠국으로 하여금 「초국가 조직체」를 창건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것은 물론 독일 제국주의자의 침략적 강령의 표현인 것이다。

一九一七년에 압스트리야 가짜 맑쓰주의자 까르·렌네르는 「맑쓰주의, 전쟁과 인터나쇼날」이란 책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책에 로골적으로 력사적 「필연」에 대한 것과 같이 독일의 세계적 패권의 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썼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벌써 제一차 세계 전쟁 당시에 독일 사회 배타주의자들은 독일 제국주의의 략탈 정책에 대한 강령과 그들의 세계적 패권에 대한 동경을 변명하기 위하여 파쑈모뽈리찌즘의 구호를 내 걸었다。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독일 침략 전쟁에서 독일 부르죠아들의 추악한 도살적 침략을 변명하기 위하여 이 파쑈모뽈리트적 구호에 「사회주의적」 색채를 씌우려고 노력하였다。

一九一五년에 맑쓰주의의 변절자이며 기회주의자인 카우츠끼는 「중앙 유로빠」 창건에 대한 구호를 지지하는 반동적 리론을 꾸미어 내고 있었다。 그리하여 전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평화적 단결」의 조성을 위한 기초로 되며 전제 조건으로 되게 하려는 서구라파 자본주의 국가들의 「평화적 단결」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력설하였다。 이와 같이 카우츠끼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평화적 단결」에 대한 가능성을 「주명」하면서 독일 제국주의의 침략적 계획을 변명하였다。 추악한 변절자인 뜨로쯔끼도 「유로빠 합중국」이란 구호를 들고 나섰다。 또 찐뜨리쓰트(중앙파)도 「중앙 유로빠」의 리론을 앵무새처럼 받아 외우면서 「유로빠 합중국」 창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섰다。

그러나 울라지미르·일리츠·레닌은 「유로빠 합중국의 구호에 대하여」란 자기의 저명한 론문에 자본주의적 기초 위에서 유로빠의 단결에 대한 사상을 심각히 분석하였고 이 구호의 반동적 내용을 폭로하였다。 레닌 선생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에 있어서 자본주의 발전은 단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죠아 국가들 간의 시장, 원료, 상품 판매에 대한 우세권, 자본의 세력 확장을 위한 그들 간의 투쟁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자본가들과 그의 렬강국들 간의 림시적 협약은 가능할 수 있다。 그것은 다만 그들의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또 자기들이 략탈한 식민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림시적으로 공동적 협약을 형성할 수 있다。

「레닌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단결과 균형적 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카우츠끼, 뜨로쯔끼 및 기타 부르죠아 리론가들의 리론을 폭로하면서 만일 자본주의에 있어서 「유로빠 합중국」이 가능하다면 비록 그것은 반동 부르죠아 국가들이 첫째로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을 반대하며, 사회주의를 진압하기 위하여, 둘째로 식민지 분할에 대한 림시적 협약을 목적한 것이다」(철학 제문제 六권 二八九페지)

사회 민주주의 변절자들은 로동 계급 속에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모순의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에 대한 망상을 선전하고 있었다. 그것은 로동자들이「자기 부르죠아의 리해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리도록 하려고 함에 있었던 것이다.

제一차 세계 전쟁 환경에 있어서 「유로빠 합중국」에 대한 끄쓰모뽈리트적 선전은 기회주의자들과 사회 배타주의자들의 수중에 있어서 대중을 기만하는 수단으로 되었다.

카우츠끼와 뜨로쯔끼의 후손인 현대 우익 사회주의자들의 끄쓰모뽈리트들은 영 미 제국주의의 약탈한 침략주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하여 또 세계 제패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강요를 지지하기 위하여 「유로빠 합중국」에 대한 구호와 카우츠끼의 「초제국주의」리론을 광범히 선전하고 있다. 카우츠끼의「초제국주의」는 제 민족 트레쓰트의 단결을 경유하여 유일한 세계적 트레쓰트를 형성하여 자본의 국제화와 세계의 공동적 착취를 위하여 제반 자본주의 국가들의 평화적 동맹의 창전을 호소하였다. 카우츠끼는 「금융 자본의 국제적 단결」이 전쟁과 군비 확장 정책과 경쟁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력설하면서 제一차 세계 전쟁의 결과 제국주의적 경쟁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평화적 협약으로 교대되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카우츠끼가 이같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평화적 단결과 자본주의의 균형적 발전에 대하여 증명하려고 하였으나 물론 증명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인류 력사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불균형적 발전과 제국주의 렬강국 간의 장구한 평화적 단결은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놓았다. 그와 같이 제국주의의 본질, 제국주의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불균형적 발전 법칙은 공황과 전쟁을 불가피적으로 산출한다.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동맹은 다만 림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카우츠끼의 「초제국주의」의 반동적 사상의 목적은 로동자들 속에서 제국주의의 계단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발전의 평화적 가능성에 대한 망상을 전파함으로써 자본주의 소멸을 위한 혁명적 투쟁으로부터 로동 계급을 분리시키려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초제국주의」의 반동적 리론은 사회 배타주의자들의 반동 정책과 전쟁을 지지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대중 앞에서

변명하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력사적 환경,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첨예화하는 환경, 즉 제二차 세계 전쟁 후에 우익 사회주의자들이 세계 제패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야망을 변명하며 지지하기 위하여 카우츠끼의 「초제국주의」의 론조를 끄집어 잡고 헐떡이는 것이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카우츠끼의 「초제국주의」의 반동적 사상은 오늘에 있어서 새로운 미국식화한 복장을 입고 부르죠아 끄쓰모뽈리찌즘에게 복무하고 있다.

독일 파찌쓰트들은 볼쉐위즘을 반대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유일 전선 창전에 대한 각종 구호 밑에서 세계의 재분할과 세계 제패에 대한 자기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전쟁을 준비하였다. 그 결과에 독일 이태리 및 일본은 제二차 세계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파찌쓰트적 동맹을 체결하고 「반공 협정」을 체결하였던 것이었다. 물론 이 협정은 세계에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혁명적 프로레타리아를 반대한 제국주의 렬강국들의 동맹인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어떠한 반동적 동맹이든지 림시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폭로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동적 동맹은 장구한 시기를 경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의의 세력 앞에서 력사적 필연의 결과로 분쇄되고야 만다. 물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일 파찌즘이 쏘련을 반대하여 일으킨 제二차 세계 전쟁에서 히틀러가 조작한 위에 말한 「반공 협정」을 체결한 파씨쓰트 국가들의 동맹은 분쇄되고야 말았다.

레이버리스트의 반동적 사상가의 한사람이며 카우츠끼의 후손의 한사람인 달똔은 一九三五년에 「부리딴을 위한 실무적 사회주의」란 책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반동적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우리는 반드시 민족적 자주권으로부터 물러서야 하며」「세계 정부로 행하는」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달똔은 카우츠끼의 「초제국주의」리론을 문자 그대로 반복하면서 「평화 보장」의 수단으로 「세계 정부」의 창전을 떠들어치었다. 물론 달똔은 엄청스럽게도 시기에 맞추려고 하면서 「세계 정부」의 제국주의적 내용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초제국주의」란 말을 감추어 버렸다. 여기로부터 一九三三년에 가스쩬그스에서 열린 레이버리스트의 대표회의에서 「국제 경찰 무력」을 창전하려던 호소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세계 헌병의 탈을 쓰고 순종하지 않는 인민들을 탄압하는 토벌대의 지휘관으로서 자기들이 나서려고 하였던 것이었다. 이러한 레이버리스트들의 선전은 쏘베트 동맹을 반대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력량을 집결하려는 목적을 가졌던 것이며 민족적 자주권을 말살하여 버리려는 그에 있었던 것이였다.

一九三〇년대에 [illegible]이버리스트들이 「세계 정부」의 구호를 들고 나선 것과 같이 불란서 제국주의자들도 「유로빠 련맹」이란 구호를 들고 나섰다. 물론 이 「련맹」도 자기의 지도로 하여금 유로빠의 반동을 집결하여 반쏘적 진군을 예상하였던 것이다. 불란서에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벌써 제二차 세계 전쟁 전야 一九四一년에 사회 변절자인 로숙한 괴수인 레온·불룸은 민족적 자주권을 탄압할 목적으로 「최고 국가」 창전에 대한 제의를 들고 나섰다. 이와 같은 불룸의 선전은 민족적 자주권의 숙청과 동시에 불란서 독점자본이 실천하고 있던 민족적 반역 정책을 변명하고 있었다. 불룸과 그의 졸도들은 민족적 자주권의 소멸에 대한 선전으로 추직하게 「이백 가족」과 독일 파씨쓰트에 복무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란서 「사회주의자」들은 뻬젠 정부를 교대하여 히틀러와 교섭을 하고 있던 딸라지예를 수위로 한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제二차 세계 전쟁 당시에 히틀러는 화려한 별당에 감추어 두고 그를 양육시킨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제二차 세계 전쟁 후에도 레온·불룸은 꼬쓰모뽈리찌즘의 제국주의적 사상을 계속 선전하고 있다. 벌써 그는 「一九四八년 五월에 「우선적으로 어떠한 값으로든지 민족적 자주권의 예전 전통적 도구마」를 분쇄함에 자기의 졸도를 호소하였다」 (잡지 「별」 九호 一五二페지)

제二차 세계 전쟁 시기와 그의 말기에 있어서 서구라파에서 우익 사회주의자들이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과 민족 해방 운동을 반대하여 여러가지의 꼬쓰모뽈리트적 구호를 들고 인민을 기만하였으며 영원히 기만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제二차 세계 전쟁이 쏘련의 위대한 무력에 의하여 민주와 사회주의편에 유리하게 승리적으로 종결되었고 팟쇼의 기반에서 인류와 그들의 문화를 구출한 후 오늘에 와서도 독점 자본가들의 꼬쓰모뽈리트적 반동 사상을 계속 선전하면서 미국 독점 자본가들의 세계 제패에 대한 침략 정책을 변명하려고 그 반동 구호들을 그대로 들고 나섰다.

동양에 있어서 일본 제국주의는 오래 전부터 세계의 제패를 꿈꾸고 있었다. 그리하여 우선 그들은 동양에 있어서 일본 민족이 가장 우월한 민족이며 아세아에 있어서 반드시 지도권을 가져야 할 민족이라고 선전하였다. 이 일본 제국주의의 반동적 사상을 대중 속에서 일본 우익 사회주의자들은 광범히 떠들어쳤던 것이다. 이 우익 사회주의자들은 일본 독점 자본가들의 동양 일대에 대한 침략적 제패를 은폐하기 위하여 식민지 국가들에서의 민족 해방 투쟁과 자기 국내에서 장성하는 혁명적 로동 운동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벌써 一九三〇년대 일본 제국주의가 만주를 침략하던 때에 「팔굉 일우」란 구호를 외치었다. 물론 이미 세계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팔굉 일우」는 일본 독점 자본가들과 군벌들의 반동적 사상의 표현인 것이다.

무슨 필요에 일본 제국주의가 만주를 침략할 때에 이러한 구호를 광범히 내걸었던가, 그것은 타민족을 정복하려는 자기들의 침략 전쟁을 용이하게 끝마추기 위하여 저들을 반대하여 일어나는 조선 인민과 중국 인민들의 민족적 자아 의식과 민족적 해방 투쟁을 말살시키려는 기도 밑에서 꼬쓰모뽈리트적 구호 「팔굉 일우」를 내걸었던 것이었다. 제二차 세계 전쟁 행정에 있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그 반동 구호 「팔굉 일우」를 더욱 로골화하여 「대동아 공영권」이란 간판 밑에서 인민들을 기만하려고 기도하였던 것이었다.

물론 력사의 발전으로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 세계 제패를 위하여 조작하여낸 꼬쓰모뽈리트적 반동 구호, 즉 「팔굉 일우」나 「대동아 공영권」이나 할것 없이 반동적 사상으로 제인민의 민족적 자주권과 독립을 반대하는 사상으로 폭로되였던 것이었다.

× × ×

이제로부터 二十三년전 一九二七년 九월에 쓰딸린은 최초의 미국 로동자 사절단과의 회견담 중에서 현시대의 발전의 법칙들을 심각하게 분석하여 놓았다. 즉 「국제 혁명과 국제 반동 간의 앞으로의 발전 행정에 있어서 세계적 범위의 두 중심 즉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나라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 당기는 사회주의적 중심, 또 자본주의적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나라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당기는 자본주의적 중심이 형성될 것이다. 이들·두 진영 간의 투쟁은 전세계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쓰딸린 전집」 十권 一三五페지) 사실 그렇다. 세계 무대에는 두 진영, 세계 범위의 두 중심이 형성되었다.

쏘·쎄·쎄·르는 사회주의의 중심처로 되었다. 그는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인민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위하여 착취의 각종 형식을 반대하여 제국주의적 노예화를 반대하여 싸우는 민주와 사회주의의 력량이 계속 장성하는 선두에 서서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은 세계의 반동과 침략의 중심지로 자본의 중심지로 되었다. 미국은 자기의 동반자인 영국과 함께 제국주의 반민주주의적 진영의 선두에 나서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세계 제패에 대한 계획을 실천할 목적으로 새 전쟁 도발에 대한 준비에 광분하고 있으며 「원조」라는 간판 밑에서 타민족에게 노예적 불공평한 경제적 조약들을 강요하고 있으며 희랍, 서부 독일, 남조선, 유고슬라비야 및 기타 나라들에서의 반동적 정체를 지지하고 있다.

제二차 세계 전쟁 후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내부 모순들이 극단적으로 심각하여졌으며 첨예화하여졌

다。특히 미국의「원조」「마샬안」에 의한 이태리 불란서 등 기타 나라들에서의 모순은 더 말할 수 없이 예리하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들에서의 부르죠아들은 자기의 정권과 민주와 사회주의를 위한 일취월장하는 프로레타리아트들의 혁명적 적극성에 겁을 먹고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장성하는 로동 계급의 혁명 운동을 진압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반동 력량의 원조를 애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와 반동 진영은 약화되고 있다。 그 반면에 사회주의와 민주 진영의 력량은 위력한 일대 력량으로 장성 강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미 독점 자본가들은 날이 가고 세월이 갈쑤록 민주와 사회주의 진영의 력량이 강화되는 것을 인식하며 직관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자본과 반동의 진영의 력량은 세월이 흐를쑤록 감소되며 약화되는 것을 절실히 감각하고 있다。 그 결과에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하루라도 속히 민주와 사회주의의 진영이 더 강화되기 전에 그를 탄압하고 자기들의 세계 제패에 대한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三차 세계 전쟁 도발과 그의 실천을 위하여 각종 프쓰모뽈리트적 선전을 강행하고 있다。

이같이 독점 자본가들의 사상적 표현인 프쓰모뽈리찌즘을 선전하고 새 전쟁 도발에 광분하고 있다 할찌라도 쏘련을 위시한 세계의 민주 진영은 조금이라도 새 전쟁에 대하여 두려워 하지 않는다。 그것은 력사적 경험이 잘 증명하여 주는 까닭이다。「그는 제국주의자들이 야기한 제一차 세계 대전이 우리 국내에서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의 승리를 가져온 데 대하여 말하고 있다。 력사적 경험은 또한 제국주의자들이 야기한 제二차 세계 대전이 중앙 구라파와 동남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에서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케 하였고, 위대한 중국 인민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였다고 말하는 것이다。만일에 제국주의자들이 제三차 세계 대전을 야기한다면 그 전쟁은 어떤 개별적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무덤이 될 것이 아니라 전체 세계적 자본주의에 대한 무덤이 되리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말렌꼬브) 물론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멸망의 과국에 렵각하였다。 이 반면에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력량은 강화되며 발전한다。 이 진영은 전쟁 도발자들과 제민족의 자주권과 독립을 말살시키려는 프쓰모뽈리찌즘을 반대하여 제인민의 자유와 독립과 행복을 위하여 평화를 위한 투쟁의 유일 전선을 결성하였다。 이 전쟁 도발자들을 반대하는 평화를 위한 유일 전선은 인류의 력사에서 오늘 처럼 강세하고 위대한 적은 없었다。 이 위대하고 강세한 평화의 력량은 미 제국주의 독점 자본가들에게 과국을 가져올 것이다。「진정한 평화는 미 독점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과국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것은 과국이 그들에게 있어 막대한 군비 주문을 상실케 할 수 있는 까닭이라는데 대하여 미 독점가들이 말한 많은 실례를 들 수 있는바「군비 확장에 대한 강령은 경제를 인공적으로 보지할 수 있는 중요한 새로운 수단이다」라고 미국 잡지「유나이테드 쓰테이트 뉴쓰 앤드 우오레드 리뽀르트」는 一九四九년 四월에「실무가들층」의 견해를 표명하면서 공개적으로 론술하였던 것이다」(뽀쓰뻴로브의 보고에서)

사회 발전의 변증법은 제국주의 진영의 약화와 그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의 투쟁이 강화하는 것과 병행된다는 것을 보이어 주고 있다。 계급 투쟁의 법칙에 대한 레닌의 저명한 명제들은 원쑤들이 패배를 당할쑤록 그는 더욱 포악하여지며 또 자기의 다지막 숨길에 있어서 가장 극단적인 투쟁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정연 무결하게 확증하여 주고 있다。「죽어 가는 계급이 자원적으로 무대에서 물러 나간 그러한 경우는 아직도 력사에 있은 적이 없다。 죽어 가는 부르죠아지가 자체의 생존을 고수하기 위하여 자체의 모든 나머지 힘을 다 써보지 않은 그러한 경우는 아직도 력사에 있은 적이 없다」(쓰딸린)

이 관결적 투쟁에서 자본주의 독점에 의존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선포한 반민주주의 반사회주의 출전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여 볼까하여 자국 내의 근로자의 리익과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의 정치 생활을 팟쑈화하며 가장 야수적인 인간 증오 즉 아라씨즘을 전파하고 있다。 미국 독점가들은「대외의 모리주의를 대치한 여러가지 가능한 저항을 국내에서 질식하고 정치상으로 타락하고 미개한 보통 미국인 군중을 배외주의와 군국주의의 독약으로 마취시키며 영화, 라디오、교회 및 출판물을 통한 각종 반쏘베트적、반공산주의적 선전 수단으로써 미국 속인(俗人)을「머저리」로 만들려고 적절히 홍미를 붙였다。 미국 반동 세력에 의하여 령감(靈感) 되고 수행되는 예쓰빤씨야적 대외 정책은 아래와 같은 방향을 통하여 동시적 적극 행동을 들어내고 있다。 즉 一、군사 전략책 二、경제적 예쓰빤씨야 및 三、사상적 투쟁」(아·스다노브)

아·스다노브가 규정한 바와 같이 미 독점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세계적 지배권과 반민주주의 방침에 대한 반동적 사상을 순직한 인민 대중 속에서 부식하기 위하여 가혹한 사상적 투쟁을 감행하고 있다。「미국 전략 계획의 사상적 령역의 기본 과업은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침략에 대한 거짓 훼방을 펴놓으면서 사회계의 여론을 협박하며 또 이리함으로써 앙글로·싹쏜 련합을 방수국으로 내놓아서 저들에게서 새 전쟁 준비에 대한 책임을 벗기려는 것이다」(스다노브)

미 제국주의자들이 사상 전선에서의 투쟁은 이러한 반동적 의도 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三척 동자라도 잘 알고 있다。

이데올로기 전선에 있어서의 투쟁은 장성하고 강화

하여 가는 민주와 사회주의의 력량을 반대하는 낡은 세계의 가장 중요한 투쟁 형식의 하나이다。

공산주의 사회를 창건하는 쏘베트 인민의 위대한 창조적 활동,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위한 제인민 민주주의 국가의 근로자들의 투쟁,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의 우리 조국의 남반부에 대한 식민지 정책과 그의 졸도 매국노 리승만을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애국적 투쟁, 자본주의 세계의 로동 계급과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은 맑쓰—레닌주의의 무적의 력량으로 고무되고 있다。 그러므로 위력한 민주주의 진영의 이 이데올로기야는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이며 제인민의 친선과 민족과 종족들의 동등한 원칙에 기초하였으며 자본주의의 압박과 노예의 각종 마술을 증오하는 사상이다。 이 위력한 사상을 반대하여 제인민의 노예화와 착취, 인간 증오를 선전하는 라찌즘, 꼬쓰모뽈리찌즘 및 류혈적 전쟁과 강탈을 대표한 제국주의의 야수적 이데올로기가 발악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의 지배층들은 썩어져 가는 자본주의의 구제책으로 맑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반대하는 각종 수단과 력량을 동원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는 위선적으로 꼬쓰모뽈리찌즘의 독소와 부르죠아 민족주의 또 돈주머니에 매수된 각종 황색 출판물, 부패하고 퇴폐적인 부르죠아 예술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 동원하는 목적은 근로자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며 그들을 해방 투쟁의 당면 문제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자본의 온순한 노예로 변경시키려는 것이며 또 그들을 미 제국주의의 침략가들의 침략적 계획의 육탄으로, 맹목적 무기로 변경시키려는 그에 있다。

그러나 착취자들의 패권 시기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위대한 맑쓰—레닌의 사상, 민주와 사회주의의 사상은 전세계 진보적 인류의 령도적 사상으로 되고 있다。 낡은 세계의 어떠한 력량으로든지 인류 력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지 못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멸망할 것이다。 자기의 멸망에서 그는 아직도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비상한 고통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를 파괴로부터 어떠한 력량이든지 붙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레닌 전집 二七권 一四一페지)

레닌 선생이 예견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독점 자본가들은 지금 멸망에 처하여 있다。 그러나 독점 자본가들은 세계 제패에 대한 자기들의 략탈 계획을 은폐하려고 각종 각색의 선전 수단을 리용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 있어서 오늘 독점 자본가들는 이미 낡아 빠진 사상적 무기고에서 꼬쓰모뽈리찌즘을 다시 끄집어 내었다。 그것은 전쟁과 침략에 대한 자기들의 선전이 인민 대중 속으로 용이하게 침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얼마 전에 있은 전쟁의 참상이 인민의 머리 속에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또 광범한 근로 대중의 정치적 자각성이 거대하게 장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독점 자본가들은 제一차 세계 전쟁 당시에 뜨로쯔끼주의자, 카우츠끼 및 기회주의자들이 제국주의 부르죠아들의 침략적 사상을 표현한 꼬쓰모뽈리트적 사상, 즉 「유로빠 합중국」 구호를 새삼스럽게 다시 들고 일어났다。 그 것은 「국제적 련합」 이란 간판 밑에서 인민을 기만할 목적이다。

그러면 제一차 세계 전쟁 시기에 우익 사회주의자들이 부르죠아지의 사상을 위하여 꼬쓰모뽈리찌즘의 사상을 선전한 것과 지금 그들이 선전하고 있는 그 사이에 차이가 물론 있는 것이다。 이 차이는 국제 환경의 기본적 변경, 각국 자본주의 나라들의 내부에서와 세계 무대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 간의 력량 비중으로써 규정한다。

一九一四——一八년 당시에 카우츠끼파들과 또로쯔끼주의자들이 「유로빠 합중국」 이란 구호 밑에서 부르죠아의 제국주의 전쟁을 선전하였다면 오늘에 있어서 그것은 전체 부르죠아 반동의 중요한 구호로 되었다。「유로빠 합중국」의 자본주의적 사상의 구호를 벌써 一九一七년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 전에 로씨야에 있어서 내 세웠던 것이며 또 제국주의의 두 진영이 가혹한 투쟁적 환경에서 내 세웠다。 그는 유로빠에서의 혁명적 폭발을 진압할 목적과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을 말대하여 자본가들의 력량을 집결시킬 목적으로 그 구호를 내 세웠던 것이다。 지금 「유로빠 합중국」에 대한 구호는 이미 세계가 두개의 체계, 두개의 진영으로 분렬된 환경,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가장 첨예화된 환경, 어느때보다도 민주와 평화의 진영의 력량이 가장 공고하게 장성되었고 이 력량이 제국주의와 반동의 력량보다 가장 우세한 환경에서 다시 나왔다。

제一차 세계 전쟁 당시에 부르죠아들은 식민지 국가들에 대하여 만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일부 자본주의 국가들은 식민지에서의 일어나는 민족적 해방 투쟁을 독자적으로 처리하기가 곤난하였기 때문에 그 해방 투쟁의 탄압과 식민지에 대한 공동적 착취를 위하여 「유로빠 합중국」 구호를 들고 나섰다。 지금 「유로빠 합중국」 구호를 우익 사회주의자들이 민족 해방 운동이 세계적 범위로 확장되는 환경, 즉 마레이, 월남, 인도네시아, 남조선, 비률빈, 희랍 등 기타 나라들에서 맹렬히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四억 七천 五백만 인구를 가진 중국 인민들의 세계사적 승리를 쟁취한 환경에서 제국주의와 반동을 옹호하려고 나섰다。

제一차 세계 전쟁 당시에 「유로빠 합중국」에 대한 구호는 다만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 운동과 식민지와 예속 국가들에서의 해방 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당시 유로빠 자본주의 보다 급속히 발전하는

미국 및 일본 자본주의를 반대하여 유로빠 제국주의자들의 단결을 기도하였던 것이다.

지금에 있어서 「유로빠 합중국」의 구호는 그와 반대로 미 제국주의가 유로빠를 강탈하며 유로빠를 자기의 식민지로 변경시키려는 미 제국주의의 침략의 표현인 것이다. 또 그 외에 미 제국주의의 령도 밑에 구라파의 반동적 력량을 집결시켜 사회주의의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국가를 반대하려는 것이다.

제一차 세계 전쟁 당시에 기회주의자들는 「유로빠 합중국」 구호를 들고 제국주의 전쟁에서 자기 부르죠아들의 리익을 옹호하였다. 지금 우익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와 민주 진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전세계 독점적 부르죠아들의 리익과 제국주의의 진영의 직접적 로골적 옹호자로 나서고 있다. 그들의 제국주의적 꼬쓰모뽈리찌즘은 가장 추악한 사상적 무기로 되었다.

「유로빠 합중국」 구호를 지금 트루맨, 처칠, 블룸, 베빈, 멘비로들이 선선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국제적 협력」 이란 간판 밑에서 미 영 제국주의의 팽창 정책을 숨기려함이였다. 그들은 꼬쓰모뽈리찌즘을 「국제 협력」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것은 꼬쓰모뽈리찌즘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침략적 팽창 정책을 은페하려고 「국제 협력」으로 변명하기에 리용하고 있다. 이렇게 꼬쓰모뽈리찌즘을 그들은 국제주의로 설[illegible]하려고 시도한다.

그리하여」 꼬쓰모뽈리찌즘의 간판 밑에서 「국경 소멸」, 「전세계적 민족 련합」, 「세계 정부 수립」, 「초민족적 국가」 등 창전을 운운하고 있다. 이 침략적 반동의 사상인 꼬쓰모뽈리찌즘은 민족의 국가적 자주권에 대한 사상을 말살시키고 대중의 애국적 감정을 질식시키며 또 침략자들을 반대함에 대한 인민들의 의지를 진압하는 반동적 사상이다.

「미국에서 출판된 「살겠느냐 자살하겠느냐?」란 론문의 작가의 한사람인 라이몬드·포쓰찍크는 지금에 있어서 애국주의가 마치 「와해적 력량으로 되었다」고 성명하였다. 물론 인민 대중의 애국주의는 영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정책에 있어서 와해적 력량으로 되었다. 이 력량은 침략자들의 계획을 파괴하고 있다.

또 一九四八년에 영국 부르죠아 법률가 데스·브라이·렐리는 「리론과 실천에 있어서 국가와 법률」이란 자기의 책에 국가적 자주권은 「시대적 착오」이며 「세계적 공통성」의 달성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노르빈 기타 미국 경제 학자들은 이 허위적 성명과 결부하여 민족적 자주권은 「세계적 계획성」과 「세계적 경제의 창전」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애국주의적 사상과 제민족의 민족적 자주권과 자유 원칙을 반대하여 영 미 제국주의의 부르죠아와 그의 공모자들은 꼬쓰모뽈리찌즘을 자기의 사상적 무기로 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영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이데올로기는 근로 대중에게 효력과 영향을 줄 수 없는 무능력한 사상이라는 것을 많은 부르죠아 정론자들 까지도 자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콜롬비아 종합 대학 「로씨야학」 부장 제로이드·로빈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의 중요 약점은 지금 경제나 군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계에 있으며, 상품 생산이나 대포 생산 분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 분야에 있다. 우리의 이 중요 약점은 외국에 까지 있다. 그것은 이러한 우리의 약점이 자국 내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상계를 확장 확고히 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 인민들에게 미국의 퇴페적 문화를 출판물, 라디오, 영화 등을 통하여 선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의 마샬안에 예속된 불란서 기타 나라 들에는 민족적 자주권을 거부하는 데로 구라파 사람들을 호소하는 미국 독점 자본가들의 꼬쓰모뽈리트적 출판물들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다.

미국 딸라에 매수된 불란서 작가들은 이 꼬쓰모뽈리트적 호소에 의하여, 민족과 조국을 배반하는 비명을 올리고 있다. 「애국주의를 뿌려치워라, 민족적 자주권을 타도하라, 미국 사람들에게로 일하러 가자」 이와 같은 구호 밑에서 꼬쓰모뽈리찌즘은 불란서를 영원히 미국에 예속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 불란서 문학가의 한사람인 쌀트라는 一九四八년 五월에 「구라파 문화를 통하여 불란서 문화의 옹호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대중 강연을 하였다. 그런데 이 강연은 불란서 문화의 옹호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불란서 문화의 매장에 대하여서 말하였다. 쌀트라는 한시간 동안이나 자기의 청강자들의 앞에서 군사 위력에 의존한 강한 나라만이 자기의 문화의 보존과 보급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리론」을 력설하였다. 이 말에 의하면 과거에는 꽛쇼 독일이었으며 오늘에 있어서는 그를 미국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 그는 이어서 「우리의 사상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반드시 재시설과 공업화를 실천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미국 이데올로기야와 미국 문화가 우리에게로 자기의 라사못과 공장 제조품들과 과실 통조림을 가지고 올 것을 미국에게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우리의 장래로 될 것이며 또 우리의 장래는 우리와 미국의 사상으로 될 것이다」 (잡지 「기빨」 九호에서)

이와 같이 불란서의 꼬쓰모뽈리토의 한사람인 쌀트라의 말에 의하면 오늘 불란서는 자기의 민족적 전통, 민족적 자주권 및 조국을 버리고 이 생각 저 생각할 것 없이 미국의 독점 자본가들의 노예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二차 세계 전쟁에서 독일 강점자들을 반대한 투쟁의 모든 중하를 자기의 어깨에 걸머지었고 지금 자기

외 조국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여 싸우는 불란서의 광범한 대중들은 우선적으로 불란서의 로동자들은 조국을 팔고 있는 ㄲ쓰모뽈리트를 반대하여 싸우고 있다。

광범한 인민과 로동 계급의 이러한 해방 투쟁에 공포를 느낀 불란서의 상층 계급들은 미국의 반동적 ㄲ쓰모뽈리찌즘을 선전함에 광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극장으로 가든지, 어떠한 책점에서나 신문이나 잡지나 책을 사든지 간에, 또 라디오를 어디에서 듣든지 간에 미국의 원조와 미국의 퇴폐적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조국을 미국 독점 자본가들에게 팔아야 한다는 매국노들의 수작 뿐이다。

미국 사람들은 파리 시민들이 고무(껌)를 씹으며, 미추깃내 나는 꼭까꼴라술을 마시는 것을 배워 주며, 미국춤을 추도록 하게 하며, 귀를 어이는 듯한 미국 음악을 듣게 하며, 사람을 도살하며, 남의 재물을 탈취하는 미국 도둑놈들의 활동을 이야기 하는 소설들을 읽게 한다。 이 밖에 미국 소설들은 거의나 주인공이 어떠한 녀성에게 장가를 들었으며 누가 어떻게 누구를 죽인 데 대한 길다란 서술이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파리 시에는 화려하게 장식한 새롭고 새로운 값싼 책들이 폭포수 처럼 쏟아지고 있다。 물론 진정한 인쇄 출판자이라면 지금 미국이 파리에서 팔고 있는 그러한 서적들을 그 값으로 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인쇄로와 종이 값이 그들이 팔고 있는 책값 보다 몇 갑절이나 더 높으기 때문이다。 이제 그 출판물들을 한장 두장 펴쳐 보면 거기에는 어떠한 「비밀」이 숨어 있는 가를 잘 알 수 있다。 그 출판물들은 첫장으로부터 마지막 결장에 이르기까지 빨래 기계로부터 시작하여 원자탄, 마지막으로 미국 매음녀들의 추접미를 선전하는 광고로써 가득찼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량심을 가지고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미국 상인들이 출판하는 출판물들을 다시는 엿보지도 않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 불란서의 광범한 근로 대중과 로동 계급은 미국의 퇴폐적 문화를 반대하여 일어났다。 불란서 뿐이 아니다。 미국의 딸라의 그림자가 비치는 곳에서 마다, 미국의 팽창 정책을 반대하여, ㄲ쓰모뽈리찌즘을 반대하여 수천만 인민은 한결같이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 조국의 남반부에서도 초래되였다。 그것은 누구를 물론하고 다 아는 바와 같이 미 제국주의자들이 해방자의 탈을 쓰고 조선을 독립국으로 만들어 준다는 허위적 간판 밑에서 자기들의 식민지적 략탈 정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가의 상인들은 우리 민족에게 다시금 노예의 멍에를 씌우려고 자기들이 먹다 남은 옥수수 빵의 찌끄러기로 수十년 동안 양육한 자기들의 충견, 매국노 리승만을 사수하여 조선과 그의 민족들을 자기의 값 싼

노예로 또 월가들의 세계적 제패를 쟁취하기 위한 전쟁의 육탄으로 만들려고 마지막 가진 수단을 다 부리고 있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미국의 월가에게 굴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그것은 조선 인민에게 자기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주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애국주의는 반드시 조선 인민에게 조국의 통일과 민족적 자주권을 보장하고야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주의는 미국의 제패의 계획과 침략 정책에 무서운 장애물로 되였다。 그러므로 폭탄보다도, 원자탄보다도 더 무서운 인민의 애국 사상을 말살시키는 것이 그들 식민지 정책의 실천에 있어서 그들의 중요 과업의 하나로 나섰다。 그리하여 미국 월가들은 조선 인민의 애국주의와 민족적 자주권을 포기하도록 자기들의 침략적 사상을 선전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위선적으로 미국 월가들은 조선 인민에게 미국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데마를 전파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식 생활」이란 어떠한 것인가? 물론 야수적 침략자들의 머리 속에서 꾸미어진 생활인 것만큼 야수적 반인민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월가들은 자기들의 생활이 가장 화려한 생활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월가들은 「앙글로·싹쏜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렬등 민족의 하나인 조선 민족도 앙글로·싹쏜의 민족들의 원조를 받아 문명한 민족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반드시 조선 인민은 자기의 민족적 전통, 자기의 민족적 특성들을 거부하고 또 조선 문화를 절대적으로 포기하며 미국의 문화를 두말할 것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의 남반부에서 선전하는 「새」 철학의 하나이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침략적 정책을 은폐하는 이러한 ㄲ쓰모뽈리찌즘을 저들의 힘으로써는 조선 인민에게 침투시키기가 대단히 곤난한 일이며 도저히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각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조선 인민과 이미 인연을 끊고 반동 진영에 넘어간 퇴폐적 작가들을 딸라로 매수하고 있다。 조국도 자기의 인민도 모르는 또 자기 민족의 증오를 받고 있는 반동 작가들은 미국의 퇴폐적 문화, 미국 월가의 사상적 무기인 ㄲ쓰모뽈리찌즘을 조선 인민에게 선전하느라고 분주히 떠들어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작가들은 일제 시대에 있어서 일제의 사상적 주구로 있었고 일제가 쏘련의 무력에 의하여 패배를 당한 후 미국 월가의 사상적 주구로 되어버렸다。그와 같이 매국적 작가들에게는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다。 일제 시대에는 그들이 일제를 찬미했고 또 일제를 옹호하여 「사해 동포주의」를 선전하였다。 오늘에 있어서 이 반동 작가들은 월기의

리익을 옹호하여 그들의 세계 제패의 실천을 위하여 꾜쓰모뽈리찌즘을 선진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에 여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환경에 대한 차이와 발음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반동 작가들은 일제가 조선을 침략한 후 동양 제패를 운운할 때에 꾜쓰모뽈리찌즘을「팔굉 일우」「대동아 공영권」「사해 동포주의」로 일제가 패배할 때까지 선전하였다。 지금 이 반동 작가들은 쏘련의 무력에 의하여 일제가 중국과 조선에서 패배를 당한 후 조선의 북반부에서 새로운 민주 제도가 수립되었고 로동 계급을 수위로한 조선의 근로 대중이 정권을 장악하고 제반 민주 개혁을 실천하고 계획적 인민 경제를 수립하여 파괴된 인민의 경제를 부흥 발전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에 승리를 쟁취하고 있는 이때 또 세계 인구의 四분지 一을 차지한 지역에 중화 인민 공화국이 수립되었고 아세아의 제반 예속 국가들에서의 영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반대하는 민족 해방 운동이 치렬히 전개되고 있는 환경、 다시말하면 인류의 모든 길이 공산주의로 향하고 있는 환경에서 꾜쓰모뽈리찌즘을 제 발음대로 발음하며 선전하고 있다。

이 반동 매국 작가들은 미국의 상인 작가들의 영무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 상인들은 미국 보통 사람들을「바보」로、 새 전쟁의 육탄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에게 퇴폐적 예술을 선신하고 있다。 미국 월가의 무력적 비호 밑에서 우리 조국의 남반부에 둥지를 틀고 있는 매국적 조선의 반동 작가들도 조선 인민의 애국적 전통과 민족적 자아 의식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가장 퇴폐적이며 무지하고 무사상적인 예술을 보급시키고 있으며 그를 통하여 조선 인민을 미국 월가의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매국적 반동 작가들은 미국 제국주의의 사상적 무기인 꾜쓰모뽈리찌즘을「예술」이란 간판 밑에서 조선 인민들에게 밀수입하여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반동 작가들은 예술는 국경도 모르며 조국도 모르고 다만 매개적 역할을 할 뿐이며 시대에 따라서 중렵적 태도를 가져야 할 뿐이라고 떠들어친다。 이에 대한 실중의 하나로는 렴상섭의 문학에 대한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할 필요가 있다。 반동 작가 렴상섭은 문단의 자유 분위기에 대하여 문학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론하였다。「문학은 감정의 순일을 치하는 완화제요、 매개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인이란 어느때나 필연적으로 중립적 존재이다。 그 천적으로써 싫거나 좋거나 자유주의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잡지「민성」一九四九년 신년호에서) 이것은 반동 작가들과 렴상섭 자기 자신의 과거의 매국적 행위와 오늘의 반동적 매국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문학과 문인들의 역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력사의 경험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문학은 어느 시기를 물론하고 계급성과 사상성을 가진 투쟁의 무기의 하나이기 때문에 「감정의 완화제」로 있어 본적은 없었다。 그와 동시에、「매개적 존재」로도 있지 않았다。 문학을 「매개적 존재」로 운운하는 자들은 모두다 반동 진영에 속한 자들이다。 그것은 인민을 외국 침략자들에게 팔아 먹기 위하여 그들의 사상을 침투시키려고 문학을 마치「매개적 존재」로 리용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문학은 계급 투쟁의 산물이고 인간 생활의 물질적 생산 관계의 상층 구조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때든지 그는「매개적」역할을 리행하지 않았고 도리어 무자비한 계급적 사상 투쟁 속에서 발전되였다。 이에 따라 계급적 사회에서 살고 있는것 만큼 어느 문인어든지 어느 계급에게 속하여 있지 않고「중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렴상섭이와 같은 반동 작가들이 자기의 죄악을 은폐하려는 구실에서 나온 잠꼬대일 뿐이다。「사회에서 살면서 사회로부터 떨어진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없다」(레닌) 그렇기 때문에 문인 자체는 력사적 필연으로서 어느 계급의 리해든지 즉 자기가 속하여 있는 계급의 리해를 필연적으로 표현한다。

이제 반동 작가 렴상섭의 최근 작품을 실례로 들어 볼 필요가 있다。 렴상섭은 一九四九년 十월호「문예」한 잡지에「일대의 유업」이란 중편 소설을 발표하였다。

이 소설은 순직한 과부가 점차적으로 조성되는 주위의 영향 밑에서 매춘부로 저락하는 행정을 묘사하였다。 반동 작가 렴상섭은 여기에서 인간의 쾌락한 생활은 다만 색정 세계에 있으니 색정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선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본 소설의 주인공인 과부는 자기가 사랑하는 두 아이까지 버리고 색정 세계로 들어가 과거에 느끼지 못하였던 새로운 쾌락과 용기를 얻었다고 묘사하였다。

매국 역도의 작가로 이미 알려진 렴상섭은 조선 인민들을 해방 투쟁의 전선으로부터 리탈시키기 위하여 미국의 월가 상인 작가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할리웃드 영화 배우들의 색정 세계를 우리 조국의 남반부에서 찬미하며 그러한 세계로 순직한 조선 인민을 유인하려고 자기의 매국적 마지막 수단을 털어 놓고 있다。 이렇게 반동 작가 렴상섭은 퇴폐적 소설로 조선 인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민족적 특성을 현 남조선 환경에 맞추어 버리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함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국제적 매음녀로 이름난 모윤숙은 일찌기 일제 시대에 일본 제국주의의 군벌들의 무릎 위에서 갖은 아양과 간사를 부리면서 일본「천황폐하」를 위하여 조선 청년들이 전쟁 마당으로 나가라는 시를 썼다。 이러던 모윤숙이 오늘 남조선의 반동적 문학계에서 발간하는 잡

지「문예」의 편직인으로 요란스럽게 환약하고 있다。모윤숙이가 일제 시대에 인제를 찬양하였고 또 오늘에는 새 남편으로 미국 월가의 상인들을 섬기고 있다。

모윤숙이는 얼마전에 미국 월가 상인들의 부름을 받아 뉴욕으로 갔다。그는 거기에서 눈을 뜨고 보았는지 감고 보았는지 미국의 비참한 결인화와 무너져 가는 퇴폐의 욱음소리도 듣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미 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미제국주의는 멸망의 마지막 숨결에 처하여 있는 것 만큼 벌써 서기에서 썩은 독소가 퍼져 나오고 있다。그러나 미국 딸라에 매수된 모윤숙이는 그를 아름다운세계로 찬미하고 있으며「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는」세계로 자기의 기행문에 썼다。

그와 반대로 미국 월가의 세계는 눈물의 세계요、한수의 세계이다。오늘 미국에는 六백만의 실업자가 있으며 주택난과 생활고에 쪼들리는 어머니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팔아 하루라도 생활을 연장해 보려는 비참한 과경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참한 과경의 세계를 미국의 근로 대중은 세계의 진보적 인류들과 더불어 반드시 뒤엎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력사적 필연을 인식도 못한 몽매 무지한 모윤숙은 문필가의 가장 밑에서 미국 월가의 부패한 세계를 세계의 문화의 최고봉으로、동양의 구세주로 찬송하고 있다。그것은 그의 기행문중 시에서 볼 수 있다。

「가자 허드슨아 나와 함께 가자
태고의 꿀짜기 동양으로 가자
거기 무성한 숲과
흘려나리는 별의 무리 있어
너와 우으려 너와 입맞추리
거기서 너는 창조의 음악을 듣고
신의 소근거리는 노래에 취하리라
……………
푸른 하늘과 별의 신부여야할
너 자연의 어머니여
……………
가자 젖 흐르는 곳
안개 젖어 나리는
……………
인류 보금자리 동양으로 가자」

이렇게 모윤숙은 미국 월가 상인들을 조국에로 와 달라고 부르고 있다。

반동 작가들은 이렇게 우리 조국의 남반부를「끄쓰모뽈리트의 소굴」로 변경시키고 있다。

미제의 비호 밑에서 조선 인민의 애국주의와 민족적 전통들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몰렴치한 매국적 글들을 꾸미고 있는 반동 작가들의 진영에는 이전 일제 시대에 일본의 천황페하와「내선 일체」를 외치던 친일 작가들도 가입하여 매국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이 친일 작가들이 과거에 있어서「문인 보국회」를 조직하여 가지고「사해 동포주의」「대동아 공영권」들을 부르짖고 있었다。그러나 오늘에 있어서 이 반동 매국 작가들은 자기의 새 주인 미제의 세계 제패를 위하여 다시금 녹쓴 무기를 끌고 다닌다。

리승만 괴뢰「정권」은 미제의 충실한 충견으로 월가의 지시를 철저히 실천하기 위하여 각방면으로 인민들의 신임을 얻으려고 기만적 홍책을 꾸미고 있다。그리하여 리승만 괴뢰「정권」은「친일 분자 숙청」이란 간판 밑에서 지독한 친일 분자 리광수、최남선、김기진 및 기타 반동 작가들에 대하여 체포 명령을 내리었다。그러나 리승만「정권」당국은 리광수 최남선 등을 인민의 증오와 타격으로부터 옹호하기 위하여 체포 명령은 내리었다는 것을 백일 하에 폭로하였다。반동 매국 작가들을 체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들의 반동 도당의 품 속에 감추고 인민을 반대하는 미국의 식민지 정책의 실현을 원하는 호소문、선전문、삐라 등을 찌우는 일을 시키기 위하여서 그러한 흉책을 꾸미었던 것이다。실례로 매국 문필가 리광수는 한민당 선전부에서 동족 상쟁과 인민 살해를 외치는 검은 뾰끓어 번지는 추악한 삐라와 선전문을 쓰고 있다。

친일 반동 작가 박영희는 농촌으로 돌아다니며 미제의 인간 증오에 대한 퇴페적 생물학적 문학을 조선 청년들에게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리승만「정권」은 왜 리광수、최남선、박영희 등을 후면에、두고 사용하고 있는가。그것은 그 매국 도배들이 범한 죄악이 너무도 심하고 추악하기 때문에 인민들이 그 매국 도배 문필가들의 말을 전혀 신임하지 않을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이며。그러므로 리승만 괴뢰「정권」은 불가 부득이 감추어 두고 리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미제의 월가들은 자기의 세계 제패를 위하여 반동 작가들을 리승만 소굴에 몰아 넣고 끄쓰모뽈리찌즘을 퇴폐적 문화를 통하여 조선에 수입하려고 한다。

그러나 미제의 이러한 망상은 조선에 있어서 전혀 실천될 수 없다。왜 그러냐 하면 조선 인민들은 반동 작가들의 흉책을 이미 체험하였으며 오늘에 있어서 그들이 계속하고 있는 매국적 행위를 철저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 인민은 단결된 애국 력량으로 미제의 끄쓰모뽈리트의 소굴인 리승만 괴뢰「정권」를 타도하고 조국의 통일과 인민의 자유를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사람들 중에서 위에 말한 반동 매국 작가 렴상섭、리광수、최남선、박영희 등이 조선의 현대 문학 발전에 마치 어떠한 공로가 있는 듯이 설명하려는 기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도

들은 부르죠아 민족주의에 유혹되고 포로된 기도로 빠져들수 없다.

만일 리광수, 김기진, 박영희, 렴상섭, 최남선 등이 일제 시대에 애국주의와 조선의 독립에 대하여서 몇마디를 짓거렸다면 그것은 순전히 자기들의 매국적 행위를 은폐하려는 기도에서 그러한 술책을 꾸며 내었던 것이다.

모든 민족의 력사의 경험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매국노들은 어느때든지 애국자의 탈을 쓰고 자기 민족의 조국을 팔아 먹는다.

오늘에 있어서 매국 역적 리승만도 자기를 애국자라고 칭하고 있다.

「전쟁 전의 파란에서 경찰의 간첩 분자들이 투쟁적 혁명 단체에 잠입하기 위하여 가능한 온갖 수단을 다한것과 마찬가지로 서반아 전쟁 당시에 있어서도 제국주의 간첩분자들은 서반아 공화국을 원조하는 공산주의 조직에 보다더 쉽사리 기어들어 가기 위하여 국제 부대에 잠입하였다. 파란의 제二파도 역시 일련의 간첩 분자들을 파견하였는데 그들의 파업은 돔브롭쓰끼 부대에 잠입하는 것이었다」(베루트 보고에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반동 작가 박영희는 카프에 잠입하였다. 그의 목적은 조선의 혁명적 문학을 와해시길 목적으로 또 일제의 간첩자의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하여 카프에 기어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일부 사람들은 마치 박영희가 조선의 혁명적 문학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 공로자로서 지적하려고 한다. 박영희는 조선의 현대 문학에 있어서 하등의 진보적 역할을 하지 못한 반동 작가이며 조선의 혁명적 문학 단체를 파괴시킨 일제의 간첩자의 한 사람일 뿐이다. 조국도 인민도 모르는 자들이 우리 현대 문학 발전에 어떻게 무슨, 공로를 끼쳤겠는가.

또 일부 락후한 독자들 중에서 리광수의 「무정」「개척자」「흙」등의 작품들을 조선 문학의 걸작이라고 명칭하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다. 물론 이러한 독자들은 진정한 예술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한 데서 부터 그러한 관념론적인 신심들이 흘러 나왔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학가들의 앞에는 일대 사상적 과업의 하나가 나서고 있나니, 즉 그것은 반동 작가들의 작품의 반동 사상을 무자비하게 로골적으로 폭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과업을 실천할 시기는 우리 조국에 이미 조성되였다.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인민을 열렬한 애국주의로, 즉 국제주의로 교양하여야 한다. 국제주의로 교양된 애국자들 만이 조국을 위하여 싸우며 파쑈모볼리찌즘을 반대하여 무자비하게 투쟁한다.

그렇기 때문에 파쑈모볼리찌즘은 진정한 맑쓰—레닌주의적 국제주의의 개념과는 아무러한 공통성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주의가 자기

조국에 대한 충성과 자기 민족의 민족 문화 발전을 위한 배려와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강조하며 공고히 하여 준다. 국제주의의 기초 위에는 타민족에게 대한 존경심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와 반대로 타민족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민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제주의는 계속 자기 조국에 대한 충성과 자랑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다만 정처없는 파쑈모볼리트만이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를 대립시키며 그를 반대하여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애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를 기초로 하고 전세계 근로자들, 모든 민족, 모든 인종들의 국제적 련결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애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레닌은 가르치기를 혁명가는 다만 자기의 민족, 자기의 나라에만 대하여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민들의 자유와 독립에 대하여서 생각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것은 「공산주의 색채」로 「물을 고치어 들인」 소부르죠아 민족주의라고 하였다」(위신쓰끼 론문에서)

그러므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가 없는 애국주의는 부르죠아 민족주의이며, 배타주의이며, 부르죠아지적 및 기회주의적 사상에 의한 독립은 인민에 대한 기만이며 조국에 대한 반역, 민족적 리익에 대한 ○배반인 것이다.

현시에 있어서 우리의 애국주의는 다만 자기의 조국과 민족의 리해와 번영을 위하여 투쟁하는 행정에서 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조국이며 우리 인민의 해방 국가인 쏘련을 지지하며 행동적으로 그를 위하여 활동하는 그에서도 표현된다. 다시 말하면 말로써가 아니라 실제로써 우리는 쏘련을 지지하며 옹호하는 운동을 광범히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 조국인 쏘련은 민족적 독립과 제민족의 자주권을 위한 가장 진정한 지주이며 인류의 평화와 민주와 안전을 위한 담보이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쏘베트 사회주의 문화는 전인류에 대한 등대이며 전세계 열류 문화의 최고 달성이기 때문이다. 이 문화는 레닌—쓰딸린의 세계관의 문화이며 가장 진보적인 유일한 문화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민족의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응당히 쏘련의 문화를 사랑하여야 하며 그를 진정으로써 섭취하여야 한다. 즉 이것이 맑쓰—레닌주의를 연구하는 것이며 자기의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와 련쇄하여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적 조국인 쏘련을 옹호하는 것이 비단 쏘련 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될 뿐만 아니라 세계 매개 인사의 성실한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파리 꼼무나 七十九주년에 제하여

박 무

오늘 전세계 근로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쏘련을 선두로 하는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력량이 장성 강화된 환경 속에서 의의 깊은 파리 꼼무나 七十九주년 기념일을 맞이한다。

一八七一년 三월 十八일 혁명은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하여 궐기한 불란서 로동 계급의 영웅적 투쟁이었으며 인류 력사에서 처음으로 자기 수중에 주권을 장악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위대한 혁명이었으며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첫 경험이었다。

파리 꼼무나는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운동에 있어서 자본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그들의 영예스럽고 영웅적인 첫 기도였으며 이는 대중적 혁명 운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력사적 경험과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의 가일층한 진보、수백개의 강령어나 론단보다 더욱 실천적 걸음을 보인 것이었다。

사회주의 혁명의 전초병으로서의 파리 꼼무나가 발휘한 영웅적 투쟁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국가의 구체적 경험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수백만의 로동자들이 자기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촉진시켰으며 사회주의에로의 지향을 환기시켰으니 꼼무나가 가지는 세계사적 의의는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 ×

一八五三년 나포레온 三세의 제二 제국이 창건된 후 十八년 간의 그의 집정은 불란서로 하여금 여지없이 피폐케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근로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는 그들의 생활을 더욱 비참하게 하였으며 로동 계급 속에서 혁명적 위기를 성숙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당시의 정세에 대하여 맑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불란서를 완전한 멸망으로부터 구출하고 그를 새로운 운명에도 재생시키는 일은 다만 제二 제국의 정치 경제 제도의 파괴와 혁명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고 전제 불란서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 것이 파리 앞에 나서고 있다」

혁명적 위기를 감득한 제二 제국은 혁명으로부터의 출구를 뿌로씨야와의 전쟁에서 찾으려고 하였다。그리하여 드디어 一八七〇년 七월부터 보불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쟁 초기부터 제二 제국의 부패성은 여지없이 폭로되었으며 九월에 이르러서 호언하던 나포레온 三세는 세단에서 포위당하고 뿌로씨야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불란서 군대가 세단에서 항복하였다는 소식이 파리에 전하여지자 九월 四일 파리에서는 로동자들의 폭동이 일어났다。 봉기한 파리 로동자들은 나포레온 三세의 폐위(廢位)와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아직 분산되고 조직되지 못한 파리 로동자들、자기의 계급적 리익과 적대 계급의 리익을 명확히 분별하지 못한 프로레타리아트는 九월 四일 정변에서 정권을 잡지 못하고 혁명의 과실(果實)은 부르죠아 공화주의자들의 손에로 가고 말았다。 그리하여 부르죠아 공화주의자들은 「민족 방어 정부」를 수립하였다。

또한 세단에서 불란서 군대의 패배는 뿌로씨야 군대로 하여금 파리에로의 진공을 용이하게 하였다。 때문에 불란서 로동자들은 조국의 수도 파리를 방어하며 조국을 옹호하기 위하여 인민을 무장시킬 것을 「민족 방어 정부」에 요구하였다。 로동자들의 이 압력은 「민족 방어 정부」로 하여금 파리에서 二〇〇여 대대의 인민군을 조직하게 하였다。 이것은 혁명을 위한 인민의 무장이었으니 부르죠아지는 뿌로씨야 군대보다도 인민군에 대해서 더욱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파리에 대한 뿌로씨야 군대의 공격이 시작된 후부터 애국심에 불타는 인민군과 파리 시민들은 결사적인 투쟁으로써 방어하였다。 그러나 뿌로씨야와의 전투보다도 인민들의 무장에 겁을 먹은 반동적 부르죠아지는 민족을 배반하는 굴욕적 휴전 조약을 一八七一년 一월 二十八일 뿌로씨야와 체결하였다。 이럼으로써 「민족 방어 정부」는 「민족 변절 정부」라는 자체의 본성을 여지없이 폭로하였다。

그러나 파리 인민들 특히 프로레타리아트는 외적 뿌로씨야와 국내 반동 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二월에 조직된 민족 의용대「중앙 위원회」는 파리 로동 계급과 인민의 지도적 중앙으로서 사업하였으며 자기 존재의 첫 시기부터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다른 방면으로 파리를 뿌로씨야 군에 넘겨준 반동적 찌에르 정부는 「방어」를 강화하기 위하여라는 구실하에서 一八七一년 三월 十八일 인민군에 대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반동적 정부 군대와 혁명적인 파리 인민군 사이에 전투가 개시되었다。 영용한 파리 로동자들을 선두로한 인민군은 정부 군대의 공격을 격퇴하고 十八일 저녁에 정부의 모든 기관들을 점령하

였고 프로레타리아트의 자연 발생적 운동은 승리로써 종결되었다。

반동적 찌에르 정부는 베르사이유로 도망가고 파리의 주권은 무장한 로동자들과 수공업자들이 선거한 민족 의용대 중앙 위원회 수중으로 넘어갔다。

중앙 위원회는 주권을 자기의 손에 장악하고 성명하기를 자기의 전권(全權)을 림시적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꼼무나가 선거되는 때 까지 주권에 남아 있겠다고 하였다。

꼼무나의 선거는 三월 二十六일 파리 로동자들의 대다수의 참가 하에 진행되었는바 八五명의 위원이 선거되었다。 꼼무나 위원의 사회적 성분은 단일하지 못하고 그 성원은 소수파 다수파로 되었으며 또 아두 당파에도 속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

선거후 정권은 중앙 위원회 로부터 새로 선출된 꼼무나에로 이행되었다。

정권을 자기의 수중에 장악한 파리 꼼무나는 인민적 프로레타리아트의 정부라는 그의 성격을 판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제 민주 개혁들을 실시하였다。

꼼무나는 낡은 국가 기구를 파괴하고 진정한 인민의 대표로써 새 형태의 국가 즉 그 국가의 정부 고관들은 선거법에 의하여 피선되며 인민의 앞에서 자기의 책임 질행을 보고하며 임의의 시기에 인민에 의하여 소환될 수 있었다。

꼼무나는 지배 계급에 맹목적으로 복무함으로써 인민들을 억압하는 한개의 도구로 되어있던 낡은 상비군 제도를 폐지하고 인민 대중 자체가 무장하는 제도를 창립하였다。

꼼무나는 종교를 국가와 학교에서 분리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하였다。

꼼무나는 도주한 이전 소유자들의 공장 기업소를 꼼무나의 관리 하에 넘겨 수계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꼼무나는 빵공장의 야간 로동을 금지하고 임의로 로임으로부터 벌금을 받으며 공제하는 것을 폐지하였으며, 주택료와 대금에 의한 부채를 연기하였으며, 전당포에 저당된 물건을 빈민들에게 반제(返濟)하여 주었다。

이 모든 대책은 꼼무나가 착취와 압박에 기초한 낡은 세계에 대하여 치명적 위협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꼼무나가 이와 같이 많은 사업들을 집행하였으나 이것들이 철저하지 못하였다。 개혁에 있어서의 불철저성은 광범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운동의 선두에 일치한 행동 강령과 통일적 지도를 충분히 할수 있는 당이 서지 못하고, 잡다한 구성과 각종 정치적 견해를 가진자들이 꼼무나의 성원으로 된데 있는 것이다。

꼼무나 내의 정치적 견해에 있어서 새 야꼬빈파는 자기를 첫 불란서 혁명의 계승자로 자처하면서 그들은 꼼무나의 혁명이 과거의 모든 선행 혁명들과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소규모적 소유를 공고히 하며 의회제 사업을 계속하려고 동경하였으며 또 대자본의 힘을 다만 제한하는 데 그치려고 하였다。

꼼무나에서 뿌란꺄주의자들은 군사 문제와 반혁명과의 투쟁 사업을 지도하였으며, 공고한 중앙 주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대중과 련락을 공고히 하지 않으면서 선거된 소수 혁명자들의 독재를 수립하려고 동경하였다。 뿌란끼주의자들이 사회주의에 동경하였으나 사회주의로 나가는 구체적 길을 지적하지 않았다。 사회 경제적 개혁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하면서 뿌란끼주의자들은 꼼무나의 사회 경제적 대책에 참가하지 않았다。 경제 문제를 잘 리해하지 못하면서 뿌란끼주의자들은 소수에게 경제 문제를 방임하여 버렸다。

뿌루돈주의자들은 인터내쇼날 우익 기회주의자들로써 정치적 투쟁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필연성을 거부하였다。 그들은 순전하고 무계급적 민주주의란 구실하에서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의 적을 폭력적으로 진압함을 반대하였다。

뿌루돈주의자—집산주의자들이 라고 칭하는 좌익 뿌루돈주의자들은 생산 수단에 대한 개인 소유 폐지의 필요성을 시인하면서 뿌루돈주의로부터 많이 물러섰다。 그러나 그들의 경제 강령에는 약간의 뿌루돈 사상이 아직 남아 있었다。

여러가지 오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산주의자들의 위대한 공훈은 인터내쇼날과 로동 계급과 직업 동맹 단체들과 민주주의적 그루빠들과의 련락을 공고히 하려는 데 있었다。

꼼무나 내의 모든 당파의 존재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미숙성의 표현이었으며 꼼무나가 완전한 당의 지도를 받지 못한데 기인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새 정권의 첫 출발에 있어서 큰 결점으로 되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동 계급의 신임을 받는 당의 지도(당의「독재」)가 없이는 다소간이라도 튼튼한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가 불가능한 까닭이다」(쓰딸린)

× × ×

압박받는 계급의 해방은 폭력적 혁명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또 통치 계급의 기성의 주권 기관을 박멸함이 없이도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동 계급의 정부인 꼼무나의 운동는 부르죠아 자본의 통치를 전복하며 현존 사회 제도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될 것이었다。 특히 국가 형태에 있어서 꼼무나는 부르죠아 국가와 전혀 판이하였으며 엥겔쓰가 지적한 바와 같이 「꼼무나는 제국(帝國)의 전면 대립이었다」

꼼무나는 그 본질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정부이었고 로동의 경제적 해방의 성취를 완성할 수 있는 공개적인 정치적 형식이었다。

기회주의자들은 과리 꼼무나의 사업을 「한갓」 더욱 완전한 부르죠아 민주주의로서만 해석하려고 하였었다。그러나 레닌은 이미 과리 꼼무나가 부르죠아 사회의 범위 밖에서 출발한 그러한 진정한 민주주의 표본으로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그것은 부르죠아 사회에서는 그런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며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다수를 위한 민주주의는 프로레타리아트에게 국가 주권이 넘어오는 것으로써 실현되기 때문이다。

맑쓰는 꼼무나의 경험과 그의 국가 창조를 리론적으로 총화하였으며、꼼무나가 부르죠아 국가 기구를 파괴하고 그를 새 국가 형태로서 바꾸어 놓은 프로레타리아트의 첫 경험이었다고 가르치고 있다。맑쓰의 이 공훈을 레닌은 자기의 저서 「국가와 혁명」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맑쓰와 엥겔쓰」는 이 「…파리 꼼무나의 그 기본적이며 주요한 교훈을 그들이 「공산당 선언」에 긴요한 몇가지 점들을 정정하여 그것을 기입하리만큼 그러한 거대한 중요성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레닌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바로 이 교훈은 완전히 망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카우츠끼파의 맑쓰주의에 대한 주류적(主流的)「해석」에 의하여 로골적으로 외곡되고 말았다」 즉 수정주의자들、개량주의자들——카우츠끼、베른슈타인——은 과리 꼼무나의 경험을 정반대적 견지에서 설명하였다。그들은 프로레타리아트에로의 국가 정권의 이행은 낡은 국가 기구의 분쇄의 결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 기구를 점차적으로 점유하는 방법과 또한 프로레타리아트가 부르죠아 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로 평화적으로 개혁하는 목적에 이 낡은 국가 기구를 적응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생길 수 있으며 또 생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것이다。주권 쟁취의 수단으로서 혁명적 폭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개량——이러한 「교훈」을 사회 협조주의자들은 파리 꼼무나에서 찾았던 것이다。레닌은 국가에 대한 이 개량주의자들、반 맑쓰주의자들의 리론을 남김없이 철저하게 분쇄하였다。

파리 꼼무나는 새로운 형의 국가를 창조하는 첫 력사적 경험으로 되었다。레닌은 一九〇五년 혁명에서 탄생되었고 一九一七년 二월 혁명의 시작과 함께 전로씨야에 부활된 쏘베트는 파리 꼼무나의 일층 발전된 것으로 된다고 증명하였다。이것은 새로운 형의 국가、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국가가 사회주의 혁명의 과정에서 반드시 존재하며 창조될 수 있는 그의 구체적 정치 형태인 것이다。왜 그러냐 하면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간에는 전자로부터 후자에 이행하는 혁명적 개혁기가 있다。그리고 그에 상응하여 또한 정치적 과도기가 있다。그 과도기의 국가는 즉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로(엥겔쓰、고—다강령 비판) 밖에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 ×

과리에 프로레타리아트 주권이 수립되고 있는한 부르죠아는 안식할 수 없었다。불란서의 부르죠아 지주들은 결속하였으며 찌에르의 지도 하에 불란서 부르죠아들은 프로레타리아트 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민족의 공통한 적과 그리고 자기 조국을 황폐케한 독일군과 일각의 지체도 없이 타협하고 꼼무나를 파괴하려고 하였다。

베르사이유에 주재하던 부르죠아 군대는 五월 二十一일 파리를 습격하였다。파리 로동자들과 꼼무나 위원들이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으나 드디어 五월 二十八일 마지막 바리까드는 무너지고 꼼무나는 실패하고 말았다。불란서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로동자들은 정권을 장악하고 꼼무나를 선언하고 파리를 구원하려고 하였으나 이 계획은 좌절되었으니 프로레타리아트의 첫 혁명적 봉기는 고립 무원 속에서 패배당하고 말았다。

파리 꼼무나는 국제 국내적으로 프로레타리아트의 성원이 없이 또한 불리한 조건과 파리 꼼무나 자체의 실수가 꼼무나의 패배를 촉진시켰던 것이다。

파리 꼼무나의 실패는 一八七一년 당시의 불란서와 구라파의 일반 사회—정치적 환경에서 배출되는 것이다。사회 혁명에서 끝까지 승리하려면 적어도 두가지 조건——생산력의 높은 발전과 프로레타리아트의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당시의 불란서의 자본주의는 아직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편으로는 완강한 정력으로 인민 대중의 혁명적 운동을 조직하며 그것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견고한 로동자 당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로동 계급은 준비되지 못하였으며 훈련도 없었다。이것이 사회의 근본적 개혁에 있어서 지장을 주었다。

파리 꼼무나에서 대중의 역할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무정부주의자、뿌란끼주의자들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맑쓰주의의 지지자들——제一 인터내쇼날 대표들은 이때에 있어서는 아직 대중에게 커다란 영향을 가지지 못하였다。꼼무나의 과오는 역시 여기에서 부터 나오는 것이다。

꼼무나는 부르죠아 정부와 결정적 투쟁을 전개하지 않았고 부르죠아들로 하여금 자기의 군대와 관리를 베르사이유로 유인하여 가는 것을 허용하였다。그들은 「폭동이 시작된 이상 최대의 결단성을 가지고 싸워야 하며 공격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아니된다。방어전은 각종 무장적 폭동의 사신(死神)이다…」라는 맑쓰의 고전적 교시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았다。그러므로 파리 꼼무나는 파리에서의 승리를 만족히 여기고 반혁명의 소굴인 베르사이유를 진공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파리의 혁명적 로동자들의 이 실수를 맑쓰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그들이 패배당한 자가 되었다면 그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인성(寬仁性)

이며…… 국내 전쟁을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은 데 있다. 두번째 실수는 중앙 위원회가 너무 일찌기 자기의 전권을 꼼무나에 양도한 것이다……」(一八七一년 꾸겔만에게 보내는 편지) 이것은 반동들로 하여금 꼼무나를 반대하여 공격할 가능성을 주었다. 꼼무나는 파리 내부의 반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위한 충분한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반동들에 대하여 온정한 태도를 취하였고 이것이 적대 분자들이 꼼무나의 시책에 대한 사보타쥬와 뻬르사이유를 위한 간첩의 조직을 도와주었다. 꼼무나는 거액의 화폐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불란서 은행에 손을 대지 않았으므로 뻬르사이유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재정적 원천을 상실하였었다.

파리 꼼무나는 즉시로 지방과 특히 농민과의 견고하고도 광범한 련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데서 그는 자기의 동맹자를 상실하였다.

이러한 모든 오유들은 그 당시 프로레타리아트가 선진적 리론—맑쓰주의로 무장한 당의 지도가 없는 데서 온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 운동에 있어서 당의 역할에 대하여 쓰딸린은 「……공고하고 완전한 독재를 가지려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지도이다」라고 가르쳤다.

× ×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파리 꼼무나는 허다한 기본적 오유를 범하였으나 그러나 그는 착취자를 반대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였다.

꼼무나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면서 맑쓰는 파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는 전세계를 휩쓸 것이라고 말하였다. 꼼무나의 패망 전야인 五월 二十三일에 맑쓰는 인터내쇼낼 총국에서 말하기를 「만일 꼼무나가 패망되더라도 투쟁은 다만 연기될 뿐일 것이다. 꼼무나의 원칙은 영원한 것이며 청산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원칙은 로동 계급이 아직 해방될 때까지는 더 새로이 당면 순서로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레닌과 쓰딸린도 또한 꼼무나의 경험을 비상히 높이 평가하였다. 레닌은 말하기를 꼼무나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발전에서의 첫 세계사적 걸음이요, 쏘베트 주권은 두번째 세계사적 걸음이라고 하였다.

꼼무나는 신형태의 국가였고 쏘베트 주권의 표징이었다. 꼼무나는 프로레타리아트가 근본 동력으로 되어 헤게모니를 잡고 소부르죠아지를 자기의 편에 끌었으며 또 농민을 자기의 영향 하에 복종시킬 모든 희망을 가진 첫 혁명이었다.

꼼무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경험과 전략 전술을 풍부히 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꼼무나는 모든 오유에도 불구하고 十九세기의 위대한 로동 운동의 아주 위대한 모범이며 또 꼼무나의 희생이 아무리 컸다 하더라도 그 희생은 전체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의 의의로써 표상된다. 꼼무나는 구라파에 사회주의적 운동을 출발시켰으며 공민 전쟁의 힘을 보여 주었고 애국주의적 기만을 분쇄하였으며 부르죠아지의 전 민족적 동경에 대한 허망한 신념을 소멸시켰다. 꼼무나는 사회주의적 혁명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내어 세우도록 구라파 로동 계급을 교양하였다」

파리 꼼무나 후에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정치적 형태에 대한 맑쓰의 학설이 충분한 발전을 가지지 못하였다. 「물론 七〇년 대에 맑쓰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가장 적당한 형태는 국회제 공화국이 아니고 파리 꼼무나 형의 정치 조직이라고 지적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유감이나마 맑쓰의 이 원칙은 그 후 맑쓰의 모든 로작에서 계속 전개를 보지못하였으며 그대로 망각되어 있었었다」(당사 六一八—六一九폐지)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정치적 형태는 국회적 공화국인 것이 아니라 쏘베트 공화국이란 결론에 이르렀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정치적 형태에 대한 학설을 높은 계단에 올려 세웠으며 파리 꼼무나와 로씨야 혁명의 경험을 리용하여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국가 형태로서의 쏘베트 주권을 발견한 것이 레닌에게 있어서 새것으로 되는 것이다.

파리 꼼무나의 영웅적 투쟁에 기초하여 레닌은 로동 계급과 볼쉐위끼 당에게 용감한 진격적 전술을 가르쳤다. 이 전술은 一九一七년 十월에 로씨야의 근로자들이 착취자들을 전복시키고 새 형태의 주권 곧 파리 꼼무나가 그 맹아였던 쏘베트 주권을 수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은 낡은 국가 기구를 여지 없이 파괴하고 모든 주권을 쏘베트의 손에 넘어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쏘베트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의 최고 전형으로 창건되고 공산주의 건설에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쏘베트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전세계 근로자들에게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사회주의로 향하는 중앙 및 동남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발전의 길은 쏘베트 동맹의 경험을 따르고 있다. 「쏘베트 제도와 인민 민주주의 제도는 동일한 정권—도시와 농촌의 근로자들과 동맹한 로동 계급의 정권의 두가지 형태이다. 이 두 제도는 모두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두가지 형태이다」(지미뜨로브)

조선 인민들은 선진 국가들의 우수한 경험을 기초로 하여 로동 계급을 핵심으로 한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우리 남반부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분할 식민지화 정책과 그들의 주구 리승만 도당들을 하루 속히 타도 분쇄하는 투쟁에 총궐기하고 있다. 파리 로동자들이 불란서 로동 계급 만이 아니라 전세계 근로자들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영생 불멸의 업적을 높이 간직하고 조선 인민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것이다.

혁명적 랑만주의는 사회주의적 레알리즘의 구성 부분이다

유 균

十八세기 중엽에 이르러 전제와 농노 제도에 의지한 도시 귀족들의 문화는 점차적으로 퇴폐 상태에 이르렀다. 그 문화를 교대하여 선진 부르죠아의 문화가 발전되었다. 이 문화는 봉건 제도의 제반 완고성들과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때에 불란서에서는 군주와 귀족들의 주권을 타도한 부르죠아 혁명이 일어났다. 이 혁명은 전체 구라파 인민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주었다. 낡은 생활 양식과 낡은 관념들은 붕괴되었다. 인류는 자기의 력사에서 새로운 자본주의적 시기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하여 문학 예술 부문에 있어서도 거대한 발전이 진행되었다. 고전주의를 극복하며 그것과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창작적 원칙을 가지고 문학은 발전하였다. 다시 말하면 새 문학적 방향, 로만티즘이 발생하였다.

十八세기의 말엽과 十九세기의 초엽에 문학에 있어서 로만티즘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 로만티즘은 나라에 따라서 각각 그 시기가 달랐다. 영국에 있어서 그의 저명한 대표자로는 바이론이었고 불란서에 있어서 빅토르·유고이었고 독일에 있어서는 피테와 시르레르(그의 창작의 제一 분기)이었다. 로씨야에 있어서 로만티즘의 시기는 쑤꼽쓰끼, 뿌쉬낀, 릴레예브, 레르몬또브의 창작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작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 사회 생활에 대한 불만과 진보적 랑만적 기분을 표현하였으며 인간의 고상한 리상을 동경하였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다른 종류의 랑만주의 작가들이 있었다. 일부 이러한 작가들은 지구 상에서의 인간의 생활에 대한 랑만적 불만, 과거 사회 생활에 대한 찬미, 정치 투쟁에 대한 공포 등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사회적 반동과 퇴폐적 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랑만주의 작가들은 불란서에 있어서 사또브리얀, 로씨야에 있어서는 수꼽쓰끼의 일부 작품들에서 볼 수 있다.

고전주의와의 투쟁에서 로만티즘의 문학적 방향이 발생하였다. 고전주의는 고대 희랍과 로마 문학의 모형을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데 기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주의는 다른 종류의 뽀에시야들을 진정한 예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고전주의는 작가들의 창작적 범위를 대단히 제한하였으며 압축시켰다. 그렇다면 로만티즘은 작가들의 창작적 범위와 문학적 흥미를 어떻게 하였던가?

물론 로만티즘은 문학적 흥미에 대한 범위를 대단히 확장시켰다. 랑만주의적 작가들은 희랍 로마 고전 작품으로부터 인민들의 구전 창작(口傳創作)과 민속 문학(民俗文學)에 자기들의 주목을 돌리었다. 그러므로 인민들의 옛말, 전설, 노래 등은 그들의 령감의 원천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민속 문학과 구전 문학들에서 형상, 내용, 문체 등을 취하였다. 이제 이러한 작품들을 실례로 들면 수꼽쓰끼의 「스웨뜰라나」, 뿌쉬낀의 뽀에마 「루수란과 유두밀라」이다.

또 그들은 자기 인민들의 뽀에시야와 당시의 민속 문학에만 흥미를 돌린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중세기의 시변과 전설들에 대하여서도 흥미를 돌리었다. 또 그들은 발야만인들의 유목 생활(遊牧生活)과 열대 지방의 오아씨쓰와 중세기의 기사(騎士)들의 도덕을 신비의 어떠한 흥미감으로써 당시의 자기들의 부르죠아 계층 문화와 대립시켰다.

이러한 랑만주의적 작품의 실례를 들면 토의기와 희랍의 생활을 묘사한 바이론의 동방 랑만주의적 뽀에마이다. 따따르, 찌간, 깝까즈 인민들의 풍습을 묘사한 레르몬또브의 많은 뽀에마와 뿌쉬낀의 남방 뽀에마도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로만티즘의 첫 기본적 특장을 지적하면 인민적 뽀에시야와 중세기와 동방과 서방의 이국 생활 풍경에 대한 흥미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랑만주의적 작가들이 다만 그러한 주제에 대하여만 창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는 자기 자신을 창작 사업에 있어서 가장 자유롭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은 흥미와 감정과 상상이 그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사물이나 사변에 대하여 마음대로 창작할 수 있다는 그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고전주의와는 반대로 그들은 예술적 창작의 자유를 선포하였다.

고전주의는 고대 희랍과 로마 문학의 모범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에 기초하였고 창작적 규정을 준수함에 기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들은 반드시 이미 규정된 요구에 따라서 준비된 문제에 의하여 창작하였다. 그러므로 시인들의 창작적 상상은 규정된 규모에 복종되었고 결박되었다.

그러나 랑만주의적 작가들은 그러한 이미 규정된 각종 규정들을 부인하였다. 그들는 시인의 창작적 사상, 창작적 상상을 해방시켰다. 그들의 의견에 의하면 작가는 작품의 구성에 있어서나 문체의 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는 자기의 실지 창작 사업에서 이러한 길을 밟고 있었다. 그들은 일부 새로운 자—느르를 창조하였고 낡은 것은 변경시켰다. 실례로 영국 시인들은 랑만적 발라드의 새 자—느

또들 창조하였다。 독일 및 영국 시인들은 이국 풍경의 주제와 다른 랑만적 정서적 뽀에마 노벨리 자—느르를 창조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뽀에마의 창시자는 바이론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이론의 뽀에마」라고 명칭하였다。 이러한 뽀에마는 사회와의 투쟁에서 실패를 당한 고독한 실망한 영웅이 「세계적 비애」를 체험하면서 생활에서의 비상한 맹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랑만주의적 작가들은 소설의 자—느르에 커다란 변경을 가져왔다。 그들은 중세기의 기사나 「자기자」들의 외형적 맹험에 기초한 소설의 낡은 형태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주인공들의 심리적 내부에서의 모순과 주위의 환경과 그들의 사상적 충돌의 내부적 체험에 기초한 소설들을 창작하였다。 이러한 소설은 괴떼의 창작 「청년 웰떼르의 비애」라는 소설이다。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시 및 사시 희극 풍자 등은 흥미를 끌지 못하였다。

랑만주의적 작가들은 작품 구성에 있어서 여러가지의 자—느르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로만티즘의 둘째번 기본 특징으로는 창작적 감정 상상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이미 규정된 창작적 규정을 부인한 것이다。 또 랑만주의적 작가들은 창작 사업에 있어서 구속적이던 규정을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작 사업에 있어서 감정과 사상이 절대적 지배적 역할을 리행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고전주의 작가들이 창작한 형상에는 막연성과 도형성(圖形性)이 농후하였다。 그러나 랑만주의적 작가들은 이러한 형상의 막연성과 도형성을 반대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의 작품은 우선적으로 감정 정서적 상상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감흥을 준다。 또 이들이 사용한 언어에는 비교、상징、은유、과장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에는 정서적 표현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작품의 형상과 내용에 있어서 랑만적 기분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것——이것이 로만티즘의 세째번 기본 특징이다。

이제 랑만주의를 총괄적으로 간단히 결론한다면 그것은 처음 十九세기 초엽에 독일에서 발생한 문학적 방향으로서 다음 서구라파와 로씨야에 널리 전파되었고 마침내 고전주의를 교대한 새로운 문학적 방향이다。

랑만주의는 두 기본 방향으로 분렬되었다。 그 중 하나는 반동적 방향이니 이는 과거 중세기를 리상화하였고 그의 부활을 호소하였다。 그 중 다른 하나는 혁명적 랑만주의이다。 이는 정의의 생활과 인간의 위대성에 대한 자기의 리상을 부르죠아 사회의 현실과 대립시켰다。

혁명적 로만티즘의 대표적 창시자는 로씨야의、위대한 문호 막심・고리끼이다。 그러므로 혁명적 랑만주의를 말하려면 반드시 막심・고리끼의 초기 작품을 말하

게 되는 것이다。 막심・고리끼는 위대한 사실주의적 작가로서 자기의 첫 작품들을 혁명적 랑만주의의 방법으로 창작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마까르・츄드라」「로파 이스길리」「처녀와 죽음」「매의 노래」「해연의 노래」 및 기타 작품들이다。

고리끼의 혁명적 랑만주의는 당시 자본주의 제도의 불공평과、압박을 반대하는 혁명적 호소이며 이는 당시의 사회를 변혁으로 호소하는 내용을 표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후에 막심・고리끼는 이러한 랑만주의를 「사회적 랑만주의」「집단주의의 랑만주의」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고상한 전투적 기분」을 반영한다。 이것은「래일의 행복에 대한 확신을 가진 문학이며 오늘의 어지럽고 파의 구름을 꿰뚫고 래일의 밝은 날을 볼 수 있게 방조하는 문학이다」(막심・고리끼)

또 고리끼는 「문학에 대하여」란 자기의 론문에서 랑만주의의 두 방향을 지적하였다。 그 중 하나는 「소극적」 랑만주의이다。 「그것은 현실과 인간을 융화시키거나 그것을 가장하면서 현실로부터 떠나 인간을 무의미한 내적 세계로 깊이 끌고 들어갔다」(고리끼) 이러한 랑만주의는 로씨야에 있어서 상징주의자들이 외치는 랑만주의였다。 그들은 인간을 사회적 투쟁으로부터 절연시켜 신비와 종교와 무지의 세계로 끌고 갔다。 이러한 랑만주의를 반대한 적극적 랑만주의는 「생활에 대한 인간의 의지를 강하게 하며 현실을 반대하는 폭동을 그 속에서 일으키려고 하며 그 내부에 있는 각종 압박을 반대하여 노력한다」(고리끼)

적극적 혁명적 랑만주의는 레알리즘의 구성 부분으로서 현실 생활을 반영하면서 래일을 예견케 하여 준다。 이러한 것이 바로 고리끼의 랑만주의이다。 고리끼의 랑만주의에는 자기의 미래에 대한、새로운 인간에 대한、해방된 인류의 영웅에 대한、로동 계급의 공상이 체현되었다。 또 그의 랑만주의는 혁명 시기에 있어서 용감하고 담대한 투사들을 프로레타리아트 당의 주위에 결속시켰으며 그들을 앞으로의 전진에 호소하였다。

고리끼의 초기 창작에 있어서 혁명적 랑만주의의 경향이 발생한 원인은 그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볼쉐위끼의 위대한 문학 평론가인 보롭쓰끼는 막심・고리끼의 초기 창작에 있어서의 혁명적 랑만주의의 경향의 발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일정한 계급적 특성을 띤 예술적 창작은 계급 자체가 이미 충분히 형성되었으며、자기의 자립성을 의식하였을 때에야말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다。 미래의 전투적 계급의 첫 간부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리지가 아직도 불명료하며 애매하며 혼란한 투쟁 사상을 포옹하고 있는 운동의 초기에 있어 과학적 이데올로기는 축적된 력량과 욕망의 파잉 의식이 충만된 미형성이 기쁜 예감과 희망만이 침투되고 있어 이 력량에 결말을

준다.

견고하며 실제적인 사회적 기초는 그때에 있어 아직 감각하고 있지못하였지만 이 미학적 이데올로기는 페알리즘과는 무관계한 것이다. 성숙되며 있는 미래의 예감으로부터 출발하면서 미학적 이데올로기는 공상의 요소들로써 물들여져 있었으니 이는 랑만주의적인 것이다. 칼·맑쓰가 어느곳에서 정확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트가 아직도 충분히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기, 따라서 그의 립장이 아직도 공상적인 그런 시기에 있어서 미래의 사회의 공상적 묘사는 완전한 사회 개조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처음이며 완전한 예감과 지향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공상에 대한 이러한 경향은——정치적 건설에서나 또는 예술적 건설의 범위에 있어서——랑만에 대한 경향으로서 예술에서 표현되고 있다. 아직 약하게 분화된 프로레타리아 대중의 표현자인 므·고리끼가 랑만주의의 기빨 밑에서 진출하였음은 당연한 일이다. 「마까르·츄드라」의 시대로부터 六十년이 경과한 후일찌라도 프로레타리아트의 급속한 발전은 므·고리끼를 로동 계급의 공공연한 이데올로기의 옹호자로서 되게 하였으며 그의 창작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케 하였다. 그런데 랑만주의의 모든 공세는 그의 시문학에서 보전되었다」(브·브·보롭쓰끼 전집 제二권 一九二페지)

그러므로 고리끼의 혁명적 랑만주의는 당시 현실 사회의 력사적 발전의 산물인 것이다. 이 랑만은 인간이 인간을 적대하는 사회 제도를 반대하며 인간의 위대성과 인간에 대한 휴마니즘을 선전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적 선언으로 되었다. 물론 이러한 랑만은 오늘에 있어서도 반드시 예술 창작에 있어서 그 구성 부분의 하나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一九三四년 제一차 쏘베트 문사 동맹대회에서 아·스다노브는 혁명적 랑만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혁명적 랑만주의는 구성 부분으로서 문학 창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당의 모든 생활, 로동 계급의 모든 생활, 그리고 그의 투쟁은 위대한 영웅적 및 거대한 전망과의 가장 준엄하며 또한 가장 근직한 실천적 사업의 결합이다. 우리 당은 광활한 전망과 앞으로의 끊임없는 지향과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한 투쟁을 특별한 실용성 및 실무성과 련결시켰으며 또 련결시키고 있는 만큼 항상 강력하였다. 쏘베트 문학은 우리들의 주인공들을 보여 주어야 하며 우리들의 래일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공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래일은 이미 오늘날의 계획적인 의식적 사업으로써 준비되고 있다」

고리끼는 자기의 혁명적 랑만주의를 「이명(異名)의 사실주의」라고 칭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문학론계

에서 사실주의와 랑만주의가 대립되거나 혹은 통일이거나 하는 론쟁은 불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스다노브의 말에 의하여 혁명적 랑만주의를 사회주의적 레알리즘의 구성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고로 사회주의적 레알리즘으로 창작한 작품들에는 혁명적 랑만주의가 불가결의 요소로 표현되고 있다. 실례로 쇼로호브의 「개간된 처녀지」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 소설에 묘사된 주인공들의 앞으로의 발전의 길을 알 수 있는 동시에 조국 애호 전쟁의 전선에서 또 전쟁 후 평화 건설에서의 그들의 활동을 우리가 명확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고리끼의 소설 「어머니」에 묘사된 주인공들이 체포되어 공판을 받았다. 그러나 독자들은 그 장면을 읽음으로써 승리를 위한 로동 계급의 위대한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자본주의적 제도가 부패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파제예브의 소설 「괴멸」은 볼쉐위크 레빈손이 령솔하는 빨찌산 부대가 진멸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 진멸에서 또다시 장래의 투쟁과 미래의 승리의 전망을 똑똑히 볼 수 있다. 이상의 례들은 레알리즘이 혁명적 로만티즘의 요소를 자기의 구성 부분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나 일부 작가들은 인물을 묘사함에 있어서 현실을 떠나서 주인공을 랑만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작품들이 사상성에 있어서 저급한 것은 그것이 현실을 외곡하여 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실례로서는 까사께비츠의 중편 소설 「초원의 두사람」이다. 작자는 조국 전쟁에서 조국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전사들을 랑만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소설에서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전형적 환경들을 옳지 않게 묘사하였기 때문에 그의 주인공도 역시 옳지 않게 묘사되였다. 다시 말하면 그가 묘사한 그러한 주인공은 있은 적이 없으며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필자는 주인공을 반드시 재판하여야 할 군사 법정의 판결을 주인공의 자신 자책하는 그의 정신 내의 내부적인 도덕적 「판결」과 바꿔 놓고 있으며 또한 필자는 주인공이 자문 자책했다고 해서 그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였기 때문이다. 이 추상적인 도덕화는 볼쉐위끼적 당적 및 도덕적 평가와는 하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며 또한 그는 인간을 그의 실제적 사업 투쟁 및 활동과 유리되어 그리고 그의 사업 및 행동과 모순되게 (이 중편 소설에는 이러한 개소가 있다) 리상화하며 랑만화 한 만큼 사회주의적 미학 및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방법과도 하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주의적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들에서의 혁명적 랑만주의의 요소가 가지는 그 의의를 지적하였다. 좋은 작품이라면 거기에는 혁명적

랑만주의의 요소가 있는 것이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적 레알리즘은 혁명적 랑만주의를 자기의 구성 부분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레알리즘에서 혁명적 랑만주의 요소를 분리하여 리론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우리 문학론에 있어 옳지 않은 리론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가는 반드시 三개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 즉 그 중 하나는 과거의 현실, 둘째 것은 현재에 대한 현실, 세째 것은 미래에 대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一九三五년 쏘베트 문사 동맹 중앙 위원회에서 막심·고리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우리는 단지 두개의 현실, 과거와 현재 단을 알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작 속에서 확실히 참가하고 있는 그 현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또 제三의 현실 ― 미래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 나는 제三의 현실에 관한 이 말을 전혀 없는 것을 기지(機智)를 짜내어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들은 결정적인 명령으로서 시대의 혁명적 지령으로서 나에게 감촉된다。 우리는 반드시 이 제三의 현실을 바로 지금에 있어서도 우리의 세대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것을 반드시 묘사하여야 한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사회주의적 레알리즘이 어떠한 방법이라는 것을 리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고리끼는 자기의 창작의 전 시기를 통하여 제반 예술적 작품들에 제三 현실을 반영하였다。 그의 소설「어머니」「매의 노래」「해연의 노래」와 기타 작품들은 혁명전 시기에 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들은 一九一七년 十월 혁명이 쟁취한 새 사회주의적 현실의 창건으로 호소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레알리즘으로 창작된 작품들은 인민들에게 래일에 대한 제반 현실들을 예견하여 준다。

아·아·스다노브는 잡지「레닌그라드」와「별」에 대한 자기의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문학은 인민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달할 사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의 취미를 발전시키고, 그의 요구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사상으로써 인민을 풍부케 하고, 인민을 전진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쏘베트 인민의 고상한 성격들을 보이어 줄 것이며 우리 인민을 그들이 오늘에서만 보일 것이 아니라 그들이 래일을 내다볼 수 있게 할 것이며 그들의 앞길을 탐조등으로 밝히어 방조하는 것이 매개 진정한 쏘베트 작가들의 과업이다。 작가들은 사변의 뒤꽁무니를 따라다녀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인민에게 그의 발전의 길을 가르치면서 인민의 선진 대렬에서 반드시 나아가야 하며 우리 발전의 행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작가들은 반드시 인민을 교양하여야 하며 그를 사상적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쏘베트 인민들의 훌륭한 감정과 성격을 선택하면서 그들 앞에 그들의 래일을 전개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지나온 날의 유습과 쏘베트

인민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유습들을 반드시 타파하여야만 된다。 쏘베트의 작가들은 인민과 국가와 당이 우리의 청년으로 하여금 용감하고 자기의 힘을 신뢰하고 어떠한 곤난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교양하고 있는 것을 원조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작가들은「현실을 그의 혁명적 발전에서 묘사하여야 한다」(스다노브)

고리끼는 一九三四년 제一차 문사 동맹 대회에서 자기의 보고에 사회주의적 레알리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존재를 활동이며 창조이라고 확인한다。 창조의 목적은 자연력에 대한 인간의 승리를 위하며 그의 건강과 장수를 위하여, 지구상의 생활의 거대한 행복을 위하여 인간의 귀중한 개인 능력들을 부단히 발전시키는 일이다。 인간은 그의 수요의 부단한 장성에 따라 지구를 한개의 가족에 단합된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거처처럼 만들려고 모든 것을 다하게 된다」

이 사회주의적 레알리즘의 방법이 생활에 표현되게 된 것은 사상과 현실 간의 모순을 없애기 위한 토대가 준비된 력사적 조건들이 근본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새 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 과학적, 볼쉐위끼의 세계관에 의하여 얻어지었다。

해방 후 조선의 문학 예술 발전에 있어서 고상한 레알리즘의 방법을 탐구하게 되는 것은 쏘련의 위대한 무력에 의하여 조선 인민의 사상과 현실 간의 모순을 퇴치하기에 필요한 토대가 준비된 력사적 조건이 근본적으로 형성된 환경에서 제기된 문제이다。력사적 전제 조건들이 형성된 조건 하에서 우리 조선 작가들은 고상한 사실주의적 방법으로 적지 않은 작품들을 창작하여 내였다。 그 중에서 회곡「성장」을 실례로 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회곡「성장」은 一九四八년도 八·一五축전에서 一등상을 받은 작품이다。 회곡「성장」은 조선의 민주 건설을 고상한 사실주의적 방법으로 묘사하였다。「성장」은 북조선 무대에서 오랫 동안 상연되었다。 여기에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이 회곡이 고상한 사실주의적 방법으로 창작된 예술 작품으로서 그 자체 내에 내포하고 있는 혁명적 랑만주의의 요소이다。

작자는 북조선의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을 혁명적 랑만으로 과장시켰다。

이 회곡에 나타난 바로인은 일제 시대에 지주들의 무지한 학대와 가혹한 착취 밑에서 불구자가 된 인간이었다。 그러나 쏘련의 위대한 무력에 의한 八·一五 해방과 그 뒤를 이어 생긴 토지 개혁은 바로인에게 새로운 생명수를 가져다 주었다。 이 생명수를 마신 바로인은 병상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던 것이 손자 거북이로부터 천대받고 학대받던 땅 없고 땅 적은 농민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분배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지부지 간에 일어나 인민 위원장을 찾아왔다。 즉 이러한 장면은 료

지 개혁의 위력을 혁명적 랑만으로 묘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박로인과 같이 학대받고 굶주리던 농민이 해방과 토지 개혁으로 인하여 새로운 새 생활의 길로 힘차게 걸어 간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사실에 있어서 조선의 빈농민들은 토지 개혁에서 힘을 얻어 새 생활, 민주 건설에서 힘차게 싸우고 있다。 또 거북이의 형상에서 토지 개혁 후 조선의 농촌 청년들의 운명을 독자들은 상상할 수 있다。

그밖에 조쏘 친선을 고상한 사실주의적으로 노래한 시 한편을 례로 들려고 한다。 시인 홍순철 동무는 조쏘 친선과 쏘베트 문화 순간에 제하여 「쏘베트 장병들에게」란 시를 발표하였다。 이 시에는 조쏘 친선이 어떻게 맺어졌으며 앞으로 어떠한 예견을 주리라는 것을 잘 노래하였다。 나는 이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한다。

「따와리쉬취」의 단 외마디로도
감격의 밤을 내쳐 새워가며
흉허물 없는 그대들과 우리는
다만 한뜻 한맘에 합쳐졌길래……

우리들의 수첩에 굵다랗게 적어진
영예로운 十월의 아들 딸인
쏘베트의 용사——그 이름들은
크레믈리의 찬[illegible] 붉은 별처럼
무궁한 우리의 사랑 속에 살리라
……………………

해바라기 씨를 까는 어린것들도
한칭 무르익은 가을의 창공에
먼길 떠난 어버이를 그리는 양
"쎄미치끼"의 이야기를 퍼뜨리는 날
……………………

참 고 자 료

불가리야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빌꼬·체르벤꼬브의 보고

불가리야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빌꼬·체르벤꼬브는 불가리야 공산당 중앙위원회 一월 전원 회의에서 「뜨라이쵸·끄쓰또브 도당의 폭로와 그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의 기본 교훈과 당 사업에 있어서의 제결함 및 우리의 임무에 관하여」라는 보고를 진술하였다。

빌꼬·체르벤꼬브 동지는 자기 보고에서 뜨라이쵸·끄쓰또브의 간첩배들을 폭로 분쇄한 것은 공산당 및 불가리야 인민의 커다란 성공이라고 언명하였다。

당중으로 교묘하게 정체를 감추고 있던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적의 간첩은 분쇄되었다。

체르벤꼬브 동지는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현재의 유고슬라비야의 운명에 빠질 위험에서 다시 말하면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진영으로부터 우리의 위대한 해방자· 쏘베트 동맹으로부터 고립되며 영미 제국주의자와 그들의 앞잡이 찌또 도배의 략탈적 손아귀에 들어가 버릴 그러한 무서운 위험에서 벗어났다 고 하였다。

이미 라이크 및 그 공모자들에 대한 부다페스트 공판에서 그 존재가 문서로써 확증된 제국주의자들의 계획、즉 배신적 찌또 도당의 원조에 의하여 쏘베트 동맹으로부터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을 리탈케 하며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 자본주의를 부흥시키며 이 나라들을 쏘베트 동맹에 대한 영 미의 침공 기지로 만들려는 이 계획은 항가리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서도 완전히 파탄되고 말았다。영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도구로서의 찌또 파씨쓰트 도당의 추악한 역할은 다시 한번 폭로되었다。 찌또 도배들의 불가리야 명토에 대한 략탈적 야망은 폭로되었다。

확실히 뜨라이쵸·끄쓰또브 도당의 분쇄는 우리 인민 민주주의의 힘과 공산당의 힘을 표시하는 것이며 또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진영、즉 위대한 쏘베트 동맹에 대한 우리 나라 근로 인민의 신뢰와 충실을 유지하고 우리 나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을 고수하려는 공산당의 결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뜨라이쵸·끄쓰또브 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은 공산당을 더욱 단련시키며、그의 경각성을 더욱 높여주며、그를 더욱 강력하게 하며、공고히 하며、현명하게 하고 있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공산당의 주위에 더욱 긴밀히 결속되고 있다。 그들의 정치적 의식은 장성하고 있으며、그들의 경각성은 제고되고 있으며、국내에 있어서의 국가 규률은 공고화되고 있다。거창한 로력의 앙양、사회주의적 경쟁의 결과 및 새로운 생산 성과들은 이를 실증하는 것이다。 작년 十二월 十八일 선거에 있어서의 조국 전선의 혁혁한 승리는 이를 실증하는 것이다。

뜨라이쵸·끄쓰또브 도당의 폭로 분쇄는 제국주의자들、새 전쟁 방화자들 및 발칸과 구라파의 안녕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의 새로운 패배이다。

그러나――하고 체르벤꼬브 동지는 말한다――만일 우리가 당으로서 다만 이러한 정확한 지적에만 그쳤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오유였었을 것이다。

우리는 뜨라이쵸·끄쓰또브의 간첩배들을 분쇄할 수 있었다。 당은 능히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보고자는 강조하였다――뜨라이쵸·끄쓰또브 사건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째서――체르벤꼬브 동지는 묻는다――불가리야 공산당은 아메리카의 간첩 게메또로부터 목사 간첩배에 이르기까지의 자기의 공개적 적을 분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 숨어 있는 뜨라이쵸·끄쓰또브 및 그의 공모자들을 오랫동안 폭로하지 못하고 있었는가?

우리 당은 오랜 당이다。 우리 당은 각종 반당적 경향 및 그루빠와의 투쟁 경험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 우리 당은 적대적 경향 및 분파들에 대한 전동맹 공산당 (볼쉐위끼) 의 투쟁의 풍부한 전세계사적 경험을 참작하였으며 또 언제나 참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당은 뜨로쯔끼―부하린적 간첩들 및 해독 분자들에 대한 전동맹 공산당 (볼쉐위끼) 의 투쟁 경험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레닌과 쓰딸린을 배워왔으며 또 때우고 있다。 적은 내부로부터 당을 와해시키며 당에다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공산당 대렬 내에 스며들어오기 위하여 흉악한 노력과 온갖 간책을 다 기울인다는 것、적은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특히 발악을 부리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지위에 스며들어 자리 잡으며 될 수 있는 대로 교묘히 해를 끼치며 당이 가장 곤난하고 위험한 시기에 처하였을 때에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적은 특히 가장을 하기 시작하며 표리 부동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며 위경을 살작 살작 피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것은 곧 레닌과 쓰딸린이 가르

친바이로되 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의 경험과 국제 로동 운동의 경험은 그들의 이 교시를 전적으로 확증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들은 또 적이 무엇보다도 먼저 당내의 동요 분자 즉 정도는 어떻든 간에 하여튼 당의 로선으로부터 떨어지고 반당 그루빠에 참가하고 있으며 뜨로쯔끼패와 종파주의패와 및 기타 반당적 진지에서 있는 분자들을 리용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 중앙 위원회가 오랫동안 뜨라이쵸·끄쓰또브 및 그의 공모자들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고자는 뜨라이쵸·끄쓰또브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제징조와 경보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에서도 이것들은 알려져 있었다。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며 부정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랫동안 고려에 넣어지지 않았으며 뜨라이쵸·끄쓰또브의 정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동기로는 되지 못하였다。

우리의 정치적 감각과 혁명적 경각성은 제 수준에 도달하여 있지 못하였다。

우리들의 이와 같은 약점과 오유를 우리들은 충분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성찰하고 인식해야 한다。

우리들은 우리가 자본주의적 요소를 앞으로 더욱 공격함에 따라 계급 투쟁이 필연적으로 첨예화 하리라는 데 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 민주주의 정권을 반대하는 우리의 원쑤들의 새로운 투쟁 형식에 대하여 중앙 위원회와 전당을 준비시키도록 제반 대책을 제때에 실시하지 못하였다。

一九四四년 九월 九일 이후에 우리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다음과 같은 생각 즉 우리 나라는 어느 날씨좋은 날에 우리를 사회주의로 인도할 것인 특별한 거의 자적인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의 전체 실천 활동을 중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九월 九일 이후에는 계급 투쟁이 가두새 더욱 소멸되리라는 예상에서 나온 것이며 우리들은 쏘베트 동맹과는 달리 프로레타리아 독재 없이 무사히 이를테면 유기적으로 우리들의 성공의 단순한 량적 및 점차적 장성에 의하여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에서 나온 것이다。 九월 九일 이후로 사회주의적 건설에 마치 공손해진 듯이 가장하는 부르죠아 계급의 대표자들과의 협조의 필연성은 이러한 데서 나온 것이며 이리하여 사회주의로의 그들의 이를테면 평화적인 이행이 개시되었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十六차 전원 회의에서 게오르기·지미뜨로브 동지는 이러한 생각을 해롭고 위험한 것으로서 규탄 분쇄하였다。

볼가리야에 있어서는 쏘베트 동맹의 로동자 및 농민들이 사회주의로 가는 길과는 그 어떤 특수한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박멸되지 않는한 첨예화하는 계급 투쟁에 대하여 당을 참으로 그리고 충분히 준비시키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으며 또 적이 어떤 가면을 쓰고 나서더라도 그를 능히 판별할 만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도리어 이와 같은 형편은 우리 나라 인민들의 경각성을 무디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것은 적에게 자기 진지를 공고히 하며 우리를 반대하는 새로운 투쟁 형식을 리용할 가능성을 주고 있었다。

우리 당은 그 본질에 있어서 민족주의와 같은 그런 전염병에는 걸릴 념려가 없다고 우리는 보아 왔다。 부르죠아 반대파가 분쇄되고 국유화가 실시된 후인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대한 주되는 위험은 공개적인 적이 아니고 숨어 있는 적, 즉 당증을 가진 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전에는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전에는 이와 같은 위험을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때문에 우리는 뜨라이쵸·끄쓰또브 도당에게 불의에 습격을 당하고 말았으며 그것을 알아 채지 못하였었다。

우리들은 九월 九일 이후 당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열려졌었다는 사정에서 나오는 모든 결론을 짓지 않았었다。 뜨라이쵸·끄쓰또브는 광범히 아무런 제한 없이 신당원을 흡수하는 데 대한 열렬한 찬성자이였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원 흡수가 아무런 요구 조건도 없이 행해졌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단순히 공개 회의 석상에서 행해진 곳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는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우연 분자, 견결치 못한 분자, 부패 분자, 출세주의 분자들도 또한 들어오게 되었다。 적도 또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제국주의 정보 본부들에 소속한 당 내외의 적들이 우리의 관대성을 리용하여 우리 당 대렬 내에 자기의 앞잡이들을 파견하였다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는 아주 명백한 바이다。

경각성에 대한, 적을 반대하는 투쟁에 대한 우리의 호소는 충분한 것일 수 없었으며 항상 효과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호소는 다만 우리를 공공연히 반대하여 나서는 자들만을 적으로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우선 그리고 주로 당 밖에서 적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 당, 우리 인민들을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십분 철저하게 꾸준히 일상적으로 교양하지 못하였었다。 즉 우리가 앞으로 더 전진하면 할수록 적은 더욱 발광적으로 가장 추악한 방법과 수단을 취할 것이며 갖은 책동과 간계를 부릴 것이며 가장 교묘하게 가장하리라는 그 점이다。

우리는 쏘베트 동맹에서 그러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

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러나 우리 나라는 례외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며 우리 나라는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었다●

모든 국제 로동 운동의 경험에 의하여 우리는 부르죠아지가 공산당 내부에 도발자들을 잠입시킴으로써 또 곤난한 환경을 리용하여 동요 분자들을 자기의 간첩으로 정모함으로써 공산당들을 분렬케 하려고 부단히 책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一九四四년 九월 九일 이후, 즉 二十년 이상의 파씨쓰트 독재기를 지나서 우리 당이 지하로부터 나와 국가의 선두에 서게 된 그 때에, 우리들은 우리 당 간부들을 위로부터 밑에까지 밑에서부터 위까지 엄밀히 검열하지 않았었던 것이다。

뜨라이쵸·꼬쓰또브 도당과의 투쟁 교훈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우리들의 약점 결점 및 오유들을 특히 명료하게 알 수 있다●

우선 지적하여야 할 것은 九월 九일 이후 장구한 시일에 걸쳐서 당 중앙 위원회와 그의 집행 기관이며 장무 기관인 정치국 내에 옳지 못하고 마땅치 않은 사업 방식들이 존재해 있었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지적해야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서는 게오르기·지미뜨로브 동지가 제十六차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당으로 하여금 심각한 주의를 돌리게 하였던 것이다。

당 지도부에는 사업에 있어서의 필요한 협의제가 결여되어 있는바 이로 말미암아 중앙 위원회와」 그의 정치국은 불가리야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생활에 있어서 충분히 권위있는 지도자가 되지 못하였었다。

우리 중상 위원회는 필요한 기관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였었으며 지금도 아직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중앙 위원회의 역할을 명백히 파소 평가한 것의 직접적 결과이다。

중앙 위원회는 최근 까지도 당 건설 문제를 거의 신중히 취급하지 않았으며 당의 사회적 구성 및 매개 당 조직 사업 문제를 거의 신중히 취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형편 하에서는 당 조직들의 경험이 전혀 불충분하게 고려되고 중앙 위원회와 당 조직 사이의 련계가 제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으며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며 비판과 자기 비판이 ——우리들의 호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아직 낮은 단계에 처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타방에 있어서 중앙 위원회도 그의 결정도 항상 무시되고 있었다。

우리 나라의 여러 사회 단체、국가 기관、지어 당 조직에게 까지도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사실에 있어서 현존하는 여러개의 지도 기관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

이었다。 우리에게는 중앙 위원회 위원——대신 또는 기타의 책임 일군——이 중앙 위원회의 의사도 묻지 않고 어떤 문제들을 혼자서 결정하는 현상이 빈번히 있었다。 이와 같은 사업 작풍은 불쉐위즘과 인연이 없으며 레닌—쓰딸린적 사업 방식과도 인연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사업 작풍이 있었으며 또 계속 존재하고 있다。

정치국과 중앙 위원회의 사업에 있어서 협의제를 엄수하지 않는 사업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해로운 사실들을 가져 올 수 있었다。 즉 상업 대신은 정부가 승인한 一九四九년도 계획에 위반하여 국가적 용납을 임의로 三분지 二로 축소한 것、또는 계획 위원회 위원장이 一九四七——四九년에 있어서 수十여의 거액을 요하는 건설을 임의로 해결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 작풍이 있는 이상——체르웬꼬브 동지는 말하였다。——뜨라이쵸·꼬쓰또브가 자기의 반혁명망을 깜쪽 같이 조직하고 자기의 도당을 규합하여 몰래 우리를 해치며 우리의 대렬을 혼란시켰다는 사실이라든가 또는 그가 공식 결정서 가운데다 그의 몇몇 흉악한 계책과 기도까지를 끌어 넣을 수 있었다든가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업 작풍이 있는 이상 내각 안에 있는 악명 높은 경제 및 재정 문제 위원회가 사실상 제二의 정부로 화해버렸고 또 많은 문제들이 정치국 없이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게오르기·지미뜨로브 동지 없이 즉 우리의 스승이며 우리의 령도자인 게오르기·지미뜨로브 동지 몰래 결정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업 작풍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가 신속히 음모의 단서를 발견하여 뜨라이쵸·꼬쓰또브의 정체를 제때에 알아 내며 그의 도당을 폭로 분쇄하며 이완·스떼파노브 뻬또꼬·꾸닌 도당의 해독적인 행동을 폭로 분쇄할 수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가? 정치 국원들과 중앙 위원회 위원들은 오랫동안 당 지도부 내에 적의 활동을 용이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적의 활동을 제때에 폭로 분쇄할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지 않은 해로운 비볼쉐위끼적 사업 방식이 존재하여 왔으며 또 그것을 용인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그리고 또 당 지도부 내의 협의적인 사업을 조금이라도 파괴하거나 중앙 위원회를 조금이라도 파소 평가하는 것의 해독을 철저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불가리야 공산당 중앙위원회 없이는 그의 동의와 승인이 없이는 우리 나라에게 중요한 어떤 한 결정도 채택될 수 없으며 우리 조국과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어떤 한 결정도 채택될 수 없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철칙으로 되어야 한다。

당 중앙 위원회의 사업에 있어서는 협의제의 원칙을

위반하는 이외에도 약간의 자유주의적 요소와 호상 양보의 요소, 온화주의의 요소가 지금에 이르도록 아직 완전히는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가끔 부패한 비당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군 한다。 즉 그 동무가 망신을 당해서는 안되겠는데, 그 동무를 망쳐서는 안되겠는데, 그 동무는 과거에 큰 공적을 세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 작풍은 불쉐위끼적이 아니며 또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 만일 우리 당은 국가의 정권을 잡고 있는 당이라는것, 비단 모든 다른 조직들과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를 본받고 있으며 또 본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오유를 범할적 마다 우리가 실책을 할적 마다 근로자들은 곤난한 처지에 빠지게 되며 또 그들은 우리의 과오와 실책의 결과때문에 커다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사업 작풍은 더욱 위험한 것으로 된다。

례컨대 —— 체르벤꼬브 동지는 말하였다。 —— 정치국은 지도자인 도브리·쩨르뻬세브의 거듭되는 오유와 약점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는 관대성으로써 대하였다。 정치국은 다만 자기의 좁은 범위 내에서 주의, 경고, 설복 등을 하는데 그치었었다。

도브리·쩨르뻬세브 동지는 국가 계획 위원회 사업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써 엄중한 오유를 허다히 범하였다。

제五차 당 대회 직전 즉 뜨라이쵸·꼬쓰또브의 반쏘적 활동이 드러난 후에 도브리·쩨르뻬세브 동지는 정치국에서 언명하기를 그는 우리가 자본주의 제국과 거래하는 가격을 쏘베트 동맹에 대하여 비밀히 하라는 뜨라이쵸·꼬쓰또브의 지령을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 그는 정치국에 와서 이 지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하지 않았다。 우리는 도브리·쩨르뻬세브 동지의 책임을 추궁하였었는가? 그를 처벌하였었는가? 그 어디선가 도브리·쩨르뻬세브 동지를 비판하였었는가? 자기 비판을 시키고 왜 그렇게 행동하였는지 대답하게 하였는가? 아니다。 오늘날까지 당은 그가 왜 그와 같이 행동하였는가를 모르고 있다。 우리는 이 경우에 있어서도 도브리·쩨르뻬세브 동지를 관용하고 용서하였다。 —— 당과 국가를 희생시키며 또 간부를 옳게 교양하는데 손해를 주면서 도브리·쩨르뻬세브 동지는 그가 말하여서는 안되는 일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지 못하고 말한 죄상이 드러난 적이 한두번이었던가?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를 처벌하였는가? 아니다。 우리는 관대히 하였으며, 용서하였으며 너그럽게 대하였다。 이와 같은 작풍은 부패하고 유해한 것이며 이와 같은 유해한 자유주의는 단연 이를 로정내서 송두리채 뽑아 버려야한다는 것은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이와 같은 사업 작풍은 오직 우리 당의 적에게 만 리로울 따름이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이와 같은 자유주의는 비단 도브리·쩨르뻬세브 동지에 대해서만 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 체르벤꼬브 동지는 또 말하였다 —— 간부 사업에 있어서 큰 결함이 있었고 또 아직 있다는 것과 또 아주 명백히 이러한 사실은 교묘히 가장한 적들의 활동에 대하여 유리한 환경을 지어주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지적하여야 할 것은 장기에 걸쳐서 새로운 간부를 당과 정부의 지도부에 등용하며 로동 계급의 대렬로부터 새 간부들을 등용하는 사업에 있어서 결단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지도 간부들이 자기의 사업을 아는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늘에서 떨어지기나 할것 같다。 우리는 물론 부르죠아적 정신으로 교양된 구 전문가들을 인민 경제에 리용하며, 또 그들이 재교양되며, 사회주의의 위업에 가담하도록 도와주어야 하였으며 또 하여야 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중대한 오유를 범하였다。 즉 우리 편인체 하는 약간의 구 전문가들을 무비판적으로 쓰는데 이르렀으며 우리는 그들을 지나치게 믿었다。 또 지나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 경제의 많은 결정적 부문에서 그들을 전권을 가진 지도자로 남겨 두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 전문가들에게 믿을 수 있는 우리 일군들을 도서에서 부칠 수가 없었는바 이 일군들은 아직은 전문 기술을 소유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한편으로는 그 전문가들에 대한 감시를 하며 또 한편으로는 팔을 걷고 나서서 스스로 학습에 착수한다면 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로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경제의 각 부문과 경제적 및 국가적 지도부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로동 계급 출신으로서 양성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데 늦어졌다。

근로자의 자녀들만이 고등 교육 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그러한 규정이 작년에야 비로소 고등 교육에 관한 법령으로서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충분하다。 우리 인민 경제와 국가 관리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로동 계급 출신으로서 양성하는 과업을 우리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였다。

당 간부들을 검열하며 당 일군들을 주의 깊이 연구하며 또 그들의 장성과 그들의 옳바른 발전과 그들의 결점에 대한 적시의 비판과 그들에 대한 석시의 방조 등에 로심하는 것—— 당 지도 사업의 이와 같은 중요한 부분이 우리 당에서는 낮은 단계에 처하여 있다。

중앙 위원회 간부부와 당의 각 간부부의 사업이 일반적으로 불만족한 상태에 있다。 이 사업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위원회는 경찰 내에서의 자기의 이전의 절제 행동과 자기의 경찰과의 관계를 당에 대하여 은폐하고 있으며 또 과쩌쓰르적 「공안(公安)」기관들 및 외국 정탐에 복무하였다고 한 자기의 약속을 당에 대하여 은폐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제때에 적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부다페스트와 쏘피야에서의 공판이 보여준 것은 저이 자기의 활동에서 특히 이전의 뜨로쯔끼주의자들, 분파 분자들, 우익 기회주의자들, 좌익 종파 분자들, 그리고 서구라파 자본주의 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자들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주의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기의 반당적 과거와 관계를 끊었는가 어떤가가 미분명 하거나 또는 전연 분명치 않은 자들을 책임적 사업에 등용하여서는 안된다. 만일 우리 중앙 위원회에서 간부 연구의 문제가 옳게 제기되었었다면 우리는 이전에 벌써 도발자 도당의 존재를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니면 안된다. 즉 당 내의 간부 사업과 중앙 위원회 내의 간부 사업을 철저히 재조직하고 개선하는 그 것이다.

동지들 우리에게는 적들에게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있을 가능성을 준 또 하나의 약점이 있었다. 나는 중앙 위원회에 들어오는 신호, 여러가지 경고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신호에 대하여 언제나 필요한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니였다. 신호에 대하여 민감치 못한 것이 큰 결점이다. 이것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으며 또 중대한 위험과 실패를 청산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훈을 끌어내서 당 단체들이나 당원들이나 근로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신호에 대해서 취하는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계오르기·지미뜨로브 동지가 우리 당 제五차 대회에서 특히 강조한 바로써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기본적 약점은 우리가 리론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이다. 물론 주요한 것은 당의 총로선과 당의 정책이 정확하다는 데 있다. 우리 당의 총로선과 우리 당의 정책은 정확하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실현은 변화하고 있는, 정세와 사회주의로의 우리의 전진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심각한 맑쓰—레닌주의적 분석으로써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당 지도자들의 리론적 지식과 리론적 성숙은 그들이 옳은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한 사활적 필요사이다.

계오르기·자미뜨로브 동지는 지적하기를 우리의 리론적 개괄은 많은 점에 있어서 우연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우리의 리론적 사고는 현저히 실천에 뒤떨어져 있으며 우리는 맑쓰—레닌주의적 학설을 우리 나라의 제조건에 불충분하게 밖에 적용할 수 없었으며 맑쓰—레닌주의적 학설을 많은 중요한 경우에 옳게 적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 원인은 정치국이나 중앙 위원회 내에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공동적으로 심의하고 해결하는 일이 없었다는 데 있으며 또 우리 정책의 중요한 문제들을 공동적으로 리론적으로 맑쓰—레닌주의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과소 평가하였다는 데 있었다.

우리들 정치 국원과 중앙 위원들은—라고 체르벤꼬브 동지는 말하였다. —위에서 지적한 약점과 오유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바 이 약점과 오유로써 뜨라이쵸·꼬쓰또브 사건을 일찌기 적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설명되는 것이다. 우리들 중앙 위원과 대신들, 우리들 전부는 자기가 직접 지도하고 있는 인민 경제부문과 국가 건설 부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중앙 위원회와 당과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업하였으며 또 사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책임을 물을 의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들 중의 누구도 중앙 위원회 뒤에, 정치국 뒤에 자기를 숨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뜨라이쵸·꼬쓰또브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요구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대의 책임을 요구하여야 할 두가지 부문이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활동과 인민 경제를 지도하는 활동이다. 우리는 내무성이 선에 어떻게 사업하였는가를 물을 권리가 있다. 뜨라이쵸·꼬쓰또브의 반쏘적 지령들이 경제 관계 성들과 기관들 내에 퍼졌는데 내무성 측으로부터는 하등의 경보가 없은 것은 어떤 리유인가? 보안 기관들 내의 책임적 부서에 외국 스파이들이 어떻게 잠입하게 되였는가? 어떻게 그 자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 배겼는가? 四년 이상이나 유고브 동지는 내무 대신으로 있었다. 따라서 유고브 동지는 이 사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뜨라이쵸·꼬쓰또브 도당은 경제 분야에서 극히 큰 손해를 끼쳤다. 도브리·쩨로떼세브 동지는 계획 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그 전에는 최고 경제 회의 의장이었다. 대체 무엇때문에 도브리·쩨르떼세브 동지는 경종을 울리지 않았는가? 정치 국원인 그가 뜨라이쵸·꼬쓰또브의 반쏘적 지령을 알면서도 이 지령에 관해서 정치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도브리·쩨르떼세브는 국가 계획 위원회에서 한 자기의 사업에 대해서 당 중앙 위원회에 보고를 제출하고 자기가 계획 위원회에서 지도다운 지도를 못하였기 때문에 인민 경제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가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계획 위원회의 지도를 위임맡은 정치 국원인 불쉬위끼가 응당 하여야 할만한 정도로 우리 나라의 국가적 리익의 초소에서 있었는가?를 도브리·쩨르떼세브 동지는 말하여 보라.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계획 위원회가 누구에게도 문의하지도 않고 명백히 축소된 계획들을 승인하였으며 또 한편 정치국과 정부의 승인을 맡은 어떠한 계획도 예산도 없이 수十억의 지출을 승인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재로와 자금을 탕진 소비하고 동결시킨데 대한 주요 책임자는 대체 누구인가? 왜 우리 나라에서는 화폐 류통이 계획화 되지 않았었는가? 왜 계획 위원회는 이 문제를 제기조차 하지않았는가? 상

를 류통 계획을 악화시킨데 대해서 누가 제일 먼저 책임을 지는가? 임금기금에 대해서는? 재산 목록 작성시에 드러난 그 추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누가 주요 책임을 지는가? 통계가 없는 것은 우리가 눈과 손이 없는것과 꼭 같은데 통계다운 통계가 없었다는데 대해서는 그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 경제에 대해서 결정적 문제이며 사활적 문제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현저한 성공들을 방패로 삼으려고 한다. 우리는 해독 행위와 추악한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현저한 성공들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얼나나 생활력이 있으며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의 헌신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증명할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방패로 삼아 가지고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경제에 끼친 막대한 해독을 덮어두고 싶어한다. 이것은 용허할 수 없는 일이다. 해독 분자들을 철저히 근절하고 또 맑쓰주의의 립상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 있」으며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도적 지위를 향락하는 잘난체 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주저함이 없이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능숙한 사람을, 자기의 책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써 만이 우리는 실패를 없이하며 우리 나라의 경제적 앙양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저도 있어서는 안된다!

중앙 위원회 정치국은 위에 지적한 약점과 오유들을 극복하고 옳지못한 사업 방법을 부단히 없이하고 뜨라이초•꼬스또브의 정체를 폭로함으로써 그의 비렬한 간첩 도당을 적발하였으며 그 도당의 섬멸을 조직하였다. 뜨라이초•꼬스또브 도당의 본부는 전멸되였다. 뜨라이초•꼬스또브 도당의 음모를 끝까지 적발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취하였다. 이 음모의 형적이 어데서 나타나든지 간에 전국에서 그것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는 이 음모에 대한 공격은 중지되지 않을 것이다. 뜨라이초•꼬스또브 도당의 섬멸은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 자본주의의 앞잡이들에 대한 무자비한 섬멸을 의미하며 또 의미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당,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그리고 전국에서 적의 크고 적은 꽁지를 소탕하여야 하며 또 끝까지 소탕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은 안도감을 가지고서 인민의 적들에 대한 당의 결정적 투쟁을 맞이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중앙 위원회가 게오르기•지미뜨로브 동지의 기치를 튼튼히 쥐고 있는 것을 안도감을 가지고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체르벤꼬브 동지는 불가리야 공산당의 제 과업에 관하여 말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를 강화하며——라고 그는 지적하였다——중앙 위원회 사업에서의 협의제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양보와 타협을 인정하지 않는 심각한 원칙적 태도를 튼튼히 하여야 하며 언제나 이미 달성된 것에 만족하여서는 안되며 결점들에 대하여 비타협적이어야 하며 인민과 조국에 대한 책임을 언제나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국가와 인민의 운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회주의의 토대를 건설하고 있는 현하의 환경에 있어서는 지식이 없이는,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의 학설을 습득함이 없이는 지도할 수 없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과학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은 중앙 위원 자신이 책에서, 실생활에서, 인민에게서 배워야 하며 또 무엇보다도 위대한 쏘베트 동맹의 세계사적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정치국과 중앙 위원회의 사업에서 협의제를 강화하면서 그와 동시에 개인적 책임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앙 위원회는 굳게 뭉쳐야 한다. 온갖 의견 차이를 없이 해야 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동을 없이해야 한다. 중앙 위원회는 우리 나라의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중앙 위원회의 수중에는 인민과 국가의 운명이 있는 것이다. 중앙 위원회는 모범적으로 사업하기 위하여 모든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장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는——보고자는 말하였다——당을 공고화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비판과 자기 비판을 전개하며 혁명적 경각심을 제고하는 것이다.

우리는 당 단체들에 대한 중앙 위원회의 지도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떠한 명령식이든지 그 최후의 잔재까지도 철저히 청산하여야 한다.

사업에 있어서의 협의제를 중앙 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당 지도 기관에 침투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명령식의 요소들은 구역 및 지방 당 지도 기관에 확실히 더 현저하다. 이 명령식의 요소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청산하여야 한다.

당을 공고화한다는 것은 일층 더 꾸준히 당내 민주주의를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물에 불관하고 비판과 자기 비판을 당내에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극히 광범한 비판과 자기 비판이 없이는 뜨라이초•꼬스또브 도당을 당으로부터 철저히 소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판과 자기 비판이 없이는 당내의 혁명적 경각심을 강화시킬 수는 없다. 어느 정도라도 비판을 방해하며 당내에서 비판을 질식시키는 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를 물론하고 엄격히 무자비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체르벤꼬브 동지는 비판과 자기 비판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의 당 출판물의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고 로동자 농민 통신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가르치기를 영도자들이, 지도자들이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또 그들이 대중으로부터 유리되지 않으며 대중이, 그들로부터 리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비판과 자기 비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가르치기를 밑으로부터의 비판과 자기 비판이 용감하게 전개되어야 하며 지도자들은 그것을 주의 깊게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十명이나 二十명의 지도적 동지들은——쓰딸린 동지는 말하였다——우리들의 사업의 결점을 보고 또 지적하고 있는데 노동자 대중은 결점을 보려고도 지적하려고도 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볼 수도 지적할 수도 없는때——이 경우에는 반드시 간과하거나 또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온갖 가능성이 있다——와 수십 수백만 노동자들이 十명이나 二十명의 지도적 동지들과 함께 우리들의 사업의 결점을 보고 또 지적하여 우리들의 오유를 발견하고 전반적 건설 사업에 참가하여 사업 개선의 방법을 세우는 때와는 문제가 다르다. 후자의 경우에는 불의의 사건이 없어지며 부정적 현상이 제때에 지적되며 이러한 현상을 청산하기 위한 대책이 제때에 강구되리라는 보장이 더 많을 것이다」(쓰딸린 전집 제一一권 三五——三六페지)

비판과 자기 비판의 도움으로써 로동 계급은 국가 경제 및 산업을 관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로동 계급으로 하여금 관리하는 것을 배우려 하자면 그들의 능력과 힘에다 우리들의 오유와 결점을 비판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러면 결점을 비판하여 그것을 제거하며 사업을 개선하여 그것을 앞으로 전진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건설 및 국가 관리에 로동 계급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 그들 속에 주인이라는 감정이 장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지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관료주의를 반대하여 맹렬히 투쟁하여야 한다. 즉 당 직업동맹 국가 기관 및 경영체 등 도처에서 인간에 대하여 취하여지고 있는 저 우둔하고도 비량심적인 꾸르죠아 귀족주의적 태도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관료주의와 투쟁할 필요성을 말하면서 체르벤꼬브 동지는 쓰딸린 동지의 다음과 같은 교시를 상기시켰다. 즉 「우리 단체들의 관료주의적 타락화에 대한 근로 대중의 분노를 격발시키자면 우리는 과거에는 공로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관료주의의 병에 걸려있는 몇몇 동지들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면 안될 때도 있을 것이다」(쓰딸린 전집 제一一권 七三페지)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비판을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고 체르벤꼬브 동지는 말하였다.

우리는 우리 로동자들 우리 나라의 전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즉 비판하라! 용감하게 공공연하게 비판하라! 우리들의 사업의 고질과 결점을! 비판을 두려워 하지 말라! 성확하고 솜씨 있게 표현할 수 없다고 해서 비판을 주저하지 말라! 성실하게 량심적으로 말하기만 하면 된다. 도울 줄 의욕만 있으면 그만이다.——약점을 비판하라, 그것과 타협하지 말라, 그것을 간과하지 말라! 이러한 비판에는 아무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비판을 방해하는 자나 비판을 질식시키려고 피하는 자는 공로를 위하여 고민하고 있으며 또 반드시 고민할 것이다.

위로부터의 비판——우리들 자신 지도자들이 하는 비판은 불충분하다. 그것은 필요하기는 하나 그러나 불충분하다.

밑으로부터의 비판이야 말로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요한 것은 밑으로부터의 비판이다.

비판과 자기 비판——이것은 볼쉐위끼적인 특별한 간부 교양 방법이다. 우리 나라의 인민 민주주의의 환경에서는 비판과 자기 비판은 기본적 원동력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주요 과업 즉 건전하고 전면적인 가장 광범한 비판과 자기 비판을 전개할 것이라는 과업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근본적 리해 관계 사회주의의 리해 관계가 지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쓰딸린 동지는 가르치었다.

당을 공고화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하고 보고자는 지적한다——당 일꾼들 및 일반 당원들의 사상—정치적 맑쓰—레닌주의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다.

특히 필요한 것은 구역 및 지방 위원회, 위원들 속에서 자체 교양 사업을 조직하는 것이다. 우리 지도 간부들은 실제 사업 과정에서 볼쉐위즘을 습득하여 다만 맑쓰주의적으로 문맹을 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도로 문화적이며 정치적으로 단련되고 성숙된 지도자, 국제 국내 정세 하에서 독자적으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지도자로 되어야 한다. 동지들 여기에 우리 당 및 우리 나라의 장래가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또 체르벤꼬브 동지는 계속한다——우리 당으로부터 그 안에 침입하며 뿌리를 박고 있는 적들과 회색 분자들을 일소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우리 당 내의 뜨라이초·꼬쓰또브 도당을 아직 결말짓지 못하였다.

중앙 위원회로부터 초급 단체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당 간부들의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열과정에 있어서는 우려는 과거에 당내의 분파적 반당적 그루빠에 참가한 일이 있는자들에게 특히 엄격하게 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열에 있어서는 일괄적 전반적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엄밀히 개인별로 취급하여야 한다.

적에 대한 혁명적 경각심이 오늘날 당 내에서 비상

하게、날카롭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사회주의 건설은 가혹한 계급 투쟁의 조건 하에서 실현되는 것이다。계급 투쟁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첨예화할 것이다。쇠퇴하고 있는 자본주의 요소는 미친듯이 반항하고 있다。그들은 영미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당 내에 있어서의 부단한 경각심은 공기와도 같이 필요 불가결하다。온갖 자위에 대하여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인민 정권 및 우리 당의 적들에 대한 물샐틈 없는 경각심의 필요성에 대한 온갖 과소 평가를 반대하여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결점에 대한 관대한 타협적 태도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무원칙성、아유 등의 소부르죠아적 소시민적 잔재에 대하여 무자비하게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적들은 살아 있다。그들은 결정적으로 박멸되지는 않았다。우리 나라에는 아직 적들을 고무하여 주는 조건들이 청산되어 있지 않다。적들은 활동하고 있다。또라이쵸·꼬쓰또브 도당의 음모를 분쇄함으로써 우리는 적들에게 일대 타격을 주었다。그러나 지금 문제인 것은 그들에게 진지를 쌓을 가능성을 주지 않아야 하겠다는 데 있다。그들을 종국적으로 박멸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족주의 및 민족주의적 표현은 그것이 나타나는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팟쇼적 이데올로기로서 근절되지 않아서는 안된다。

민족주의는 쏘베트 동맹에 대한 적의、그 성과의 비방、전세계 로동자들 및 근로자들의 전형이며 모범인 위대한 十월 사회주의 혁명의 전세계사적 경험의 불승인 및 부인、자기 자신의 힘과 성과에 대한 과대 평가、타인의 힘과 성과에 대한 과소 평가、프로레타리아의 국제적 련대성의 부인 등에 나타나고 있다。민족주의—그것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진영에 대한 배반 반역의 이데올로기다。

민족주의는 당을 부르죠아적 반혁명적 당으로 변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민족주의—그것은 조국에 대한 반역이다。

또라이쵸·꼬쓰또브 운동—이것은 불가리야 민족주의이며、사회주의에 대한 반역이며、불가리야에 대한 반역이다。

체르벤꼬브 동지는 이 반역자 도당은 쓰딸린 동지와 전동맹 공산당 (볼쉐위끼) 중앙 위원회의 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폭로 분쇄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하여 불가리야 공산당은 쓰딸린 동지와 볼쉐위끼 당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그는 또 一九四八년 六월의 보도국 회의 결정의 커다란 의의를 지적하였다。

체르벤꼬브 동지는 말하기를 우리는 불가리야—쏘련 친선을 공고화하고 확대하고 로동자와 같이 지켜야 하겠으며 당은 프로레타리아적、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

하여야 하겠다고 하면서 오늘날의 국제주의의 가장 명백한 표현은 승리한 사회주의의 강력한 성채인 쏘베트 동맹과의 친선이며 쏘베트 동맹과 전동맹 공산당 (볼쉐위끼) 과 쓰딸린 동지에 대한 충실성 및 헌신이다라고 말하였다。말로써가 아니라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당을 일층 더 정력적으로 교양하며 준비시키지 않아서는 안된다。당은 프로레타리아적 국제주의와 쏘베트 동맹과 전동맹 공산당 (볼쉐위끼) 과 또 우리들의 위대하고 경애하는 스승이며 지도자인 쓰딸린 동지에게 어떤 환경에서나 끝까지 충실하여야 하며 헌신적이어야 한다。(전원 기립、쓰딸린 동지의 영예를 위한 우렁찬 오랜 박수)

우리는 게오르기·지미뜨로브 동지의 유훈을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

「우리들은—게오르기·지미뜨로브 동지는 중앙 위원회 제十六차 전원 회의에서의 자기의 보고에서 언명하였다—비록 공산주의 인터내쇼날은 없다고 하더라도 공산당들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단련된 가장 유력한 당인 레닌—쓰딸린 당의 지도 하에 통일적인 국제 공산주의 전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모든 공산당은 유일한 과학적 리론인 맑쓰—레닌주의를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는 것、또 모든 공산당은 만인이 인정하는 공통적 지도자이며 스승인—영예로운 볼쉐위끼 당과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인—쓰딸린 동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종종 망각하고 있다」

당을 공고화한다는 것은 당의 사회 성분을 옳게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우리가 오늘날 당에 흡수하여야 할 새로운 당원은 주로 로동자 층、즉 생산 과정에서 자기를 나타낸 돌격대원 및 생산 합리화 제안자 그리고 근로 농민 층이다。

당을 공고화한다는 것은 간부들을 정확하게 선발하는 임무와 채택된 결정의 집행 여부를 검열하는 임무를 쓰딸린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사업의 성공 여부는 간부가 결정하는 것이다。정확한 로선이 나온 다음에는 성공 여부는 사업의 조직과 간부의 정확한 배치와 집행의 제때의 검열에 달려 있다! 이렇게 쓰딸린 동지는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쓰딸린식으로 즉 실무적 또는 정치적 특징에 따라서 간부를 선발하여야 하며 채택된 결정의 집행 검열을 조직하여야 하며 우리 들의 조직 사업을 제수준에 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당을 공고화할 것이다。

체르벤꼬브 동지는 말하기를 우리 당은 인민 경제의 지도와 사회주의 원칙 위에서의 그 재전을 완전히 또 각방면에서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우리는 인민 경제를 훌륭하게 관리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공업과 농업、운수와 금융 및 그 례짓트 부문에서의 사회주

의적 건설을 훌륭하게 지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 당 간부들은 경제 문제에 관한 훌륭한 박식가 전문가가 되어야 하겠다. 우리는 자기의 경제학적 문맹성을 퇴치하고 경제 활동의 지도를 당적 조직적 사업 및 당적 정치적 사업과 정확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배워야 하겠다.

이러한 과업은 오늘날 우리들의 결정적 과업이다. 생산 즉 농업 공업에 있어서와 국가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테리겐챠를 주로 로동 계급 가운데서, 사회주의 경쟁의 주동자 및 조직자들 가운데서 만들어야 한다.

「로동 계급은—하고, 쓰딸린 동지는 가르치였다—만일 그들이 문화적 몽매를 벗어나지 못하며, 자기자신의 인테리겐챠를 만들어 내지못하며, 과학을 습득하지 못하며, 과학에 기초해서 경제를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국가의 주인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쓰딸린 전집 제一一권 七六페지)

지배 계급으로서의 로동 계급의 문화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중등 및 고급 학교의 문이 로동 청년들에게 널리 열려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우리들이 해결하여야 하며 또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제과업이라고 체루벤꼬브 동지는 말하였다.

우리는 이 과업들을 해결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당을 공고화할 것이며 사회주의의 길 위에서의 국가의 경제적 앙양을 보장할 것이다.

체르벤꼬브 동지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 중앙 위원회의 명의로 우리들의 위대한 스승이며 지도자인 쓰딸린 동지에게 심심한 감사와 충성과 경의를 표하며 쓰딸린 동지와 유일 무이한 볼쉐위끼 당에게서 부단히 꾸준히 더욱 더 열심히 더욱더 잘 배우겠다는 우리들의 굳은 의사를 표하는 바이다.

(폭풍 같은 오랜 박수 전원 기립)

(방점은 편집부의 것)

당 사업에 있어서 볼쉐위끼적 작풍에 대하여

엘·슬레뽀브

볼쉐위끼 당은 자기 세계관의 전일성으로써, 혁명적 리론과 혁명적 실천의 통일로써 특출하다. 이것이 오직 공산당에게만 있는 당 및 국가 사업에 있어서 특별한 레닌—쓰딸린적 작풍을 형성한다.

레닌—쓰딸린적 사업 작풍은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승리를 달성함에 있어 당의 능동적인 무기로 되였으며, 금일에 있어서도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그와 같은 능동적인 무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볼쉐위끼적 작풍의 능동성에서 레닌주의의 사상과 방법의 위대한 힘이 발현된다.

사업에 있어서 레닌—쓰딸린적 작풍의 특징과 특수성은 혁명적 전개력과 제기된 목표 달성에 있어서의 질무성 및 견실성과의 결합이다. 혁명적 전개력과 질무성과의 변증법적 통일에 있어서는 공산당이 축적하여 놓은 거대한 력사적 경험, 즉 세계의 어느 다른 정당도 일찌기 가지지 못하였던 그와 같은 거대한 경험이 구현되어 있는 것이다.

로씨야 로동 계급의 운명 앞에 제기된 전세계사적 과업은—투쟁의 거대한 전개력을 요구하였다. 레닌은 로씨야를 위해서는「진실로 혁명적인 계급의 거대하게 용감하며, 력사적으로 위대하며, 헌신적인 열성에 가득 찬 창발성과 전개력이 필요하다」(전집 二五권 四판 一三二페지)고 말씀하였다. 볼쉐위끼 당과 그의 위대한 령도자 레닌 쓰딸린의 지도 밑에서 로씨야의 로동 계급은 계급 투쟁의 가렬한 학교를 거쳤다. 로씨야 이외에는 어느 한 나라도 그와 같은 혁명적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볼쉐위끼 당 이외에는 어떠한 당도 그와 같이 풍부한 혁명 투쟁의 형태와 방법들을 적용하지 못하였다.

계급 투쟁의 풍파 속에서 볼쉐위끼 당은 로동계급을 지도하면서 천재적인 레닌—쓰딸린적 전략과 전술을 단련하여 냈다。 볼쉐위크들에게 고유한 혁명적 전개력은 미증유의 대중적 혁명 운동에서,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 이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 로씨야 국가 생활에 있어서, 전세계 인민의 운명에 있어서 근본적인 전환을 표시한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의 대중의 혁명적 에베로기의 강유력한 압력에서 표현되었던 것이다。 볼쉐위크들에게 고유한 혁명적 전개력은 쏘련의 거대한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개혁에서, 전지구의 六분지 一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서 표현되었다。

력사상에는 레닌—쓰딸린 당의 지도 밑에서 쏘련에서 달성된 것과 같은 그러한 대중적 정치 운동의 전개력, 그러한 심각한 생산 방법의 변혁은 일찌기 없었다。 선행의 사회 구조들은 모두 몇 세기나 되는 세월을 거쳐서 형성되었던 것이나, 사회주의 사회는 불과 二十년 간에 건설되었던 것이다。 사회의 혁명적 개혁의 그렇게도 급속한 속도는 자기의 선진적 혁명적 리론으로써 앞길을 밝혀 주는 볼쉐위끼 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수백만 인간들의 능동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의 결과로써 이루어졌다。 대중을 이 개혁적 활동에 궐기시키기 위해서는 당의 거대한 조직적 및 교양적 사업, 인간들의 의식 속의 자본주의적 잔재와의 투쟁이 필요하였다。 이 위대한 력사적 사명을 레닌주의의 작풍을 소유하는 볼쉐위끼 당이 담당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로씨야식 혁명적 전개력 — 이것은 사상을 각성시키며, 전진시키며, 파겨를 과피하며, 전망을 주는 그 소생(蘇生)적인 힘이다。 그것 없이는 어떠한 전진도 불가능하다」 (전집 六권 一八六페지) 라고 말하였다。 볼쉐위크들에게 고유한 혁명적 전개력은 정세, 계급적 력량의 호상 관계,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의 수준, 객관적 제 가능성에 대한 엄밀히 과학적인 타산에 립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 제 가능성의 해명과 또 그 가능성들을 끝까지 리용하는 데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볼쉐위끼 당은 그가 모든것을 극복하는 맑쓰—레닌주의 리론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기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그것으로써 지도되는 까닭에 자기의 혁명적인 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또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가장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발견하였으며, 또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볼쉐위크들의 혁명적인 제 계획은 인민의 현실적인 창조력과 우리의 발전의 속도를 몇십배나 촉진하는 쏘베트 제도의 우월성에 의거한다。 브·이·레

닌은 「우리들 가운데서 누구도 임의의 변화의 환상적인 속도에 대해서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현실적인 속도에 대해서, 있었던 그대로 취한 력사적 발전의 임의의 시기와 비한 빠른 속도에 대해서, 즉 그러한 속도에 대해서 만약에 운동이 진실로 혁명적인 당에 의하여 지도된다면, 그러한 속도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고 있으며, 그러한 속도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달성할 것이다」 (전집 二七권 三一八페지) 라고 강조하였다。

레닌—쓰딸린 당이 걸어온 모든 행정은 볼쉐위크들이 근로자들의 운동에 대하여 광범한 혁명적 전개력을 항상 얼마나 훌륭한 기교로써 부여하여 왔으며, 또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전개력은 볼쉐위끼 당의 정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당은 현재 거대한 중요성을 가진 과업들을 해결하면서 있다。

쏘베트 동맹의 인민 경제의 부흥과 발전, 문화의 향상, 공산주의의 물질적 및 정신적 제 전제의 조성이 미증유의 속도로써 진행하고 있다。 당은 대중의 공산주의적 교양에 대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것을 쏘베트 국가의 장래의 제 성과의 기초로 간주하고 있다。 능동적인 사회 활동에는 수백만의 인간들이 인입되어 있다。 쏘베트 인민은 전후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의 기한전 완수를 위하여 치렬히 투쟁하고 있다。 당과 정부의 제개의 계획은 모든 쏘베트 인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다。 쏘베트 국가에 있어서의 창조적인 활동은 더욱더 큰 전개력을 획득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것은 현재 당이 당과 국가의 일군들 앞에 제기하는 요구들이 더욱 복잡하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넓은 시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 멀리 앞을 내다 보며 발전의 전망을 확정할 줄 아는 것이 언제나 지도 일군들의 중요한 자격이었다면 현재 그와 같은 자격은 헤아릴 수 없이 증대하여지고 있다。 어느 한 가맹, 공화국 주, 지어 구역의 실례에 있어서 까지도 최근에 지도 일군들의 과업이 얼마나 복잡하게 되었는가, 그들의 자기 지위와 동 수준에 서 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넓은 정치적 시야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공장 광산 발전소 철도들이 더욱 더욱 증가하고 있다。 기업소들의 이 량적 증가 그 하나가 벌써 당적 지도자가 현재 더욱 큰 전개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의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문제는 결코 량적 증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은 새로운 일보를 전진하였다。 몇해전 까지만 하여도 아직 겨우 생산에 침투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 현재에는 광범히 보급되었다. 기계화, 선진적 공학의 제 성과, 과학의 제 성과와 생산에로의 도입,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산업 앞에 새로운 제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리고 쏘베트 공업의 가능성은 실로 무한하다! 쏘베트 동맹은 一九五二년 이전에는 원자 무기의 비밀을 실지로 소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온갖 부류의 외국의 산업 「전문가들」과 「통효자(通曉者)들」은 현재 얼마나 보기에 가련한가! 그들은 자본주의적 산업의 규모로써 사고하였던 것이며, 그리하여 단단히 오산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다른 규모와 다른 전개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공업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 경리에도, 즉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 관련되는 것이다. 당에 의하여 조직되는 창조적인 사업의 거대한 전개력의 뚜렷한 실례로 되는 것은 자연 개조의 쓰딸린적 계획의 실현이다. 이 계획은 우리 당에 고유한 창조적인 혁명적 전개력의 모범이다. 그와 동시에 자연 개조의 계획은 현재 우리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그 새로운 제 가능성의 반영인 것이다.

볼쉐위끼 당이 전개한 이데올로기와 공산주의적 교양의 부문에서의 거대한 사업의 제 성과도 매일 같이 더욱더 장성된다. 근로자들의 의식성의 제고는 우리의 전진을 촉진한다. 이것은 현재 사회주의적 경쟁이 획득한 그 미증유의 전개력에 있어서 또한 그것이 인민 경제에 주는 그 현실적인 제 결과에 있어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사회주의적 경쟁의 실천에 의하여 해명되는 제 가능성을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성과있게 지도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일상적인 지도에 있어서는 더욱 제고되어 가는 대중의 문화성과 정치적 능동성을 타산하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아는 바와 같이 어떠한 사업 과정에 있어서도 간부의 갱신이 일어나며, 새 사람들이 등용되며, 변화된 제 요구에 응하지 못한 일꾼들이 물러가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몇해 동안에 약간의 당 일꾼, 경제 일꾼, 및 쏘베트 일꾼들이 사업으로부터 해임된 원인들을 살펴본다면 이 일꾼들이 생활의 요구로부터 락후한 것, 그들이 지도하는 구역에 존재하는 제 가능성을 리용하는 데에 무능력하였다는 것이 이들 원인 가운데서 결코 적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일꾼들을 「규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른다. 그러한 일꾼이 적지 않은 기간에 걸쳐 한 구역을 지도하고 있었을찌도 모르나, 그러나 그 구역 자체가 벌써 몇해 전의 그 구역과는 다르며, 또 주모 벌써 그 주가 아니며, 또 공장도 벌써 그 공장과는 다른 것이다. 새로운 규모는 장성을 정지한 일꾼에게는 벌써 맞지 않는다. 즉 그

에게는 전개력, 전망의 감각이 부족한 것이다.

볼쉐위끼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으로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한다. 쓰딸린 동지는 낡은 것의 사멸과 새 것의 발생은 발전의 법칙이며, 따라서 낡은 쇠퇴하여가는 것에 립각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성하여가는 것에 립각하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정치에 있어서 오유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뒤를 볼 것이 아니라, 앞을 보아야 한다. 당 일꾼은 새 형상, 새 과정을 볼 줄 알아야 하며, 새 것의 싹을 촉지(觸知)하여야 한다. 새 것은 실 생활에 있어서 자연 발생적으로가 아니라, 낡은 것과의 견결한 투쟁 속에서 공고화되므로 볼쉐위끼적 일꾼의 과업은 새 것의 장성을 위한 길을 닦는데 있다. 그러나 새 것을 보고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하며, 이 새 것을 그의 발전에서 상상하여 볼 줄 알아야 한다.

전후 五개년 계획의 급속한 완수를 위한 투쟁의 년대기에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이 새 것에 의거하면서 사업에 있어서 볼쉐위끼적 전개력을 소유한 지도자들이 훌륭한 성과를 달성한 많은 실례들을 볼 수 있다. 많은 주에서 꼴호즈들의 전기화가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방목림 지대의 식수 계획들이 어떻게 초과 완수되었는가, 지방 자원이 공산주의 건설의 공통 사업에 얼마나 광범히 참여하였는가를 인례(引例)하기만 하여도 충분할 것이다.

볼쉐위끼 당에게 고유한 혁명적 전개력, 바로 이것이 당이 매개 당 일꾼들에게 있어서 발전시키고 있는 자격이다. 당은 지도적 지위에 넓은 시야를 가진 인간들, 고귀한 새 것의 감각을 소유한 인간들이 등용되어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당은 혁명적 전개력을 제기된 목표 달성에 있어서의 실무성 및 완강성과 결합한다. 완강성, 인내성, 결단성, 몇번이라도 시험하여 보며,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몇번이라도 시정하나, 어찌하든 목표를 달성할 줄 아는 것——이 자격들은 프로레타리아트는 이미 十월 혁명 이전에 자신 속에 양성하였다고 레닌은 말씀하였다. 十월 사회주의 혁명 후 로동 계급이 주권을 쟁취하고 그의 당이 통치적 당으로 되었을 때에 실무성의 표어는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실무성——이것은 쓰딸린 동지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물을 모르며, 또 인정하지 않으며, 자체의 실무적인 완강성으로써 모든 그리고 온갖 장애를 씻어버리는, 한번 시작한 사업을, 가령 그것이 크지 않은 사업일찌라도 끝까지 수행하고야 마는, 또 그것 없이는 중대한 건설 사업은 생각할 수 조차 없는」(전집 六권 一八七——一八八페지) 그 불굴의 힘이다.

력사는 볼쉐위크들의 이 특수성을 리해치 못한 자들을, 레닌—쓰딸린당이 자기 앞에 제기하였던 용감한 목표들을 「환상」, 「혁명적인」 공상의 산물로서 평가하였던 자들을 조소하였다. 혁명적 전개력은 마닐로브주의나 무근거한 환상과는 아무런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레닌과 쓰딸린은 볼쉐위끼적 지도자들이 어떤 사업이라도 그 사업 도정에서 봉착하는 모든 곤난을 극복하여 끝까지 관철할 것을 요구하면서 언제나 무근거한 계획들의 조작자들을 무자비하게 폭로하였던 것이다.

볼쉐위끼적 실무성의 뚜렷한 표현은 당적 지도의 구체성에서 볼 수 있다. 볼쉐위크들에게는 일반적인 문구나 선언적인 결의와는 인연이 없으며, 그들은 피상적 관찰과 무지를 규탄(糾彈)한다. 공민 전쟁이 끝난 후 당이 평화적 건설의 길에 들어서고 제일보를 내디디었을 때에 쓰딸린 동지는 앞으로도 일반적인 지령을 리용함으로써, 평범한 지식으로써 일을 처리할 것을 기대하였던 자들을 가장 준엄하게 비판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일반적인」 지도는 그것이 아무런 지도도 내포하고 있지 않는 까닭으로 빈 말공부다」(전집 七권 一七一페지)라고 강조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사업의 지적을 대신하였던 저급한 행정적 처리의 습관을 비판하였으며 이러한 습관이 있는 것으로서 그는 「이른바 당적 지도가 때로 누구에게도 필요없는 지시문의 가소로운 집적으로, 아무에게도 그리고 아무것에도 걸리지 않는 공허한 말뿐인 「지도」로 변질하는」(전집 七권 一七二페지) 것을 설명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재 년간에 당은 경제, 문화, 과학의 각 부문의 능수인 훌륭한 간부들을 양성하였다. 이 간부들은 고도의 실무성으로서 특출하다. 이 간부들은 항상 정확한 타산으로써, 사업의 가장 세밀한 세부에 침투하는 기능으로써, 예정된 과업을 보장함으로써 당이 내세우는 거대한 과업들을 해결한다. 국가의 공업화와 농촌 경리의 집단화의 년간에 있어서, 력사에서 일찌기 보지못한 바의 공업의 동방 이동이 실현되고, 또 가장 곤난한 제 조전 하에서 전시 경제의 정비가 달성되였던 위대한 조국 전쟁의 년간에 볼쉐위크들이 발휘한 실무성, 끝으로 전후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의 완수를 현저하게 촉진하는 실무성 ― 이 모든 것은 높은 형의 실무성이요, 새로운 사회 제도 즉 사회주의에 고유한 실무성이다.

견고한 규률과 지도의 중앙 집권제는 볼쉐위끼적 실무성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 집권제는 지방적 창의성과 주도성의 발전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전제로 하는 것이다. 볼쉐위끼 당, 레닌과 쓰딸린은 지방 단체들과 그

지도자들이 창조적인 창의성을 발휘할 것을 항상 요구하였다. 레닌은 일반 로선에 있어서의 통일은 「사업에 대한 구체성에 있어서, 지방적 제 특수성에 있어서 수법의 다양성으로써 보장되는……」(전집 十二권 一六六페지) 것이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였다.

가장 상세한 지령이라도 현지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을 예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 난체들과 그 지도자들은 실 생활의 매개 경우에 상부로부터의 지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창발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동일한 지령도 각이한 조건하에서는 각이한 실행 방법을 요구한다. 행동하는 실지 사업은 부단히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이다. 매개 볼쉐위끼적 지도자의 과업은 사태를 고려하면서 문제들에 대한 옳은 해결을 발견하며 당 결정 실행의 최선의 방법들을 적용하는 것이다.

경제가 복잡할수록, 기술이 완전할수록 더 많은 지식이 지도 일군들에게 요구된다. 실무성의 개념은 옹고한, 불변한 그 무엇은 아니다. 과거에 실무성으로써 뛰어나고 있었던 일군도 만일 그가 발전을 정지하면 새 환경에 있어서의 지도, 즉 새로운 기술로 재두강된 공장 혹은 전기화된 농업을 지도하는데 있어서는 부적당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 앞에는 일군들의 지식 수준을 제고시키는 과업이 항상 제기되어 있는 것이다.

볼쉐위크들의 힘은 그들의 실무성이 목전의 사업 때문에 당과 국가의 일반 로선과 활동의 전망을 망각하는 바의 실속없는 실무주의와는 아무러한 공통점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완전한 실무성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업에 있어서의 전망을 상실하며 자기의 사업을 당의 기본 로선에 종속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이나스로 돌아간다」(전집 十一권 二三페지)라고 말씀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전망의 상실, 협소한 실무성이 어데로 이끌어가는가를 보여 주었다. 조직적—경리적 사업이 협소한 범위에 잠기며, 자기의 사상적 수준을 제고시키지 않는 일군들은 큰 정치 문제들과 격리하게 된다. 리론면에 무관심한 실천가들의 운명은 전망의 상실이요, 전망성 없는 소위 실무자에로의 전락이다.

당은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사업에 있어서 혁명적 전망을 보는 필요성을 항상 협소한 실무주의에 대립시켰다. 혁명적 전개력과 실무성과의 결합은 당 정책의 성과적 실행의 가장 중요한 담보이다.

× × ×

혁명적 전개력과 제기된 목표 달성에 있어서의 실무성 및 완강성과의 결합은 실천에서는 정치 로선과 조직 사업의 옳은 결합에서 발현된다.

쏘베트 국가의 지도적 역량으로서의 불쉐위끼 당은 사회 발전의 성숙된 제 수요를 표현하면서 국가적 및 사회적 제 조직의 모든 사업을 방향짓는다. 당의 정책은 쏘베트 제도의 생명적인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쏘베트 국가의 부단히 장성하는 위력,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준의 부단한 향상, 사회주의 경제와 문화의 거대한 성과는 불쉐위끼 당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실증이다.

선진적인 맑쓰—레닌주의 리론에 기초한 옳은 정책은 승리의 모체이다. 그러나 승리는 스스로 오는 것은 아니며, 승리는 조직하며 쟁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업에서의 성과를 더욱 크게 하려면, 쏘베트 국가가 더 급속히 향상의 길을 걸어가게 하려면 조직 사업의 가일층의 개선이 요구된다. 당 결정의 실행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지도의 부단한 완성이 필요한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정치 로선과 조직 사업의 호상 관계에 대한 모범적인 정의를 내리였다. 「당의 옳은 로선을 내세운 후에는, 문제의 옳은 결정이 있은 후에는 사업이 성공되고 못되는 것은 조직 사업 여하에 달리는 것이며, 당의 로선을 실시하는 투쟁을 조직하는 데 달리는 것이며, 사람들을 옳게 선택하는 데 달리는 것이며, 지도적 기관들의 결정을 실행하는 것을 점열하는 데 달리는 것이다. 그런 것이 없이는 당의 옳은 로선과 옳은 결정은 매우 큰 손상을 당할 위험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옳은 정치 로선이 나선 다음에는 조직 사업의 여하가 모든것을 — 그 중에는 그 정치 로선 자체의 운명까지도, 즉 그의 실행이나 혹은 실패까지도 결정하는 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 로동당 출판사 一九四九년판·제三분책 二三九페지)

조직 사업은 실무성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조직 사업 없이는 지도는 결정 채택뿐으로 전화하며, 그리하여 가장 좋은 신 계획까지도 실현되지 않은채 남게 되는 것이다. 불쉐위끼적 정책이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는 까닭은 바로 당이 자기의 로선을 항상 조직 사업으로써, 광범한 인민 대중을 제기된 제 과업 수행에로의 동원으로써 보장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 시기의 현 조건 하에 있어서 조직 사업의 가장 중요한 특수성의 하나는 더욱 중대하여가는 그의 전개력이다. 대중의 능동성, 그들의 공산주의적 의식, 그들의 문화성이 장성하여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 단체들이 실시하는 그 정치적 및 조직적 사업의 성격에서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쓰딸린 동지는 一九二七년 十五차 모쓰크바 주 당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여 대중에 대한 지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그러나 당은 만일 그가 최근 몇해 동안에 로동자와 농민들 속에서 일어난 제 변화를 타산하지 않는다면 대중을 지도하지 못한다」(전집 九권 一六〇페지) 고 강조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근로자들의 장성한 능동성, 그들의 증대한 요구들, 우리들의 사업의 제 결함에 대한 그들의 예민성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귀결되는 과업, 즉 지도를 더욱 신축성있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요구와 제의에 더욱 주의를 돌리는 것으로 하는 과업을 념두에 두었던 것이다.

당 단체들이 오늘의 우리의 일상 생활의 특징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그 끓어 넘치는 적극성을 부단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다. 새로운, 광범한 열성자들의 존재는 당 지도자들이 진행해야 되는 조직 사업의 성격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또는 저런 과업들의 수행을 조직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우선 간부에 대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간부는 당적 및 국가적 지도의 결정적인 힘이다. 결국에 있어서 모든 사업의 운명은 그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의 선택과 배치, 그들에게 대한 체계있는 사업은 승리를 조직하는 데 대한 레닌—쓰딸린적 과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레닌과 쓰딸린은 간부가 정치적 표정(表徵)에 의하여 즉 그 일군이 정치적 신임을 받을 수 있는가에 의존하며, 그리고 또한 실무적 표정에 의하여, 즉 그가 소여의 구체적인 사업에 적합한 가에 의존하여 등용될 때에 사업상의 성과는 보장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당 간부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틀에 굳어박힌 어떤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그들은 발전되어야 하며 성장하여야 한다. 간부들을 연구하여야 하며, 그들을 교양하여야 하며, 앞으로 전진시켜야 한다.

당의 배려로 발미암아 쏘베트 국가는 현재 수많은 각종 전문 기술 간부들을 가지고 있으며, 당 단체들은 간부 배치와 그들의 기능을 살리는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고 있다. 현재 우리 간부들의 문화성, 그들의 정치적 및 실무적 숙련이 현저하게 장성하고 계속 장성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준비가 적은, 자기 성장에 있어서 락후한, 더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 때로 지도적 지위에 서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간부들에 대한 요구를 제고하며 지도적인 지위에는 교양되고 잘 훈련된 사람들을 등용할 수 있으며 또 등용하여야 한다. 당이 전개한 간부의 교양 및 재교양의 광범한 체계, 차지하는 지위에 적응하는 교양을 가질 것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 모든 사업에서 조직 사업의 개선에 대한, 또 조직 사업이 쏘베트 국가에서 해결하고 있는 거대한 정치적 제 과업과 동 수준에 처하여 있도록 하는 데 대한 당의 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간부들의 정치적 자격에 대한 요구는 제고되어가고 있다. 이데올로기 사업의 개별적인 령역에 있어서 사상적으로 충분히 견고치 못하고, 자기 사업에 있어서 과오와 결함을 나타낸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제 사실은 결코 모든 당 단체에 있어서 매개 일군의 정치적 면모가 마땅히 하여야 할 정도로 연구되지 않았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다. 정치적 표징에 의한 간부 선택에 있어서 결함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여기 저기서 국가 규률 위반의 사실에 대한, 지방 활거적 제 경향의 발현에 대한, 직권 람용 등등에 대한 타협적인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으로써도 증명된다. 그와 같은 제 사실에 대해서 당은 항상 결정적인 투쟁을 진행하여 왔는바 그와 같은 사실들은 현 조건 하에서는 특히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되고 있다. 실제 사업의 행정에서 량심적이며 결함들과 타협하지 않는 훌륭한 볼쉐위크들이, 진정한 당원들이 장성하며 단련된다. 당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국가와 당에 대한 책임감을 상실한 일군들 대신에 등용한다.

간부의 배치는 현 계단에 있어서의 당의 기본 과업으로써 결정된다. 간부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최대한 리익을 가져오도록 간부들을 배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정형으로부터 출발하면서 매개 당 지도 기관은 산업, 농촌 경리 및 문화 건설의 결정적인 령역에 노력을 집중하며 이들 령역의 간부들을 공고화하여야 한다. 그와 동시에 간부의 능력의 완전한 전개를 허용하며, 매개 간부의 능력으로부터 최대 한도의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할만한 간부 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간부가 자기 능력에 알맞는 지위에 서고 있다는 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의 개인적인 능력과 취미에 합치하는 사업에 등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은 간부의 배치, 선택, 및 등용의 사업을 가일층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간부들에 대한 사업을 강화하는 데에 볼쉐위끼 당 앞에, 쏘베트 국가 앞에 제기되어 있는 력사적인 제 과업 완수의 담보가 있는 것이다.

당적 지도의 볼쉐위끼적 작풍의 특출한 특징은 말과 사업의 통일이며, 결정과 집행의 통일인 것이다. 집행에 대한 검열은 거대한 역할을 논다. 옳게 그리고 능숙하게 조직된 집행 검열은 일군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과 타인들에 대한 고도의 엄격성을 양성하며, 책임감을 제고하며, 당적 및

국가적 규률을 강화한다.

집행에 대한 검열은 당적 지도 사업을 구체적이며 능동적인 것으로 만든다. 집행에 대한 검열이 없으면 능동성, 구체성도 없을 것이니 그것은 궤상(机上)적—관료주의적 지도로 전락한다. 이것은 당 단체들의 사업 실천에 있어서 많은 실례로써 볼 수 있다. 실례로 볼로곧츠끼 주 당은 적지 않은 결정들을 채택하면서도 그들의 집행에 대한 충분한 조직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며, 집행에 대한 검열을 조직하지 않았다. 조직성과 능동성을 지상(紙上)의 지시문의 흐름으로써 대치하려고 시도하는 이러한 지도 밑에서는 제때에 결함들을 폭로할 수 없으며, 사업에서 있을 수 있는 파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실지에 있어서 볼로곧츠끼 주 당의 지도 사업에는 큰 결함들이 있으며 사업의 많은 부면들에 대한 주당의 영향은 약화되어 있는 것이다.

사업의 범위가 더욱 증대하여 갈 때에 집행에 대한 검열이 락후하는 것이 사업에 대하여 얼마나 위험하며 유해하다는 것을 길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당 기관은 주 혹은 구역의 모든 다양한 생활에 대한 지도를 하는 데 무능력한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집행에 대한 검열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실수와 파탄의 十중 九가 옳게 조직된 집행 검열이 없다는 것으로써 설명된다고 지적하였다. 당은 볼쉐위끼적 지도 작풍의 가장 중요한 요구를 수행하지 않은 일군들을 엄중하게 비판한다. 쓰딸린 동지는 사회주의적 공업 일꾼들의 제一차 전동맹 대표자 회의에서 연설하실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념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즉 「우리에게는 지도한다는 것은 종이장에 서명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있다. 이것은 한심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열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 로동당 출판사판 제二분책 四七〇페지)

지도란 이것은 정세에 대한 지적에 기초하여 실천 계획을 옳게 예정하며, 당면 과업들을 명확히 정식화하며, 그의 해결의 최선의 방법을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없으면 어떠한 사업이든지 맹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계획이라도 만약에 그것이 조직 사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사업에 있어서 불가결한 긴장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집행에 대한 검열이 참되게 조직되지 않는다면 「공중 루각」으로 될 수 있으며 빈소리로 되고 말 것이다.

당 단체들의 사업에서 주요한 것은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과 집행을 검열하는 것이다. 十八차 전

동맹당 대표자 회의 결정에는 회의와 결정서 채택이 지도 사업의 대부분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검열이 주되는 부분을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되어 있다. 결정서 채택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결정이란 이것은 행동에 대한 지도인 것이다. 만약에 당 위원회가 수 많은 결정서를 채택하며 수 많은 지시문을 발송하는 것으로써 사업에 있어서의 로력이라고 생각하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오직 집행에 대한 검열만이 결정들이 어떻게 실행되는가, 기관들이 모든 힘을 다하여 볼쉐위끼적으로 사업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볼쉐위끼적 지도 작풍은 결정에 뒤이어 이 결정 실행을 보장하는 제 대책의 체계가 예정되고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 있어서도 사람에 대한 사업이 첫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당위원회의 의무는 결정의 집행에 광범위의 열성분자, 공산당원, 근로자들을 참가시키는 것이다. 당 위원회는 결정을 직접적인 집행자들에게 침투시켜야 하며, 일군들이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제 과업의 본질을 리해하도록,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써 결정을 실행하여야 되는가, 대중들에게 대한 당적 영향의 힘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조직 형태를 택할 것인가를 스스로 잘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약간의 지방 당 지도자들이 열성분자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으며, 협소한 범위의 사람들과 관계를 취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열성자들에게 립각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열성자들을 단결시키는데에 대해서 관심을 돌리지 않는 일군들은 당적 지도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과오는 아스트라한 주 당의 실지 사업에서 폭로되었던바 여기서는 당 조직 앞에 제기되어 있는 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성자들을 단결시키는데 대해서 관심을 적게 돌리고 있었던 것이며, 행정적 처리가 허용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떤 동무들은 다른 일꾼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반박을 용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결과 당 위원회는 공산당원들의 적극성을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하며 광범한 대중을 운동에 인입하는 가능성을 스스로 상실하였던 것이다.

아스트라한 주 당은 경리 사업을 당적—정치적 사업과를 잘 결합시키지 못하고 있다. 주 당은 조직적—당적 및 대중적—정치적 사업을 적절히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을 때짐원식 공담, 수 많은 지령과 지시의 발송으로써 대치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지도의 주요한 공간(槓杆)은 대중 속에서의 정치적 사업이다. 그의 사명은 당 단체들과 대중들과의 련결을 강화하며, 경제적—정치적 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그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동원하는 것이다. 여기 저기의 당 단체에 있어서의 당적—정치적 사업의 등한시는 실천의 결합으로써 간주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과오로써 간주하여야 한다.

볼쉐위끼적 지도의 기술은 광범한 대중을 움직이도록 하며, 그들을 자기 뒤에 끌어가며, 당이 제기한 제 과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궐기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대중의 적극성에 대한 과소 평가, 이 적극성을 활용하는 데 대한 무능력은 현 조건 하에서 특히 참을 수 없는 것이다. 대중들과의 밀접하고 부단한 련결, 대중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울 줄 아는 것, 이것은 레닌—쓰딸린적 지도 작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쓰딸린 동지는 혁명적인 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인민 대중들이 끝력사의 진실한 창조자들이라고 가르친다. 「제조소들과 공장들, 탄갱(炭坑)들과 철도들, 꼴호즈들과 쏩호즈들을 말 없이, 떠들어 대지 않고 건설하며, 생활의 모든 복리를 만들어 내며, 전세계를 먹여 주며 입혀 주는 로동자들과 농민들——그들이야 말로 새 생활의 진정한 용사들이요, 창조자들인 것이다」 (레닌주의의 제문제 로동당 출판사판 제一 분책 一二五페지) 볼쉐위끼 당의 위력, 볼쉐위끼적 지도의 불패성의 고리는 대중들과의 련계에 있는 것이다.

레닌과 쓰딸린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단히 관심을 돌리며, 그들의 제 요구에 예민하게 대하며, 청원과 고소에 응하며, 근로자들의 편지들의 본질을 구명할 것을 가르친다. 고소, 청원, 편지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의 제의는 이런 또는 저런 개별적 문제의 배후에서 사업의 일반적인 결함, 큰 국가 문제들을 발견하며, 크지 않은 문제에서 일반적인 근본 문제들을 발견할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레—닌 쓰딸린적 사업 작풍의 특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개별적인 당 단체에서는 아직도 근로자들의 고소와 편지들에 대한, 그들의 제의에 대한 예민치 못한 태도의 사실들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근로자들의 편지들에 대하여, 정치적 지도자들이 대하여야 하는 식으로 대하지 않고, 때로는 관료주의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당은 당 기관 및 쏘베트 기관의 일꾼들에게, 대소의 지도자들에게 근로자들의 편지들과 청원들에 대해서 예민하고 주의깊은 태도를 취하는 것을 항상 요구하여 왔다.

당 일꾼은 당 기관, 쏘베트 기관 및 경제 기관의 개별적인 부분의 사업에 있어서의 결함들에 대한 근로자들의 편지와 고소들은 이 결함들을 제거하는데 관한, 사업 개선에 관한 관심의 표현이며, 대중의 정치적 적극성의 표현이며, 쏘베트 국가의 위력을 가일층 강화할 데 대한 그들의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망각할 수 없다.

옳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경험만으로써는 부족하다. 즉 지도자는 자기 경험을 대중의 경험으로써 보충할 의무가 있다. 一九三七년 전동맹 볼쉐위끼 당 중앙위원회 二월—三월 전원 회의에서 쓰딸린 동지는 볼쉐위끼 당 중앙위원회가 하부에서부터 올라오는 제의에 대하여 얼마나 주의깊이 귀를 기울이며, 대중의 경험을 얼마나 고귀하게 여긴다는 데 관한 실례를 인용하였던 것이다. 전원 회의의 참가자들에게 돈바스에 있어서의 석탄 채굴을 강화하는 제 방책에 관한 당 중앙위원회 및 쏘련 내각의 유명한 결정을 회상시키고, 쓰딸린 동지는 「우리의 모든 동지들이 옳은 결정으로 인정한, 그리고 유명한 결정으로 인정하기까지 한, 당 중앙위원회 및 쏘련 내각의 이 결정은 하부로부터의 보통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사하여 주었던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당 단체는 정통한 사람들을 결정의 준비와 작성에로, 그 결정들의 집행에 대한 검열에로 더 광범히 참가시킬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 형식과 방법들을 발전시켜야 하며 배양하여야 한다. 더 자주 열성자들과 의론하여야 하며, 일반 일군들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결정의 집행을 조직하는 것은 그의 의미와 의의를 근로자들의 의식에 침투시키며, 그들을 이 결정의 성과적인 실현에로 동원하며, 공산당원들의 선봉적인 역할을 확보하며, 대중 속에서 정치적 및 조직적 사업을 전개하며, 대중의 원조 밑에서 집행에 대한 검열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쓰딸린 동지는 상부로부터 조직된 집행에 대한 검열은 모든 검열 사업을 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친다. 또 하나의 다른 종류의 검열, 즉 대중이 지도자들을 검열하며, 그들의 과오를 지적하며, 결함을 시정하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검열이 존재한다. 이것은 가장 능동적인 검열 방법의 하나이다. 대중의 직접적인 원조가 없이는 성과있게 지도할 수 없는 것이다.

아는 바와 같이 레닌—쓰딸린적 사업 작풍의 가장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앞을 내다 볼 줄 아는 것, 예견할 줄 아는 것이다. 예견의 기능—당 일군의 고귀한 자격—은 다만 개인적인 자격으로써, 개인적인 경험과 사상적 준비로써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과의 련계로써, 볼쉐위끼적 비판과 자기 비판의 전개로써도 달성되는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十명 내외의 지도하는 동무들이 우리 사업에 있어서 결함을 보며 또 지적하지만 로동자 대중은 결함을 볼 것도 지적할 것도 원치 않으며, 또 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간과(看過)할 것이며, 모든 것을 지적하지 못

할 모든 기회가 존재한다. 十명 내외의 지도하는 동무들과 더불어 수십만 수백만의 로동자들이 우리 사업에 있어서의 결함을 보며 지적하며 건설의 공통적인 사업에 참가하면서 사업 개선을 위한 방법들을 결정하면서 우리의 과오들을 폭로하는 경우는 다르다. 이 경우에는 우연사는 없을 것이며 부정적인 현상들은 제때에 지적되고 이 현상들을 청산하기 위한 대책들이 제때에 채택될 것에 대한 보장이 더 많을 것이다」(전집 十一권 三五—三六페지) 지방 당 단체들은 대중의 창조적인 적극성을 발전시키며, 자기 사업에서 이 적극성에 당의 어떤 방책이라도 지지하려는 로동자, 꼴호즈원, 인테리겐차의 용의에 의거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당은 대중들과의 자기의 련결을, 호상적 신뢰에 기초하여, 대중을 맑쓰—레닌주의의 위대한 사상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데 기초하여 맺는다. 대중 교양의 주되는 방법은 설복의 방법이다. 때문에 볼쉐위끼적 지도 작풍의 중요한 면은 인간들에 대한 정치 사업이며, 그들의 공산주의적 의식성의 제고에 대한 사업이다.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인 이행의 조건 하에서는 근로자들의 공산주의적 의식성은 더욱 큰 의의를 가진다. 근로자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될 제 과업을 더 잘 리해하게 될수록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대중 속에서의 당의 정치적 및 조직적 사업은 근로자들의 공산주의적 의식 제고에, 쏘베트적 애국주의의 가일층의 배양에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는 자본주의의 잔재와의 투쟁에 돌리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건설에 있어서 달성된 거대한 성과들은 당과 그의 지방 단체들이 도시와 농촌의 근로 대중의 가장 광범한 층들을 궐기시킬 수 있었으며, 전인민적인 사회주의 경쟁을 전개하며 대중의 정치적 및 근로적 적극성의 가장 위대한 앙양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써 설명된다. 볼쉐위끼 당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위신은 볼쉐위크들이 항상 대중들과 긴밀히 련계되어 있다는 것으로, 당은 로동자와 농민들의 절실한 리익에 응하는 자기 로선의 정당성에 대해서 대중들을 항상 확신시킬 줄 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쟁취된 것이다. 잘 조직된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및 조직적 사업에 볼쉐위끼적 지도의 위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있는 것이다.

× × ×

볼쉐위끼 당과 쏘베트 국가 앞에 나서고 있는 거대한 제 과업의 실천은 당에 의하여 수행되는 볼쉐위즘의 정신으로 교양된 당 간부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쓰딸린 동지는 볼쉐위즘 소유에 관한 문제를

맹계 자기 일을 중요한 정치적 제 과업에 종속시킨다는 것으로 검토되는 것이다。

사업에 대한 무원칙한 태도는 중대한 손실을 가져온다。례컨대 우리의 출판물들에서 최근에 지적된 문학 부문에 있어서의 많은 결함들과 약간의 희곡 작가들의 과오들은 작가들의 창작 단체의 사업에 있어서 원칙성이 부족하였다는 것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설명된다。즉 친우 관계를 악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까닭으로 어떤 약간의 문학가들은 종종 작품의 사상적 수준과 예술적 기교에 대한 높은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다。

레닌—쓰딸린 형의 일군의 필수적인 특징은 성실성과 공정성이다。쓰딸린 동지는 우리의 간부들은 레닌 처럼 성실하고 공정한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사업에 있어서나、사생활에 있어서나 볼쉐위크들은 자신 속에 이 고귀한 품성을 교양하여야 하며 발전시켜야 한다。

일군의 정직성은 국가적 제 리익에 대한 그의 태도로써 검토된다。아직도 존재하는 개별적인 일군들에 의하여 허용되는 국가를 기만하는 사실들 —말하자면 계획 완수의 퍼센테지의 첨가、부정확한 계산 등등—은 얼마나 그것이 근소하다 할찌라도 당 단체들은 그들을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사업의 리해 관계、간부 교양의 리해 관계는 당 단체들이 어떤 경우의 비법 행위라도 무관심하게 방입하지 않고 결합을 폭로하며 일군들을 국가 리익에 대한 성실하고도 공정한 태도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볼쉐위끼적 비판과 자기 비판은 레닌—쓰딸린적 사업 작풍의 불가결한 특징이다。쓰딸린 동지의 말씀에 의하면 「초미(焦眉)의 제 문제를 면밀히 우회(迂回)하는 것、그들을 은닉(隱匿)하는 것과 말살하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는 개량주의적 사회 민주당들과는 구별되어 볼쉐위크들에게는 자기 비판、자기의 오유에 대한 심각하고도 원칙적인 비판이 고유한 것이었다。볼쉐위크들은 자기 비판을 당의 수중에 있는 강력한 도구로서、우리의 전진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볼쉐위끼적 자기 비판은 우리의 발전의 강유력한 추동력이다。적대적인 계급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회주의 사회의 제 조건에서 모순의 폭로와 극복은 볼쉐위끼적 비판과 자기 비판의 형태로 진행된다。당은 비판과 자기 비판의 검열된 무기로써 인간들의 의식 속에 있는 자본주의적 잔재에 반대하여、당、쏘베트 및 사회 단체들의 사업에서의 제 결함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비판과 자기 비판의 도움으로써 당은 자기의 간부들을 원칙성、성실성、및 공정성의 정신으로 교양하고 있다。

볼쉐위끼 당 앞에 가장 심각하게 제기하였다。쓰딸린 동지는 간부들이 국내 국제 정세에 있어서 자유롭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엄중한 과오없 국가 지도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충분히 능숙한 맑쓰—레닌주의자로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상적으로 준비하며 정치적으로 단련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간부들의 맑쓰—레닌주의적 단련은 실무성이 협소한—전망성이 없는 실무주의로 되어 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다。레닌—쓰딸린적 형의 일군은 훌륭한 실천가로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넓은 혁명적 전망과 진행되는 제 사전의 정치적 의의에 대한 리해를 소유한 정치가로도 되어야 하는 것이다。

레닌—쓰딸린 당은 국가적 경제적 및 문화적 사업의 모든 부문을 위한 수 많은 간부 일군들을 양성하였으며 교양하였다。이것이 레닌주의의 가장 위대한 공적의 하나이다。쓰딸린 동지는 「레닌주의는 특별한 형의 당적 및 국가적 일군을 형성하며、특별한 레닌적 사업 작풍을 창조하는 리론적 및 실천적 학교이다」(전집 六권 一八六페지)라고 지적하였다。

레닌—쓰딸린적 사업 작풍의 기초에는 레닌주의의 방법、그의 유물론적 변증법、그의 비판적 혁명적인 정신이 놓여 있는 것이다。쓰딸린 동지는 레닌주의의 방법을 특징지으면서 이 방법의 제 요구는 리론적 제 명제들을 생동하는 실천의 불길 속에서 검토하는 데、리론과 실천의 통일에、말과 일의 통일에、모든 사업을 반드시 혁명적 정신으로써 진행하는 것에、그리고 끝으로 당 내의 자기 비판、간부들이 그들 자신의 오유에서 배우게 하며 교양하는데 귀착한다고 지적하였다。

고상한 원칙성은 레닌—쓰딸린 형의 활동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레닌과 쓰딸린은 원칙적인 정책은 유일하고도 정당한 정책이라고 가르친다。진실한 볼쉐위끼는 매개의 사업을 원칙적이며 당적인 립장에서 대한다。

볼쉐위끼적 원칙성은 당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으로부터의 가장 사소한 편향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레닌은 정치는 수백만 인민의 리익에 관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친다。원칙적으로、정치적으로 사업에 대한다는 것이란、사업을 인민、국가、당의 리익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서는 부분적、지방적、혹은 친우적 리익들에 대한 사소한 양보도 있을 수 없다。볼쉐위끼들은 우정 동지적인 관계를 고귀하게 여기기는 하나、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의 리익에 대한 태도에 의하여 그 인간을 판가하는 것이다。일군은 그가 어

불쉐위끼적 비판과 자기 비판은 간부 교양의 방법이며, 불쉐위끼적 사업 작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쓰딸린 동지는 「솔직히 그리고 공정하게 불쉐위끼 당원 답게 우리 사업에 있어서의 실수와 과오들을 지적하지 않으며, 폭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전진의 길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것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서 공정하고도 혁명적인 자기 비판을 내세워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전진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없이는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전집 十권 三三一페지) 고 가르쳤다。

레닌적으로, 쓰딸린적으로 간부를 교양한다는 것은 일군들을 그들 자신의 과오와 결함에서 배우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간부들의 불쉐위끼적 교양의 쓰딸린적 훈계의 하나이다。 만일 당 단체내에 가족주의, 저촉한 평온주의가 존재한다면 간부들의 옳은 교양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일군들은 과오의 인정이 그들의 위신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과오 인정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위신에 대한 옳지 못한 허위적인 개념이다! 자기 과오의 인정과 그것을 시정할 용의는 일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위신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자기의 결함을 은폐하는 자 만이, 부정의와 투쟁할 것을 원치 않는 자 만이, 편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찾고 있는 자 만이, 첫 성과로부터 벌써 승리에 도취하는 자만이 위신을 상실할 수 있는 것이다。

유감이나마 아직도 비판과 자기 비판을 전개할 대신에 결함들을 미봉하는 일군들이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사실들은 실례로 그로즈느이 주 당의 실지 사업에서 폭로되었던바, 그는 당과 쏘베트의 열성자들을 불쉐위끼적 비판과 자기 비판의 정신으로 교양하지 않았다。 최근에 그 주 당은 주의 신문 「그로즈넨쓰끼 라보치」의 사설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였다。 그 사설은 그로즈느이시 오크째부리쓰끼 구역 집행 위원회 위원장의 근로자들의 요구와 청원에 대한 관료주의적 태도를 정당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 비판을 지지할 대신에 주당 위원회는 그릇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약간의 일군들이 이전에 허용하였던 것과 같은 결함 미봉의 길에 들어섰던 것이다。 이것으로써 주 당은 비판과 자기 비판을 전개하는 데 대해서가 아니라, 말살하는 데에 조력하였으며, 불쉐위끼적 지도 원칙에 위반하여 행동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자기 비판을 말살하는 일군들이 지도적 지위에서 있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비판과 자기 비판이 없으면 어떤 조직도 부패할 수 있다。 「그것이 없으면 정체, 기관의 부패, 관료주의의 장성, 로동 계급의 창조적인 창발성의 훼손은 불가피적이다」 (이·브·쓰딸린 전집 十二권 一七三페지) 용감하고도 솔직한 비판과 자기 비판은 「우리의 전진 운동을 위한, 근로자들의 건설적 정력의 전개를 위한, 경쟁의 발전을 위한……재료 (와 자극)를 준다」 (전 동서) 비판과 자기 비판은 사람들이 자기를 완성하는데, 자기 사업의 제 결함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비판과 자기 비판이 없는 곳에서는 진부(陳腐)와 침체가 뿌리를 박으며, 전진 운동의 여지가 없는 곳에는 간부들의 옳은 교양이 없는 것이다。

우리 간부들의 과오를 미봉하는 것은 이 간부들을 틀림없이 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용감한 원칙적 비판, 바로 이것이 간부들의 불쉐위끼적 교양 방법이다。 그것은 그들의 전진을 추동하며 곤난을 극복하는 것을 추동한다。 쓰·므·끼로브는 「우리 불쉐위크들의 실천에서는 지나치게 화목한 관계가 있었던 적은 없다。 우리는 성을 내고 싸울 줄 안다……우리들 가운데서 이런 또는 저런 생각으로써, 말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차라리 가만이 있고 비판하지 않겠다고 론의하는 자는 누구나 죄인으로 될 것이다。 정직하게, 불쉐위끼답게, 동지적인 공산주의자의 눈을 들여다 보면서 「너는, 친애하는 사람아, 해체되고 혼란되었다。 만약에 너 자신으로 일어서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원조를 주겠다。 만약에 손을 잡아서 일어서게 할 수 없다면, 머리를 잡아서 세우겠다。 나는 너를 시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겠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친애하는 사람아, 시정되지 않는다면 후회하지 말라, 너는 자리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여야 한다」 (론문 연설집 一九四四년판 一○三페지) 고 말하였다。

자기 비판의 정신으로 간부들을 교양한다는 것은 거만성과 자만심과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만, 자랑은 그 자체 내에 적지 않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기 만족에로, 융화주의에로 떨어지게 한다。 쓰딸린 동지는 매개 쏘베트 인간에게, 그가 매일매일 자기 사업을 총결하며, 자기 자신을 용감하게 검열하며, 자기 결함들을 비판하며, 어떻게 하여 최선의 성과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숙고할 것을 가르친다。 이것은 지도 일군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당, 레닌과 쓰딸린은 간부들에게 성공에서 오는 현훈증과 같은 그러한 위험을 경고한다。 쓰딸린 동지는 불쉐위크들이 승리자들로 되었던 런던 대회에서의 레닌과 자기의 상봉을 회상하면서 「나는 그

며 승리자의 역할을 노는 레닌을 처음으로 보았다. 상례로 승리는 다른 령도자들로 하여금 현훈증에 걸리게 하며 그들을 거만하게 하며 자만하게 하는 것이다. 대개 이러한 경우에는 승리를 축하하며, 성공에 도취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레닌은 추호도 그와 같은 령도자들을 닮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승리 후에 특히 조심하였으며, 경각성을 가졌던 것이다. 기억하건대 레닌은 당시 대표자들에게 「첫 문제는 승리에 미혹되지 않으며, 거만하게 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 문제는 승리를 공고화할 것이다. 셋째 문제는 적을 끝까지 분쇄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그는 타도되었을 따름이고, 결코 아직 끝까지 분쇄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꾸준히 주장하였던 것이었다」(전집 六권 五七페지) 라고 말씀하였다.

승리로써 뽐내지 않은 것, 바로 이것이 레닌의 성격에서의 특수성이며, 그것이 그가 적의 력량을 랭정히 타산하며, 당을 가능한 제 우연성으로부터 보험하는데(CtPax0Batb)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이 레닌적 특수성을 쓰딸린 동지가 자신 속에 체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정도의 감각이 상실되며, 현실을 리해하는 능력이 상실되며, 자기의 력량을 과대 평가하며, 적의 력량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성공에 의한 도취로부터 볼쉐위크들을 예방하였던 것이다.

승리는 자연히 자부심을 낳게 하며 자기 력량에 대한 자신을 공고화한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또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제 문제를 랭정하게, 명확히 볼 것이 요구되며, 사업에 있어서의 긴장을 저하시키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며 자기 만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우리 대렬 내에서는 융화주의, 방심, 거만에 대한 여지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쏘베트 인간들에게 있어서 도달된데서 정지하고 자기의 성공에 도취하는 것은 상응치 않는 일이다. 만약에 우리 대렬 내에서 자기 만족이 나타난다면 승리를 놓칠 수 있다. 승리는 투쟁과 긴장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 승리는 전투에서 쟁취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친다.

현재 쏘베트 동맹이 급속한 앙양에 처하고 있으며, 모든 쏘베트 인간들이 공산주의 건설의 전선에서의 승리와 관련된 자랑과 기쁨의 감정으로 꽉 사로 잡혀 있을 때에 융화주의에 빠지며, 경각성을 약화하며, 실지 사업상의 제 결함을 지적하는 것을 그치는 것은 특히 위험한 것이다. 볼쉐위크들에게 고유한 그 열화같은 그리고 불멸의 열정은 미완성의 것을 볼 줄 알며 모든 력량을, 가능성을, 랭정하게 타산할 줄 아는 것과 결합되어야 한다. 당 일군에게는 「가장 랭정하고도 사려(思慮) 깊은 방식으로 리해하며, 고량(考量)하며 겸열하는……능력이」(브·이·레닌 전집 二十七권 八○페지) 특히 고유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공산당은 보수주의와 침체에 대하여 비타협적이며, 그는 달성된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항상 앞을 내다보는 것이다. 볼쉐위끼 당의 본질 자체로부터, 그의 혁명적 정신으로부터 결함들에 대한 볼쉐위끼적 비타협성이 흘러 나오는 것이다. 결함들에 대한 볼쉐위끼적 비타협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그들의 원인들을 량심적으로 폭로하며 그들을 시정하는 방법들을 예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에 중요한 것은 자기 속에 결함들을 그것이 아직 맹아 상태에 있을 때에 발견 폭로하며, 그들을 예방할 줄 아는 가장 고귀한 품성을 양성하는 것이다.

결함들에 대한 비타협성이란 지도자가 사업상에서 엄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들을 가족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양보성은 무책임한 사태를 조성하며, 사업에 손실을 준다. 그러한 사태가 례컨대 프스곱주의 약간의 당 단체 내에 최근까지 존재하였다. 오쓰뜨로브스끼 구역당 비서 슈마트꼽은 자기 사업에서 엄중한 과오들을 범하였으며, 자기 지위를 악용하였으나, 이 행위로 인하여 처벌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는 주당 농촌 경리부 부부장으로 임명되기까지 하였다. 뿌쉬낀고로트 구역당 위원회 비서 루만체브는 자기 사생활에서 옳지 못하게 행동하였으나, 그러나 구역당 위원회 위원들과 지어 주당까지도 그것을 알면서도 충고에 그쳤고, 그의 과거의 공적에 빙거하면서 루만체브를 시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볼쉐위끼적 엄격성은 직위와 과거의 공적에 의한 에누리를 용인하지 않는다. 쓰딸린 동지는 볼쉐위끼당 十七차 당 대회에서 당과 쏘베트의 재벌칙이 자기들을 위해서 씌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량반(兩班) 화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거만하게 된 그 량반들은, 자기들을 없으면 안될 인물이라고, 지도적 기관들의 결정들을 위반하여도 별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군들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 그들의 과거 공로에 상관하지 말고 주저함이 없이 그들을 지도적 지위로부터 퇴직시켜야 할 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 로동당 출판사 一九四九년판 제三분책 二四五페지)

사업에 있어서의 엄격성은 행정적 처리와는 아무런 공통적인 것을 가지지 않는다. 행정적 처리는 사업의 본질 속에 침투할 줄 모르며 간부들을 옳게 배치할 줄 모르는 곳에서, 모든 것을 대중의 경험에 대한 연구없이, 당 일꾼들의 집단적인 의견에

대한 고려없이, 개인 단독적으로 결정하려고 시도하는 곳에서, 지도자들이 선거된 당 기관의 역할을 저하시키며 거만성을 발현하며 사람들에게, 간부들에게 불손하게 대하는 곳에서 보통 나타난다。

당적 지도자는 각종 사업 부문의 간부들에게 방향을 가리키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쓰딸린 동지가 로농 감독 기관 일군들에 대하여 「그들은 순결하며 비난할 여지가 없으며 자기의 정의에 있어서 무자비하여야 된다는 것은 명료하다。 이것은 그들이 타인을 검열하며 가르치는데 있어서의 형식적 권리만 아니라 도덕적 권리까지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전집 四권 로동당 출판사판 四五九페지) 라고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해당된다。

당은 부단히 자기의 간부들을 보충하고 있으며 간부들에게 있어서 모든 점에서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들인 레닌과 쓰딸린의 모범을 따라가는 정치 일군의 고상한 품성들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 레닌과 쓰딸린의 모든 생애와 활동은 공산주의 사상에의 헌신적인 복무인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볼쉐위크들에게 일리츠식으로 적과 투쟁하며, 적을 승리하며, 일리츠식으로 새 생활 새 풍습을 수립할 것을 호소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만일 로동 계급의 향상과 로동 계급의 사회주의 국가의 공고화에 대한 나의 사업에 매일보가 로동 계급의 상태를 공고화하며 개선하는 데로 향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내 자신의 생애를 무의한 것으로 간주하였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다。

당 일꾼들은 고상한 사상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 맑쓰—레닌주의의 위대한 사상들은 간부들의 력량, 그들의 견인성, 무진한 정력의 생명적 원천인 것이다。 이 사상들에 대해서 끝까지 충실한 사람들은 진정한 영웅주의와 자기 희생을 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사상성을 가진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자기 사업에 있어서 맑쓰—레닌주의의 학설로써, 당의 정책으로써 지도됨을 의미한다。 이것 없이는 진정한 불쉐위끼적 사업 작풍은 있을 수 없다。

당 및 국가의 매개 일꾼의 신성한 의무는 볼쉐위끼적 사업 작풍을 소유하며, 자신 속에 레닌—쓰딸린적 형의 정치 활동가의 훌륭한 자격들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당과 국가의 일군들은 항상 자기의 제과업과 동 수준에 처하고 있어야 한다。 당과 국가의 일군들과 레닌과 쓰딸린과 같은 그러한 명석하고도 확고한 활동가들로 되어야 하며, 위험한 경우에도 레닌과 쓰딸린 처럼 온갖 종류의 랑패(狼狽)로부터 해방되어 있어야 하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그들은 레닌과 쓰딸

린 처럼 현명하고 조급치 않아야 하며, 그들은 레닌과 쓰딸린과 같이 그렇게 성실하며, 또 공정하여야 하며, 그리고 레닌이 사랑하였던 것과 같이, 또한 쓰딸린이 사랑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자기 인민을 사랑하여야 한다。

당 사업에 있어 레닌—쓰딸린적 작풍을 소유하는 것—이것은 당의 제 과업과 그 수준에 처하여 있을 것을 의미하며, 모든 볼쉐위끼적 열정으로써 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볼쉐위끼 당과 위대한 쓰딸린은 간부들을 부단히 볼쉐위즘의 정신으로 교양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혁명적 전개력을 실무성, 목표 달성에 있어서의 완강성과 결합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레닌—쓰딸린적 사업 작풍을 소유한다는 것—이것은 레닌—쓰딸린 당의 정치적 및 조직적 경험을 소유함을, 레닌주의를 소유함을 의미한다。 당에 의하여 그의 존재의 반 세기 간에 축적된 거대한 정치적 및 조직적 경험 속에서 우리 간부들은 볼쉐위끼적 지도, 강유력한 혁명적 충동을 꾸준하고도 완강한 실무성과 결합하는 기능의 모범을 딴다。

당의 리론과 력사의 연구, 자기의 사상적 및 문화적 시야의 확대—이것은 레닌—쓰딸린적 사업 작풍 소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심오한 지식이 없이는, 력사 철학 경제학의 제문제, 실지 사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제문제들을 해명 리해할 줄 모르고서는 진정한 볼쉐위끼적 지도에 관해서 말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대중의 정치적 및 문화적 수준의 장성, 경제 문화 과학 부문들에 있어서 더욱 복잡화하여가는 제과업, 이데올로기야 부문에서의 적대되는 제 영향과의 투쟁, 이 모든 것은 곧 현재 당 간부들에게 높은 요구들을 제시하고 있다。

쏘베트 인민이 공산주의 건설에서 더욱 많은 승리를 거둘수록 우리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의 전진 운동에 있어서 정치적 의식성의 역할은 더욱 결정적인 것으로 되며, 주관적 요인의 역할, 능숙하고도 능동적인 지도의 의의는 더욱 증대한다。 당과 쏘베트의 일군들은 꾸준히 레닌—쓰딸린적 사업 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앞으로의 제성과의 가장 중요한 조건중 하나이다。

레닌—쓰딸린적 사업 작풍은 쏘베트 인민의 전세계사적 승리의 달성에 있어서 능동적인 무기로서 나타났던 것이다。 레닌—쓰딸린적 사업 작풍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의 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검열된 방법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볼쉐위크」지 一九四九년 十八호에서 섭 운 역)

중앙 및 동남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계급과 당들에 관하여

느·쁘·파르베로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경제 부문에서의 근본적 제반 개혁은 계급 구성에 있어서와 계급 세력 관계에 있어서 변경을 일으키었다。 산업 및 은행의 국유화는 도시에 대자본가들을 없게 하였으며, 토지 개혁은 지주 계급을 없게 하였다。

인민 공화국들에서 오늘날 사회의 기본 계급은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이다。

인민 공화국들의 로동 계급은 오늘날 그 대다수가 이미 자본주의에 의하여 착취 압박받는 계급이 아니며, 낡은 의미의 프로레타리아트가 아니다。 로동 계급은 지금 전체 근로자들과 함께 생산의 기본 도구와 수단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사회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실현하고 있다。

급격한 산업 건설과 관련하여 다른 사회층으로부터 보충되는 로동 계급의 수효는 증가되고 있다。

근로 농민은 이미 지주의 착취를 벗어났으나 아직은 소생산 계급으로서 그냥 남아 있다。

농촌에서는 아직 소규모적 개인 농업이 압도적이며, 이것은 「…자본주의와 부르죠아지를 항상, 매일, 매시, 저절로 또 대량적으로 낳고 있다」(레닌 전집 제二五권 一七三페지)

농민의 경제 형편에 있어서의 모순성(한편으로는 로력자, 다른 편으로는 유산자)은 아직 극복되어 있지 않다。 농업 생산 협동조합은 발전하기 시작하고 있을 뿐이고 아직은 미약하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생산 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협동조합적 원칙 위에서 농촌 경리를 개조하는 것이다。

이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 인민 민주주의 나라

들은 사회주의적 집단화에 대한 쏘베트 동맹의 가장 풍부한 경험과 쏘베트 꼴호즈 농민의 위대한 성과들을 리용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리용할 것이다。

아는 바와 같이 계급이 아니고 하나의 사회층인 인테리겐챠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는 이전에 착취 계급에 봉사하고, 로동 계급으로부터 리탈되어 있었으나, 인민 정권의 수립과 함께 지금은 그 대다수가 인민에게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인테리겐챠는 반동을 반대하고 근로자들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할 각오와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인테리겐챠들 속에서는 아직 분렬작용이 계속하고 있으며, 그 대렬에는 인민 민주주의의 사업에 가담하지 아니한 또 심지어 인민 민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까지 하는 일부 분자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설명된다。 즉 착취 계급들과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 소 자산가적 개인 농업이 압도적인 것, 경제적 제반 곤난이 존재하는 것 등에 의하여 설명된다。 제국주의 세력측의 압박의 여러가지 시도에서 표현되는 대외 사정도 역시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은 인테리겐챠들 속에 일정한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

전체 근로 인테리겐챠를 사회주의 편으로 완전히 끌어들일 목적으로 인민 공화국들의 사회 단체들과 우선 공산당들은 근로 인테리겐챠를 맑쓰—레닌주의의 정신으로, 새로운 애국적 및 국제주의적 사상과 새로운 사회주의적 도덕의 정신으로 교육하며 재교양하고 있다。 사회 단체들은 아직 인테리겐챠들 속에 존재하는 영 미 「문화」에 대한 숭배와 맹종(盲從) 과도 또한 투쟁하고 있다。

인테리겐챠들 속에서 나온 원쑤들에 대하여 인민 민주주의는 타협 없는 투쟁을 하며 그들을 인민 대중의 면전에서 폭로한다。

인민 공화국들에서는 전체 국가 정치, 경제, 및 문화 활동을 위하여 로동자 및 농민 출신의 새로운 인테리겐챠 간부들 즉 그들에 대해서 인민의 리익은 자기 자신의 리익으로 되며 또 인민에게 성실하게 복무할 간부들의 양성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어떤 지배 계급을 물론하고 그 자체의 지식층이 없이는 해 나가지 못하였다」고 쓰딸린 동지는 가르쳤었다。 (이·쓰딸린 「레닌주의의 제문제」 로동당 출판사판 제二권 三二二페지) 자기 자체의 지식층 없이는 인민 공화국들의 로동 계급도 해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로동 계급의 지도적 역할 하에서의 로동 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에 대한 맑쓰—레닌주의의 사상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의 최고 원칙으로서 인민 민주

주의 나라들의 실제 경험에서 새롭게 또 훌륭하게 확증되였다。

대자본가와 지주들이 이 나라들에 이미 없는 오늘날에 있어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의 동맹은 사회주의 요소들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 요소들을 반대함에 있어서 빈농에 의거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 중농과의 튼튼한 동맹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가르치기를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의 조건 하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과의 동맹은 전체 농민과의 동맹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과의 동맹은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 대중과위 동맹인 것이다。 이러한 동맹은 농민의 자본주의적 요소들과의 투쟁 없이는, 로호들과의 투쟁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쓰딸린 전집 제十一권 九六페지)

인민 공화국들의 공산당 (로동당) 중앙 위원회들은 자본주의 요소들을 제한 또는 구축하는 목적을 가진 여러 대책들을 수립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다。

一九四八년에 항가리에서는 온갖 토지 매매를 앞으로 립법적 방법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금지하는 정부 법령이 발포 (發布) 되었다。 토호들에게서 그들이 전에 소작준 토지의 대부분을 몰수하고 빈농과 농업 로동자들에게 분여하게 한 정부 결정도 역시 토호 제한을 목적한 하나의 중요 대책이였던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곡물 납부 비률은 이전보다 더 진보적인 률로 제정되었다。 四〇홀드 (一홀드는 〇·五七헥탈) 의 토지를 가진 토호들은 소농가보다 三배 더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있으며 四〇홀드 이상을 소유한 농가의 납부 비률은 더 많이 증가되어 있다。 농산물 예약 구매의 규정도 또한 변경되었다。 국가는 지금 농산물 예약 구매 조약을 농업 협동 조합과만이 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토호들은 농산물 예약 구매에 있어 신용 대부, 생산 수단, 화학 비료 등등과 관련된 리익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一九四八년 十二월에 불가리야의 대인민회의는 반타작 (半打作) 에 의한 소작제를 금지하는 법령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대책들과 또한 일정한 특수성을 가진 일련의 기타 금융상 및 과세상 (課稅上) 의 대책들은 기타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며 이것은 현 계단에 있어서 자본주의 요소들을 제한 또는 극복하는 정책의 실현을 보장해 주고 있다。

농촌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청산하는 사업은 농

촌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제한 또는 구축하며 로동 계급의 지도 하에서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과의 동맹을 튼튼히 할 데 대한 대규모적 농업 생산용 기계를 생산하는 사회주의적 공업을 농업의 대중적 집단화의 실현과 함께 발전시킬 데 대한 예비적 및 준비적 사업의 실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오직 면밀하게 준비되며 철저히 실시된 이러한 대책들의 기초 위에서만이 자본주의 요소의 제한 및 구축 정책으로 그들을 청산하는 데로 이행하는 것이 실현될 것이다。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인민 민주주의를 위하여!」 一九四八년 제十三호 「유고슬라비야 공산당 내의 정형에 관한 보도국 결정서」를 참고하라)

지적하여야 할 것은 파란에서는 一九四八년까지 농촌에서의 실제 사업의 여러 경우에 있어서 우익 기회주의적 경향 (고물까) 이 나타나 있었다는 것이다。 농구를 가지지 못한 토지적은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국가 농기구 배급소를 리용하며, 이 농민들을 토호의 예속으로부터 보호할 대신에, 우익 기회주의 분자들은 농촌에서의 계급 분화를 무시하면서, 모든 농민에게 똑 같은 농기구 사용료를 제정하였으며,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배급소를 창설한 목적을 외곡하였던 것이다。 기회주의적 실천은 또한 농가들이 이주해 온 서부 구역들에서 부요한 농민들이 항상 특권적 처지에 있게까지 하였다。 (파란 로동당 열성자 대회에서 진술한 베루트의 보고를 참고하라「프라우다」 一九四八년 九월 十일호) 고물까와 그의 지지자들은 농촌에서의 계급 관계의 자연 발생적 발전의 견지에서 있었다。 이것은 자본주의 요소를 장성시킬 수 있었으며, 또 결국에 있어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재생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일부 구역들에서 허용된 오유들은 파란 로동당의 새 지도부에 의하여 시정되었다。

농촌 정책에 있어서의 부분적 오유와 실패는 항가리 근로자 당에 의해서도 허용되었다。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제한하며 농촌경리 생산 사회주의적 궤도에 옮기는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의 농업 협동 조합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리론적 론증과 규정의 지연은 농촌에서의 착취 계급인 토호들의 숫적 증가, 부요화, 및 강화를 초래하였다。 대부분의 빈농들에게 있어 농구, 가축, 종자 등의 부족함을 리용함으로써 토호들은 이 부분의 근로 농민들에 대한 착취를 확대할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빈농들에게서 토지를 매점 (買占) 하기 시작하였다。 항가리 근로자당 중앙 위원회는 자기의 오유를 고려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일련의 대책, 즉 자본주의 요소를 제한 토

는 구축할 목적을 가진 대치들을 작성하고 실시하게 되었다。

인민 공화국들에서 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결정적 공격의 정책은 치렬한 계급 투쟁의 환경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력사의 풍부한 경험은 어떠한 계급도 이때까지 자원적으로 다른 계급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그러한 전례(前例)는 세계 력사상에 없다」고 쓰딸린 동지는 말하였다。(이·쓰딸린 「레닌주의의 제문제」 제十판 六〇九페지)

인민 민주주의의 조건 하에서의 계급 투쟁은 마치 소멸하고 있으며, 또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사회주의로 평화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일부 공산당 대렬 내의 우익 민족주의적 편향자들(파란의 고물까, 루마니야의 파트라슈카누 등등)의 주장들은 근로자들의 계급적 전투력을 약화시키며 혁명적 전망을 엄폐케 한다。착취자와 피착취자 간의 사회적 평화의 각종 「리론」은 맑쓰—레닌주의 학설에 적대되는 것이다。「계급적 원쑤의 반항은 그가 자기의 지반을 잃으면 잃을쑤록, 사회주의의 제반 성과가 크면 클쑤록 더욱 더 날카로운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쏘련 공산당(볼쉐위끼) 력사 간략 독본」 로동당 출판사판 五一一페지) 아카데미크 이·쁘·트라이닌의 론문 「특별한 형태의 민주주의」(「쏘베트 국가와 법」一九四七년 제一호 제三호를 참고하라)에서는 야수적이며 또 가장 숫적으로 많은 착취 계급——토호들——이 「인민 속에서 방랑(放浪)하는자」로 아주 옳지 않게 표현되어 있으나,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토호 계급은 아직 큰 세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 정권에 대하여 발광적 반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한다。이·쁘·트라이닌은 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결정적 공격의 정책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착취 계급들의 이데올로기적 위력을 근절함에 관해서」 말하였던 것이다。이것도 역시 근로자들의 계급적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과도기에 있어서의 발전의 합법칙성은 계급 투쟁의 부단한 첨예화이고 그의 소멸은 아닌 것이다。인민·공화국들에서 사회주의의 건설이 크게 발전하면 발전할쑤록 착취 계급들의 반항은 더욱 치렬하게 되며, 따라서 계급 투쟁은 더욱 날카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온갖 착취자들과 온갖 착취 형태를 청산하는 방향에서 착취자들을 반대하며 인민 정권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결정적 투쟁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인민 공화국들에서의 수다한 사실들은 착

취 분자들이 인민 정권을 반대하는 자기들의 투쟁에서 영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지지되며 고무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一九四七년에 불가리야에서 진행된 뻬뜨꼬브 및 그의 공범자들에 대한 공판은 이 파시스트 분자들이 외국 자본가들의 리익을 위하여 영 미 탐정 기관과의 긴밀한 련락 하에서 행동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불가리야 공산당 중앙 위원회 비서 체르벤꼬브 동지는 지적하기를 「뻬뜨꼬브 반대파의 박멸은 불가리야의 팟쇼적 및 반동 세력에 대한 타격인 것뿐만 아니라 불가리야에서와 발칸에서의 앙글로싹쏜 제국주의자들의 반동 계획들에 대해서도 타격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一九四七년 九월 말에 파란에서 진행된 수개국 공산당 대표들 정보회의」에서 진술한 브·체르벤꼬브의 보고「불가리야 로동당(공산주의자들) 사업에 대하여」一九四八년 모쓰크바 외국문 서적 출판부판 二五六페지를 참고하라)

一九四八년 十一월에 진행된 룰체브 그루빠의 공판에서는 이 반 인민적 분자들이 역시 쏘피야에 있던 미 영 사절단 지도자들과 긴밀한 련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폭로되었다。이자들은 미 영 사절단 지도자들이 제시한 문제에 따라 인민 민주주의 정권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던 것이다。

一九四八년 十월에는 부카레스트에서 반역자 그루빠의 공판이 진행되었다。이 공판에서도 조국 반역자들이 영 미 대표들의 지도와 지시에 따라 태업, 해독 사업, 및 간첩 행동 등을 감행하였다는 것이 확증되었다。

인민 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항가리의 착취 계급들은 역시 외국 반동의 원조와 지지에 의거하고 있었다。一九四八년에 항가리의 국가보안 기관은 인민 민주주의 항가리의 경제를 파탄시킬 것을 목적한 소위 항가리—아메리카 석유주식회사(마오르트)의 범죄적 활동을 적발하였다。

一九四八년 十二월에 진행된 이 회사의 이전 중역들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들은 그들이 미국회사 「스탠다트 오일 콤파니 오브 뉴 제르시」의 지시에 따라 해독 사업을 하였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一九四九년에 부다페스트 시에서 진행된 카토리크 교회의 파시스트 수령들에 대한 공판은 인민의 이 원쑤들과 우선 승려 민드쎈티는 합스부르그 왕조 정권과 이전 반동 국가 제도를 복구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에 있어서 역시 외국 반동의 직접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또는 기타의 많은 사실들은 인민 민주

주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 국제 반동의 지원을 받는 타도된 착취 계급들의 치열한 반항의 환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제국주의 진영의 두목들은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을 반대하여 반동파와 국제 폭력단의 모든 세력을 동원하고 있다.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그들은 제국주의의 돌격 부대인 파시스트적 찌또 도당에 의탁하고 있는 것이다. 부다페스트, 시에서 一九四九년 九월에 진행된 국가적 범죄자 라슬로 라이크, 및 그의 공모자들에 대한 공판은 항가리와 기타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을 반대하는 벨그라드의 유급(有給) 앞잡이와 제국주의 종복들의 흉악한 음모들을 폭로하였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원쑤들, 유고슬라비야의 파시스트 도당 찌또와 항가리의 라이크 도당의 스파이 및 살인자들은 항가리와 기타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을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환시키고 이 나라들에서 자본가와 지주들의 정권을 회복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인민의 원쑤들은 항가리 정부의 저명한 활동가들을 암살하며, 인민의 쟁취물을 피로 물들이려고 음모하였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모든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자유와 독립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적 음모이었다는 것은 공판의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스파이와 교사자들의 음모는 파탄되었다.

항가리 근로자 당의 지도를 받는 항가리 근로 인민의 경각성에 의하여 라이크와 그 공범자들의 팟쇼적 범행은 폭로되고 해(害) 없이 되었다. 추악한 파시스트 도당 찌또의 가면은 벗기어져 그가 미국 탐정 기관에 스파이로서 복무하고 있었다는 것이 전세계에 폭로되었다.

과도기에 있어서의 발전의 합법칙성은 계급 투쟁의 부단한 첨예화이고 그의 소멸은 아닌 것이다.

이때문에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공산당(로동당)들은 근로자들의 불변한 경각성과 전투적 각오를 지지하며, 그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제 곤난과의 투쟁에로 무장시키며, 프로레타리아트에 적대되는 세력의 책동에 대한 비타협성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인민 정권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결정적 투쟁에로 근로 대중을 조직하는 것이다.

× × ×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 형태로서의 인민 민주주의를 공산당의 령도와 분리시켜 고찰하여서는 아니된다. 쏘련이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 프로레타리아트

의 국가 정권의 새로운 조직 형태인 인민 민주주의는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하에서 많이 자기 수중에 정권을 장악하게 된 프로레타리아트의 목적 달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 형태로서의 쏘베트의 력사(로씨야의 제二차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 시기, 一九一八년 독일의 十一월 혁명 시기 등등) 중의 제 사실은 프로레타리아트에게 부르죠아적 영향을 주고 있던 당들 주 타협적 당들이 령도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쏘베트는 이 쏘베트에 단결된 대중들의 의사를 제쳐 놓고 부르죠아지가 정권을 장악할 것을 도와준 기관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형식을 내용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경제적 조직의 사회주의적 형태인 꼴호즈 형태를 과대 평가한 자들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쓰딸린 동지는 쏘베트가 정치적 조직의 사회주의적 형태인 것처럼, 꼴호즈가 경제적 조직의 사회주의적 형태인 것을 가르치었다. 그러나 꼴호즈나 쏘베트나 로동 계급의 가장 위대한 쟁취물로서 단지 한개의 조직 형태에 불과한 것이다. 「모든 것은 이 형태 속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인가에 달린 것이다」(이·쓰딸린 「레닌주의의 제문제」 一九四九년 로동당 출판사판 제三분책 八七페지).

인민·민주주의에 관해서도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한 형태로서의 인민 민주주의는 쏘베트 정권과 마찬가지로 「…무기이며, 오직 무기일 따름이다」, 「모든 문제는 이 무기가 누구의 손에 있으며, 또한 그것이 누구를 반대하여 돌려지게 될 것인가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동서 九〇페지).

사회 발전의 행정에 있어서 반동 세력은 때로는 낡은 내용을 회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혁명적 형식을 리용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로씨야에서 크론슈따트 반란 시기(一九二一년)의 반혁명 분자들의 구호 즉 「공산당원들이 없는 쏘베트」라는 구호는 혁명적 쏘베트 형태에 의하여 자본주의를 복구하려는 착취 계급들의 지향을 표현한 것이었다.

현하 조건 하에서 그 자체의 본질에 있어 반혁명적으로 되는 것은 인민 공화국 형태를 자본주의 복구의 과제에 종속시키며, 이 형태를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혁명적 통일적 전선을 반대하는 투쟁에 리용하려고 하는 파시스트 도당 찌또의 시도인 것이다.

인민 민주주의의 내용은 쏘베트 정권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산당의 옳바른 맑스-레닌주의적 지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공산당들은 모든 대규모적 민주 개혁들의 받기

자이었으며 선도자이었다。 반동에게 순 모든 처명적 타격은 공산당의 발기에 의해서 또한 공산당의 가장 적극적인 참가 하에서 취해졌으며 실시되였던 것이다。 인민 민주주의를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행정에서 공산당들은 정권의 지도적 핵심으로 되었다。 인민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 력량으로서의 공산당의 역할과 의의는 커지었다。

공산당 (로동당)들의 지도적 역할의 금후 장성과 강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 것은 로동 계급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및 조직적 통일의 공고화이다。 一九四八년에 인민 공화국들의 공산당과 사회 민주당들이 공산당 (로동당)으로 통일 합당한 것이 이것의 표현으로 된다。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주요 원인으로 로동자 당들이 통일하게 되는 기초로 되는 것이다。

一、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무기로서의 로동 계급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및 조직적 통일의 의의가 더욱 더 명백하게 된 광범한 로동자 대중들의 자각의 장성、

二、자기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철저한 투사이라는 것을 보여준 공산당들의 영향과 위신의 장성、

三、제국주의의 충복으로 전환되었으며、또 이 절파에 위신의 마지막 잔재까지 로동 계급 속에서 상실하게 된 우익 사회주의자들과의 로동자들의 공국적 결렬。

로동자 당들의 통일은 로동 계급의 분렬에 종말을 지었고 그를 단결시켰으며、국가에 있어서의 그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였다。

인민 공화국들의 로동 계급의 당들은 각국으로 칭해지고 있다。 즉 공산당 (체코슬로바키야、불가리야)、로동당 (파란、루마니야)、근로자당 (항가리)、로력당 (알바니야)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당들은 모두 새 형태의 당、맑쓰—레닌주의 당들인 것이다。 자기의 강령과 조직 구조에 있어서 이 당들은 당에 관한 레닌—쓰딸린적 학설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로동자 당들의 통일은 새 형태의 당의 이데올로기적 및 조직적 원칙에 립각하여 실현된 것이다。 이러한 통일의 선결 조건으로 된 것은 사회 민주주의적 개량주의적 경향들과의 투쟁이었다。

이와 같이 파란 사회당 대렬 내에는、이전 파란 사회당의 기회주의를 보존한 개별적 분자들이 있었다。

이 당 내에는 「중용(中庸)」리론 혹은 소위 중간 로선—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어떤 중간에 놓여있는 제三로선의 리론이 지지를 받고 있었다。 파란 사회당 내에서 「중용」론의 대표자와 표현가 (드로브네르、바호비츠、오수브카—모라브쓰끼 및 기타들)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타협시키려는 어떠한 고립적、자기 만족적 제도로 인민 민주주의를 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조아지 사이에서 정세에 순응하여 행동하는 당으로 파란 사회당을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생기었던 것이다。

「중용」론의 변종으로 파란 사회당 대렬 내에 있던 리론들은 「종합(綜合)」론、「혁명 감손(革命減損)」론、「사회주의에의 자동적 이행」론、「평행선(平行線)」론、「제동(制動)」론 등이었다。 이 모든 리론들은 적대 세력의 사상적 압력의 영향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인민 민주주의를 사회주의적 요소와 자본주의적 요소 간의 투쟁에 기초한 제도가 아니고 이 요소들의 타협에 기초한 제도로 고찰하였던 것이다。 (파란 로동당 합동 대회에서 진술한 치란케비츠의 추가 보고를 참조하라)

이 리론들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것의 하나는 우익 분자들이 선전하는、소위 「종합」론인바 이 리론은 마치 사회 민주당에 특유한 것같은 자유의 요소와 공산당에 대해서 특징적인 혁명의 요소와 종합인 새 이데올로기가 통일당의 기본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에 있어 「자유」란 개념에는 비계급적 성격이 부여되어 있었다。

파란 사회당의 진실한 좌익은 로동 운동의 통일이 맑쓰—레닌주의와 같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옳은 정강을 기초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데서 출발하여 그러한 리론과 투쟁하였다。

로동당과의 통일 도상에서、또는 우익과의 투쟁 가운데서 파란 사회주의자들의 맑쓰—레닌주의적 의식은 단련되었던 것이다。

파란 사회당은 우익 기회주의적、반동적、소부르죠아적 및 사상적으로 부패된 분자들을 숙청하였다。 이것은 파란 로동당과의 진실한 통일 즉 량당의 유기적 통일의 방향에서 발선되고 있던 통일의 필수 조건이었다。 통일 도상에서 파란 로동당 대렬 내에서는 우익 그루빠와의 격렬한 투쟁을 진행하였다。 즉 파란 사회당의 우익 분자들을 제거함이 없이、맑쓰주의에 관계 없는 이데올로기와의 가렬한 투쟁이 없이 량 로동자 당을 통일시킬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표명한 대렬들과의 투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우익 분자들과의 투쟁은 체코슬로바키야、루마니야、항가리 및 불가리야에서도 통일의 중요한 조건이었다。

유기적 통일의 원칙—이것은 로동자 당들의 통일의 기본을 이루는 기본 사상이다。

루마니야 로동당 대회에서 진술한 일반 정치 보고

에서 게오르기우·데스 동지는 말하기를 「가지 각색의 자치적인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레이버당 형태의 당을 창건하는 길로 향하여 가서는 아니되었다. 형식적인 통일을 수행함으로써 당 내에 각종의 그루빠 및 소그루빠들의 존재를 위한 지반을 만들어서는 아니되었다」라고 하였다.(一九四八년 二월二十一—二十三일 루마니야 로동당 대회에서 진술한 게오르기우·데스의 일반 정치 보고)

맑쓰—레닌주의의 원칙의 토대 위에서의 로동자 당들의 통일는 사회 민주주의의 제 원칙의 파산과 볼쉐위즘의 제 원칙의 승리를 증시하는 것이다.

항가리 근로자당 규약 가운데서는 당이 오직 하나밖에 없고 철저한 사회주의적 계급——로동 계급의 전위라고 지적되어 있다.

알바니야 로력당 규약에서는 당의 「…목적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건설이다. 당은 그 활동에 있어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의 리론으로 지도된다」라고 지적되어 있다.

볼가리야 공산당의 새 규약에서는 공산당이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을 선두로 하는 세계 공산주의 공동 전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고 강조되어 있다.

현재 공산당(로동당)들은 자기 대렬들을 검열하고 있으며, 이 행정에서 적대분자들과 출세주의 분자들이 숙청되고 있다.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일부 공산당들에서는 신입 당원의 입당이 림시적으로 중지되어 있거나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후보당원 년한제가 실시되고 있다. 현재는 당 정치적, 맑쓰—레닌주의적 사상 고양에 또한 민족적 독립과 국가적 자주권을 위한 투쟁에 있어 중요 조건으로 되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배양에 특별한 주의가 돌려져 있다.

인민 민주주의의 발전 행정에서 공산당들은 자기 대렬 내의 동요와 편향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으며 또 극복하고 있다.

민족적 독립과 인민 경제 부흥을 위한 투쟁이 인민 민주주의의 기본 과업이었을 때에는, 또는 공산당들의 투쟁이 팟쇼적 반동 세력을 반대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었을 때에는 이 당들 대렬 내의 기회주의적 분자들은 뚜렷하게 폭로되지 않았다. 기본적 반동 세력이 분쇄되고 인민 민주주의가 새로운 발전 계단 즉 사회주의의 기초의 건설 계단에 들어서고 또 철저한 민주주의 력량 즉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을 일방으로 하고 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적 세력을 타방으로 하는 사이의 기본 모순이 더욱 날카롭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따라서 계급 투쟁이 첨예화하기 시작하였던 그때에 공산당

대렬 내의 개별적 분자들의 사상적 약점과 기회주의가 발로되었던 것이다.

유고슬라비야에서는 찌또 도당이 흉악하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진영으로부터 리탈하여 제국주의와 반동의 진영으로 넘어가 횡포한 팟쇼 도당으로 화하고 말았다. 사회주의로 향하여가는 유고슬라비야의 길은 마치 파도기의 일반적 합법칙성과 관련이 없는 독특한, 특별한 길인 듯이 허위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찌또 도당은 외국 제국주의를 리롭게 하는 자기들의 반인민적 행위를 감추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一九四九년 八월 十二일 및 二十一일에 발표된 유고슬라비야 정부에 보내는 쏘베트 정부의 답서들에서와 유고슬라비야 정부에 보내는 一九四九년 八월 二十九일부의 쏘베트 정부의 각서에서는 현 유고슬라비야 정부가 외국 자본과 반동에게 매수되고 그것들과 굳게 련결된, 그리고 쏘베트 동맹과 국제 민주 운동을 적대시하는 정부로서 완전히 폭로되어 있다.

쏘베트 정부의 문헌들에서 인용된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은 찌또 도당을 제국주의에게 복무하는 고용자,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저주스러운 원쑤, 발칸에서의 전쟁 방화가들의 도당으로서 폭로하였다.

사회주의적 및 민주주의적 인민 정권과 하등의 공통성도 가지고 있지 않는 체제로서 현재 유고슬라비야에 존재하는 체제의 실제적 성격도 역시 철저하게 폭로되었다.

찌또 도당은 독일에서의 히틀러·팟쇼 체제와 하등 다름이 없는 팟쇼—게스따보적 체제를 유고슬라비야에 수립하였다.

상술한 쏘베트 정부의 문헌들에서는 게스따보적 통치 방법이 현재의 유고슬라비야에서 군림하고 있으며, 온갖 자유스러운 의사 표시와 인간의 모든 권리는 유린되고 있으며, 감옥은 사회주의 진영의 지지자들로 충만되어 있으며, 공산당은 팟쇼 도배인 경찰서장 란꼬비츠에 복종하는 고등 경찰의 한 지서로 화하였다는 것이 옳게 지적되어 있다.

국가의 경제는 외국 자본의 통제 하에 들어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다. 유고슬라비야의 인민들은 참혹한 략탈과 신음을 당하고 있다. 팟쇼적 테로에도 불구하고 유고슬라비야의 혁명 력량은 반인민적 테로적 체제를 반대하고 팟쇼 도당 찌도—란꼬비츠를 타도하기 위하여, 유고슬라비야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길로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계급 투쟁의 첨예화는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여러 공산당들에서 우익 민족주의적 분자들의 적극화를 초래하였다.

파란·로동당 대렬에서는 우익 기회주의적 및 민족주의적 편향을 고물까 (베슬라브) 가 명도하였으며 그는 「…사회주의로의 인민 민주주의의 금후 발전은…반드시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의 계단을 통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점에 있어서 맑쓰—레닌주의로부터 퇴각하였다。

인민 민주주의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간의 차이를 기회주의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파란 로동당 대렬 내에서는 당의 어떠한 특별한, 독특한, 그리고 인민 민주주의 시대에 고유한 형태에 관한 허위적 견해들이 발생하였다。 실지에 있어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새 형태의 당인 전동맹 공산당 (볼쉐위끼) 과 다른 특별한, 독특한 형태의 당은 없으며 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의 모범은 전동맹 공산당 (볼쉐위끼) 이며 또 그것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를 향하는 인민 민주주의의 독자적 길 즉 쏘련이 통과한 길과는 원칙적으로 다른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진 길에 대한 개념을 파란에서는 고물까로 하여, 루마니야에서는 따뜨라슈칸으로 하여, 및 기타들로 하여 자본주의 분자들과의 계급투쟁의 불가피성을 부인케 하였다。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은 것을 완전히 망각한 데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가) 위대한 十월 [illegible] 주의」 혁명없이는 중앙 및 동남구라파 나라들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승리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것, (나) 쏘베트 동맹이 독일 파시즘을 분쇄함으로써만이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인민 혁명의 승리를 위한 제조건이 조성되었다는 것, (다) 국제 사회주의 사상의 창조적 원천과 기타 공산당들 특히 전동맹 공산당 (볼쉐위끼) 의 경험으로부터 리탈하고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기타 나라들의 지지없이는, 사회주의가 인민의 생활과 풍속에 사모친 쏘련의 원조없이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승리한 사회주의 나라와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 현하 세계의 기본적 량 진영의 치렬한 투쟁이 진행 중에 있는 조건 하에서 전적으로 자체의 력량만으로써, 또는 자기의 특별한 방도만으로써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는 주장 자체는 사회주의의 불구 대천의 원쑤이었으며, 또 지금도 원쑤인 민족주의의 뚜렷한 구현인 것이다。

파란 로동당은 맑쓰—레닌주의의 기본 원칙과 혁명적 파란 로동운동의 우수한 전통을 반대히는 것을 지향한 우익 민족주의적 편향을 자기 대렬 내에서 성공리에 극복하였다。 一九四八년 九월에 개최된 파란 로동당 중앙 위원회 회의는 고물까의 편향을 맑쓰—레닌주의로부터의 퇴각으로서 규정하고 그의 편향을 비판하였다。 고물까는 파란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총비서의 직위로부터 철직되였다。 (주)

(주) — 一九四八년 九월 파란 로동당 중앙 위원회 회의에서 고물까는 자기의 오유를 시인하였다。 그러나 一九四八년 十二월에 개최된 로동당 합동 대회에서 진술한 자기 연설에서 고물까는 (一) 민족주의와의 투쟁에 관한 문제를 회피하였으며, (二) 마치 국제주의는 민족적 허무주의(虛無主義)에 즉 마치 로동운동을 위험하는 위험성에 이르게 한다는 해로운 견해를 발전시키었다。 제논 끌리쉬꼬 대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고물까는 중앙 위원회 회의에서 한 자기자신의 자기비판을 묵살함으로써 자기의 이전의 허위적인 민족주의적 립장으로 돌아섰던 것이다」

불가리야 공산당에 있어서도 「부분적 오유들이 허용되었으며 이것은 주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에 있어서의 계급투쟁의 첨예화의 불가피성을 과소평가하는데서 나타났다」(「자기비판의 기치 하에서」란 보·체르벤꼬브의 론문에서 인용함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인민 민주주의를 위하여」 제十五 (十八) 호) 불가리야 공산당 중앙 위원회 비서 브일꼬·체르벤꼬브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제五차 당 대회 (一九四八년 十二월) 이전 시기에 있어서 불가리야에서 허용된 규정들의 주요한 결점은 그 규정들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회피하였다는 데 있었다。 일부 규정들에서는 맑쓰—엥겔쓰—레닌 및 쓰딸린에 의하여 확립된 합법칙성들과 함께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의 다른 합법칙성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것은 사회주의를 향하는 불가리야적 길의 특수성을 과장하는 데 이르게 하였다。 「자주 우리의 규정은 즉흥적(卽興的)이며 우연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라고 체르벤꼬브 동지는 지적하였다。 (불가리야 공산당 제五차 대회에서 진술한 브일꼬·체르벤꼬브 동지의 보고 「맑쓰—레닌주의적 교양과 사상 전선에서의 투쟁」을 참고하라)

또한 지적하여야 할 것은 민족적 독립, 국토 완정 및 국가적 자주권의 보장과 관련된 기본 과업들이 국내에서 해결되었고, 파시스트들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의 복구 과업이 실현되었고, 반동의 기본 세력이 분쇄된 이후 불가리야 인민 공화국에서는 경제적 및 사회—정치적 발전 속도의 약간의 지연이 허용되었으며 이것은 자기 력량에 대한 과소평가와 반동 잔재력에 대한 과대평가를 의미하

없나는 것이다。(볼가리야 공산당 제五차 대회에서 시실숩한 그·므·지미뜨로브의 보고를 참고하라)

그러나 볼가리야 공산당은 「…상당히 완만하였으며 불충분하게 전개된 리론적 론중에도 불구하고 새 환경이 요구한 새 과업들의 해결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또 실지로 보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볼가리야 로동당(공산주의자들) 제五차 대회에서 진술한 그·므·지미뜨로브의 정치 결산 보고)

그·므·지미뜨로브의 지도 하에, 볼가리야 공산당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시기의 국가에 관한 맑쓰—레닌주의 학설을 고수하였다。지미뜨로브 동지는 말하기를 「맑쓰—레닌주의 원칙에 따라 쏘베트 체제와 인민 민주주의 체제는 동일한 정권, 즉 도시와 농촌의 근로자들과의 동맹 하에서 이 동맹의 주위에 서 있는 로동계급의 정권의 두가지 형태이다。이것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두가지 형태이다。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독특한 형태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공동적인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의 기본적 합법칙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또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동상)

그·므·지미뜨로브의 지도에 의하여 트라이초·꼬쓰또브의 우익 민족주의적 및 반쏘베트적 행위는 폭로되였다。꽛쇼도당 찌또의 이 후손은 쏘베트 동맹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비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볼가리야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트라이초·꼬쓰또브를 당에서 출당시키었고 대민족회의는 그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트라이초·꼬쓰또브가 볼가리야 공산당 제五차 대회에서의 자기 보고 가운데서 허용한 오유가, 확실히 우연한 것이 아니였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서는 아니된다。이 보고에서 그는 쏘베트 체제와 인민 민주주의 체제가 본질에 있어, 원칙에 있어 다르다는 것을 확정하려고 아주 옳지 않는 시도를 하였다。꼬쓰또브는 지적하기를 쏘베트 체제 하에서는 로동 계급과 그의 당이 정권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나 인민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정권이 로동자 농민 및 근로 인테리겐차의 뿔럭의 수중에 있다고 하였다。(「자유 볼가리야」 一九四九년판을 참조하라)

이러한 오유는 로동 계급의 지도적 역할 하에서의 로동계급과 기타 근로자들과의 동맹으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유명한 레닌—쓰딸린적 원칙을 망각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한 계급(프로레타리아 계급—필자)의 정권은 프로레타리아 계급과 소부르죠아 계급 근로 대중 우선 근로 농민 사이의 특별한 동맹 형태에 의하여서만이 수립될 수 있으며, 또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쓰딸린 전집 제八권 二六페지) 이 동맹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사상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최고원칙으로 되는 것이다。

인민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로동자 농민 및 근로 인테리의 뿔럭(동맹)은 로동 계급의 지도적 역할 하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 대중과의 동맹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의미할 수 없는 것이다。

인민 민주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건설의 제 과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다。이것은 지도적 역할이 오직 하나의 가장 철저한 혁명적 계급인 로동 계급에 속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다。프로레타리아트의 유일 정권은 이것을 옳게 리해할 것 같으면, 즉 근로 대중과의 동맹의 도움으로 또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적 역할 하에서 실현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정권으로서 리해할 것 같으면 인민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도 있는 것이다。이와 다른 해석은 인민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로동 계급의 지도적 역할을 부인하는 데로, 다시말하면 근본 문제에 있어서 맑쓰—레닌주의와 결렬하는 데로 이르게 한다。

상기한 보고 가운데서 트라이초·꼬쓰또브는 쏘베트 체제가 마치 혁명적 합목적성의 기초 위에서만이 작용하나 인민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모든 것이 채택된 법령의 기초 위에서 수행된다는 듯이 또한 말하였다。

합법성의 원칙을 합목적성의 원칙에 대립시킴으로써 트라이초·꼬쓰또브는 쏘베트 체제와 인민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의 사회주의적 합법성에 대한 옳은 리해(理解)를 외곡하였다。이 체제들의 조건 하에서는 합목적성과 합법성이 이것들의 변증법적 통일 속에서 작용하며 합목적성은 합법성의 내용 자체를 표시하는 것이다。합법성을 엄수하는 것은 동시에 혁명적 합목적성의 실현을 또한 표시하는 것이다。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대립시키는 것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하에서의 합법성을 부인하며 혁명적 합목적성을 불법(不法)으로 인정하는 데로 이르게 한다。이것은 큰 오유이며 정치적으로 해로운 것이다。

루마니야 공산당 내에서는 이전 사법상 파트라슈카누를 수반으로 하는 대기회주의자들—반대파들이 적발되었다。인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치렬한 투쟁 속에서 파트라슈카누는 로동 계급과 전체 농민과의 동맹을 제의하고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계급 투쟁을 착취자와 피착취자 간의 「사회적 평화」와 바꾸려고 시도하였다。루마니야는 계급 투쟁을 모르게 될 것이라고 파트라슈카누는 말하였다。이로부터 출발하여 그는 마니우와 접근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게 되었다。파트라슈카누의 근본 테제도 된

것은 루마니아에는 쓰런이 걸어온 길과는 다른 자기의 특별한 사회주의로의 길이 있다는 그것이었다。실지에 있어 소위「특별한 길」이란 즉 고안(考案)된「평화적 발전」의 길은 자본주의를 부활하는 데로만 이로케 할 수 있는 것이다。

루마니아 로동당은 당을 옳지 않은 길로 몰아넣으려는 원쑤들의 시도를 분쇄하였다。

알바니아 공산당 대렬 내에서는 반역도당 쪄또가 자기의 앞잡이로서 코치 조제, 판디 크리스토, 및 세이풀로이 말레쉐비를 가지고 있었다。이 반역자들은 빈쓰적 비방을 전파하였으며, 알바니아 공산당의 활동을 쪄또 도배의 부르죠아 민족주의적 정책에 종속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알바니아 공산당(현재는 알바니아 로력당이라 칭한다)은 자기 대렬로부터 코치 조제와 판디 크리스토를 축출하였다。一九四九년에 알바니아의 인민 재판소는 반역자 코치 조제에게 사형을 언도하였다。

우익, 민족주의적 편향을 폭로하며 인민 민주주의의 본질과 또한 사회주의 건설의 정책 및 당면 과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공산당들은 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으로부터와 직접 쓰딸린 동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그·므·지미뜨로브는 말하기를「우리가 우리가 인민 민주주의의 지도적 력량인 우리 당의 정책 문제에 대한 충고와 해석을 통하여 위대한 볼쉐위끼당으로부터와 우선 직접 쓰딸린 동지로부터 받은 그 비상한 그리고 제때의 도움에 대하여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이 충고와 해석은 우리에게 허용된 오유를 시급히 시정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라고 하였다。─불가리야 로동당(공산주의자들) 제五차 대회에서 진술한 그·므·지미뜨로브의 보고「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인민 민주주의를 위하여」一九四九년 제一호(二八)─

현재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공산당(로동당)들의 지도적 역할은 전체 국가 사회─정치, 경제, 및 문화 생활에 있어서 일반이 공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산당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써 국가 정권 기관에 대한 지도를 실현하고 있다。

(가) 인민의 사업에 충직한 자기의 우수한 당원을 국가 기관의 지도적 직위에 등용하는 것,

(나) 국가 기관내 자기 대표들에게 지도적 지시를 주는 것, 특히 최후적 중요 결정을 준비할 때에,

(다) 인민 전선에 통일된 대중 단체들의 방조하에서 국가 기관들의 사업을 검열하며, 또 이 기관들의 오유와 결점들을 시정하는 것。

현재 인민 공화국들에서는 어떠한 중요 문제이든 공산당(로동당)의 지도적 지시 없이는 국가 기관들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한다。

국가, 사회─정치, 경제, 및 문화 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공산당들의 지도적 역할을 가일층 공고히 하는 것은 인민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인민 공화국들에서는 가장 영향있고 위신있는 대중적 당이며 지배적 당인 공산당(로동당)과 더불어 다른 당들도 있다。이러한 당들 가운데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민족 해방 투쟁과 민주 개혁 실시에 참가하였던 농민당들이다。(파란의「스트론니츠트보 류도베」, 루마니아의「농민전선」, 불가리야 인민─농업 동맹, 항가리 소농민당)。이 당들은 아직도 대다수의 근로 농민들을 통일시키고 있다。례하면 파란에서「우익과 분렬한 스트론니츠트보 류도베 지도부(에쓰엘)는 농민 운동의 급진 분자들을 집결시키는 중심부로 되었다」(브·베루트─파란 통일당의 사상적 기초에 대하여「프라우디」一九四八년 十二월 十七일부)

최근까지 파란에는 다른 농민당 즉「파란 스트론니츠트보 류도베」도 존재하였다。一九四九년 九월에 량 농민당 지도부는 량당을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이에 이르는 도상에서 량당은 자기 대렬로부터 계급적, 적대 분자들과 제국주의의 주구 미꼴라이치크의 앞잡이들을 숙청하는 일대 사업을 수행하였다。

파란의 이 량 농민당의 통일은 파란 통일 로동당의 지도 하에서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강화하며, 농촌을 사회주의적 원칙 위에서 재건하며, 쓰베트 동맹 및 모든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과의 친선을 가일층 굳게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불가리야 농업 인민 동맹은 이 동맹의 규약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교양적 및 정치 경제적 단체」이다。(불가리야 농업 인민 동맹 규약)。이 동맹의 목적은 농촌 경리를 때당으로 발전시키고 농민의 형편을 개선하는 것이다。

루마니아의「농민 전선」은 타인의 로력을 착취하지 않는 근로 농민들의 민주주의적 단체이며, 반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로동 계급과의 협력을 굳게 하며, 민주주의를 공고 발전시키며, 협동 조합을 널리 보급시키는 것을 자기의 과업으로 한다。

농민당들은 공산당(로동당)들의 지도적 역할을 시인하고 공산당(로동당)을 따라가고 있으며, 또한 농촌 경리를 그 생산 협동 조합화의 방향에서 개조하는 정책에 찬성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一九四八년 十월 二일부의「스트론니츠트보 류도베」중앙 회의의 결정서에는「파란 농촌의 발전 및 양양의 오직 유일한 옳은 방조는 생산 협동 조합이며, 광범한 소농 및 중농 대중들의 로력 경쟁이다」라고 지적되어 있다. (파란 출판물 년감 一九四八년 제四一호 (一八六) 一五페지)

一九四八년 十월 三十일 불가리야 농업 인민 동맹 최고 회의는 동맹의 다음과 같은 세가지 주요 원칙을 수립하였다. (가) 맹원은 빈농 및 중농 대중 출신자들만이 될 수 있다. (나) 맹원은 인민 민주주의의 사상으로 재교양되어야 한다. (다) 동맹은 로동 계급과 그의 전위대인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국내의 성공적 사회주의 건설의 필수 조건으로서 인정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민 전선 창건 시기에는 일부 부르죠아적 및 소부르죠아적 당들이 인민 전선에 가입하였다. (례하면 체코슬로바키야 인민 사회주의당 또는 인민당, 슬로바키야 민주당 등등)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 가일층 발전하는 행정에서 부르죠아 정당들의 반동 분자들은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로 이행하기 위한 조건을 준비하는 데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금지되어 있는 파시스트 및 친(親) 파시스트당의 많은 당원들이 이 당들 내에서 자기들의 피난처를 얻어내고 있었다. 적대분자들은, 특히 부르죠아 정당들의 지도부 가운데 있는 서대분자들은 인민 정권의 시책들을 반대하고 여미 제국주의의 직접 앞잡이들로 화하였다.

이리하여 전쟁전 련합 정부들에 참가하였던 체코슬로바키야 인민 사회주의당(一九三八년에 사회당으로 개칭)은 민족 전선에 가입하여 그 강령을 말로만 시인하고서 강령 실현을 위한 투쟁을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지로 그것을 파탄시키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 당은 금지되어 있는 반인민적 당들의 일부 활동가들을 자기 대렬에 가입시키고 사실상으로 지주들과 온갖 변절자들의 지주 (支柱)로 되고 말았다.

一九四八년 二월 전에 체코슬로바키야 정부의 성원으로 가입하여 있던 인민 사회주의당 수령들은 민주주의적 제반 시책의 실시를 백방으로 방해하였으며 민주주의적 제반 법령을 채택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은「개인 기업」의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대규모적 령자(領地)의 청산 및 근로 농민에의 토지 양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구나 一九四八년 二월에 확실하게 된 바와 같이 이 당 출신의 이전 대신들은 인민 민주당과 슬로바키야 민주당 출신의 음모자들과 함께 무력적 국가 변혁과 정권 강탈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음모자들은 오산을 하였던 것이다.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그들

의 반인민적 음모는 미연에 방지되었으며, 그들은 체포되고 말았다. 인민 사회주의당의 대다수의 보통 당원은 자기들의 반동적 수령들, 즉 자본주의의 옹호자이며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인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 당의 지도부는 대체되고 당은 반당 분자들을 숙청하게 되었다.

다른 인민 공화국들에서도 인민 민주주의를 적대시하는 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비(非)프로레타리아 당들의 전진하고 량심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결과에 반동 분자들은 이 당들로부터는 물론 인민 전선에서도 구축되었으며 당 지도부는 경신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도 인민 공화국들에는 인민 전선에 가입하고 있는 일부 소부르죠아 정당들 (체코슬로바키야의 인민당, 슬로바키야 부흥당, 파란의「스트론니츠트보 데모크라찌츠네」및「스트론니츠트보 프라츠이」등등) 이 아직 있다.

一九四八—四九년에 이 당들의 일부가 채택한 결정 가운데는 공산당 (로동당) 들과의 련대성이 표시되어 있다. 「스트론니츠트보 데모크라찌츠네」중앙 회의의 一九四八년 十월 十一일 회의 결정서 가운데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다.

「스트론니츠트보 데모크라찌츠네」는 파란의 완전한 국가 주권의 토대와 파란의 발전을 위한 제 조건이 사회주의 파란의 전도에 놓여 있다고 보면서 근로 대중과 더불어 그들의 사회주의를 향한 진군과 함께 갈 것이다」(파란 출판물 년감 一九四九년 제四三호 (一八八) 一四페지)

인민 전선(조국 전선, 민족 전선, 민주 전선)들의 새 강령들은 이 전선에 가입한 정당들의 자주적 존재와 활동을 반대하지 않으나, 그들에게 공동 규률에 복종하며, 인민 전선 강령의 정신에서 행동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일부 나라에는 인민 전선에 가입하지 않은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 정당 및 그루빠들이 즉 소위 야당 (野黨) 및 반대파 그루빠들이 아직 남아 있다. (례하면 루마니야의 루푸 농민 민주당 및 베잔 인민 자유당). 이 정당들은 독자적으로 선거에 나설 수 있으며, 현존 인민 민주주의 체제에 충실한 한도 내에서 행동하는 의회내 반대파를 조직할 수 있는 것이다. 국외 반동의 앞잡이로 화하였고 인민 민주주의 제도 반대자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당들과 그루빠들은 금지되어 있다.

그리하여 一九四七—一九四八년에 인민 대중들의 요구에 따라 불가리야에서는 빼뜨꼬브 및 룰체에브 그루빠들이 금지되었으며 루마니야에서는 마니우당이, 항가리에서는 소위 프페이프에르 독립당이 금지되었으며 이들의 수령들은 반국가적 음모의 조직자로서 처단되었다.

一九二七년 九월 二일 최초의 미국 로동자 대표단파의 쓰딸린 동지의 담화를 상기하는 것은 적당한 것이다. 어째서 쏘련에는 합법적 당으로서 오직 하나의 당만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이러한 지위가 인공적 방법, 혹은 어떠한 행정적 방책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말하기를 「국내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지위는 인공적인 그리고 일부로 고안된 어떤 것이 아니다. 이러한 지위는 인공적으로 또는 행정적 책략의 방법 등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당의 독점은 에쓰 에르와 멘쉐위크들의 당들이 종국적으로 파산되고 우리 현실의 제 조건 가운데서 없어지고 만 결과로써 생활 속에서 자라났으며 력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쓰딸린 전집 제十권 一一四폐지)

더 나아가 쓰딸린 동지는 어떻게 대중들이 멘쉐위크들과 에쓰 에르들의 부르죠아적 본심을 알아 차리고 그들의 당을 거부하였으며, 또 어떻게 이 당들이 자기 자신들의 반인민적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반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를 쏘베트 정권 초기의 구체적 실례들로써 가르쳐 주었다. 대중들 속에 지반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당은 소멸의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쏘베트 국가 내에서의 공산당의 독점적 지위는 자기의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 행정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인민 민주주의의 발전은 역시 다당성(多黨性)을 청산하는 데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것은 근로 대중들의 정치적 의식의 장성에 의하여, 로동 계급의 지도하에서의 로동 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의 공고화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공산당의 주위에 더욱 난결합에 의하여, 부르죠아적 및 소부르죠아적 정당들의 지도자들을 근로자들의 원쑤로서 폭로함에 의하여, 착취 계급들을 압박 제한하며 앞으로는 청산하는 과정에 의하여,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인민의 사상—정치적 통일을 조성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정치적 의식이 장성함에 따라 농민당 또는 기타 소부르죠아 정당들의 독자적 존재를 위한 지반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왜냐 하면 농민 대중과 기타 비프로레타리아 대중들은 맑쓰—레닌주의의 과학적 기초에 립각한 공산당만이 로동자는 물론하고 모든 근로자들의 리익의 진정한 표현자이며 또 선도자이라는 것과 오직 로동 계급의 유일한 혁명적 당의 지도 하에서만이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기 때

문이다.

一九四九년 二월에 벌써 루마니야 민족—인민당은 자체 해산을 광포하였다. 이 당은 애국자들의 동맹을 기초로 하여 一九四六년 초에 조직되어 일부 인테리겐차들과 소부르조아 분자들을 통일시키였다. 이 당 중앙 위원회의 결정서에는 그의 자체 해산에 관하여 당은 자기 앞에 나선 과업, 즉 압박자와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투쟁, 루마니야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을 지지하는 과업을 완수하였다 라고 지적되어 있다. 대민족 회의 대의원들은 즉 이 당의 이전 당원들은 무소속 대의원으로서 남아 있다. (一九四九년 二월 六일부 자체 해산에 관한 민족—인민당 결의, 一九四九년 二월 十六일부「쁘라우다」지에 발표된 이에 대한 보고를 보라)

불가리야에서는 정당「즈베노」와 급진당이 一九四九년 초에 자기 활동의 중지, 자체 해산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조국 전선에 합류하였다.

그·므·지미뜨로브는 교시하기를 「…우리 나라의 진보적 사회 발전은 수다한 정당과 그루빠에로……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착취적 자본주의 체제의 모든 잔재물 청산하는 데로 가고 있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지도를 위한 유일 정당의 창건에로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므·지미뜨로브—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불가리야 인민의 투쟁,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인민 민주주의를 위하여」 一九四八년 제七호)

(「쏘베트 국가와 법」 一九四九년 九호에서)

十

칠 역

一九五〇년 三월 十일 인쇄
一九五〇년 三월 十五일 발행

「근로자」 제五호
【정가 三十원】

책임주필 기 석 복

인쇄인 조 춘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발행소 로 동 신 문 시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잡지편집국 전화 국장실 二五—六번
편집실 三八〇—一二번

ㄱ—18298